

<div data-bbox="252 1025 647 1357" data-label="Text"> <p style="text-align: center;">주 의 (주의 내용 기재) (한글 14 point 고딕체)</p> </div>	<div data-bbox="746 434 778 1727" data-label="Text"> <p>감염병의 인문학적 접근과 활용 2013 질병관리본부</p> </div>	<div data-bbox="884 421 1150 584" data-label="Text"> <table border="1"> <tr> <td>발간등록번호</td> </tr> <tr> <td>11-1352159-000163-01</td> </tr> <tr> <td>학술연구용역과제</td> </tr> <tr> <td>최종결과보고서</td> </tr> </table> </div> <div data-bbox="852 734 1358 913" data-label="Section-Header"> <p style="text-align: center;">감염병의 인문학적 접근과 활용 Medical Humanities of Infectious Diseases: Methods and Application</p> </div> <div data-bbox="963 1111 1278 1144" data-label="Text"> <p style="text-align: center;">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p> </div> <div data-bbox="1015 1485 1193 1518" data-label="Text"> <p style="text-align: center;">질병관리본부</p> </div>	발간등록번호	11-1352159-000163-01	학술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352159-000163-01						
학술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보고서						

※ 주의 내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학술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보고서

과제번호	133	색인어	
과제명	국문	감염병의 인문학적 접근과 활용	
	영문	Medical Humanities of Infectious Diseases : Methods and Application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박태선
주관연구 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전공
	이일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
	연락처	이메일	
발주부서	부서명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강애리	
연구비	30,000 천원		
연구기간	2013 . 7 . 8 - 2013 . 11 . 7		
총참여연구원	10 명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 명, 연구보조원: 5 명 보조원: 1 명)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공개가능 여부	가(√), 부()
<p>수행년도 2013년도 학술연구용역과제에 의하여 수행중인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1. 최종결과보고서 제본 20부 2. 최종결과보고서 전자파일 CD 2장 3. 독감의 역사와 예방관련 홍보영상 CD 1장 4. 독감의 역사와 예방관련 강연자료 CD 1장 5. 감염병 관련 인문학 및 기사검색자료 CD 1장 6. 결과평가 의견반영 대비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13 년 11 월 7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연구책임자 이일학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연구기관장 박태선 (직인)</p> <p>질병관리본부장 귀하</p>			

목 차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v
(한글)	
(영어)	
II. 학술연구용역과제 연구결과	1
제1장 연구개발목표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3. 연구수행체계	6
4. 연구활용방안	7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8
제1절 국내 연구 동향	8
1. 감염병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의 예	8
2. 평가	9
제2절 국외 연구 동향	9
1. 인문학에 대한 외국의 데이터 베이스	9
2. 감염병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예: 말라리아와 인간사회변천	10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내용	12
2. 연구방법	12
제4장 인문학적 자료를 통한 감염병의 양상	14
제1절 말라리아에 대한 문학작품 속의 인식변화(근대문학 중심)	14
1. 말라리아에 대한 대중 인식	14
2. 말라리아와 민간의 인식관계의 양상	14
3. 말라리아균과 근대의학-추리소설 장르와 말라리아를 통해 살펴본 식민 지 조선	18

제2절 말라리아에 대한 언론자료의 분석	25
1. 내용과 형식적 측면의 분석	25
제3절 독감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속의 인식 및 행태 변화	28
1. 언론보도를 통한 일반시민의 질병정보 접근 양상	28
2. 시대 별 독감 유행의 역사와 일반 대중의 의식변화	29
3. 독감 치료약 및 예방접종에 대한 언론보도	37
제4절 2000년 대 이후 유행 독감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41
1.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SARS)에 대한 언론자 료의 분석	41
2. 신종플루에 대한 언론자료의 분석	44
제5절 임상 의사 관점에서 본 독감: 2009년 신종플루를 중심으로	47
1. 역사 속의 독감과 주요 사건들	47
2. 독감과 관련한 국내의 상황	48
3. 신종플루에 대한 임상 의사로서의 경험	50
제6절 감염병 관련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53
1. 시민강연을 통한 인플루엔자 관련 정보전달 방안<부록3 참조>	53
2. 영상자료를 통한 정보전달 방안<부록4 참조>	53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55
제1절 결론	55
1. 말라리아의 인식변화와 시대상	55
2. 독감관련 언론자료의 분석	56
3. 임상 의사 관점에서 본 독감	57
제2절 제언	59
1. 감염병-인문학 융합연구의 필요성	59
2. 추후 연구제언	62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64
제1절 활용계획	64
제7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66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66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66
1. 연구비 사용 내역	66
2. 연구분담표	67
제10장 참고문헌	68
제11장 첨부자료	70
<부 록 1: 문학작품의 말라리아 데이터베이스 >	70
<부 록 2: 신문보도자료의 감염병 데이터베이스 >	98
<부 록 3: 독감관련 시민강연>	259
<부 록 4: 1918년의 악몽 : 스페인 독감>	282

<표 차례>

<표 1> 말라리아의 형식적 측면 분석	25
<표 2> 말라리아의 내용적 측면 분석	25
<표 3> 말라리아의 연대기적 내용 구분	26
<표 4> 독감의 역사	36
<표 5> SARS에 대한 형식적 분석	43
<표 6> SARS에 대한 내용적 분석	43
<표 7> 신종플루에 대한 형식적 분석	46
<표 8> 신종플루에 대한 내용적 분석	46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수행체계	6
<그림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60
<그림 3> 활용분류별 단계	61
<그림 4> 연구수행에 따른 의사소통 개념도	62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요약문

과제명	감염병의 인문학적 접근과 활용		
색인어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이 일 학
연구기간	2013. 7. 8- 2013.11. 7		
<p>I. 제 목: 감염병의 인문학적 접근과 활용</p> <p>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p> <p>○ 인문학(역사·문학·예술 등) 및 예술 속에 나타난 감염병, 그 중에서도 독감과 말라리아 등에 대한 연구·분석 통해 감염병에 대한 국민(또는 의료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p> <p>○ 질병에 대한 인문학적 시도를 통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p> <p>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p> <p>○ 연구 과정에서 다음의 접근 방법을 활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고찰과 자료수집과 분류 - 콜로키엄 개최 - 콘텐츠 개발 및 자료 활용 방안 제시 - 시민강좌 <p>IV. 연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의 국내 역사와 관련 자료의 분석 ○ 말라리아 관련 인문학 자료 분석 ○ 독감에 대한 국내 연혁 및 시대변화 자료 분석 ○ 독감에 대한 국내 언론자료의 동향파악 ○ 인문학적 성찰과 감염병 관리 분야 응용 방안 <p>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p> <p>○ 향후 인문학과 감염병 연구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p>			

Summary

Title of Project	Medical Humanities of Infectious Diseases: Methods and Application		
Key Words	infectious disease, medical humanities, influenza, malaria, history, literature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roject Leader	LEE, Ilhak
Project Period	2013. 7 . 8 - 2013 . 11 . 7		
<p>I. Title: Medical Humanities of Infectious Disease: Methods and Application</p> <p>II. Go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public, the communication between public health authority and public by, ○analyzing and understanding how medical humanities, such as history, literature and fine arts, reflect the experiences of infectious diseases, especially influenza and malaria, and ○establishing the resources of humanistic communicating materials. <p>III. Metho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research is as follo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erature review, collecting and classifying materials - holding a colloquium - developing communication materials and its applications and - public lecture <p>IV. Resul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story of Malaria in Korea ○ Analysis of medical humanistic materials related to malaria ○ Analysis of medical humanistic materials related to influenza ○ Analysis of mass media reports on influenza ○ Proposal for research methods for converging medical humanities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p>V. Future Appl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ding footstep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by providing basic materials and database 			

학술연구용역과제 연구결과

제1장 연구개발목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질병관리측면에서 정부- 사회 대중 사이 정보 소통을 위한 방안 개발 필요

- 감염병 관리에서 있어서 시민의 관심이 커지는 동시에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소통 방안 개선이 필요함

- 감염병 관리에 있어 소통을 통한 시민의 참여가 더욱 중요성해지고 있음
 - 해외 여행 증가, 기후 변화 등 환경이 변화에 동반되는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감염병 관리의 관리대상에서 적극적인 조력자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병에 걸리고’, ‘예방주사 맞’는 소극적, 수동적 입장에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개인위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하도록 해야 함
 - 특히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과 같은 경험하지 못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건당국의 기민한 대처만큼이나 시민 사회의 신뢰와 협력,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 사회와의 의사소통 경로 및 방식을 사전에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중의 감염병에 관한 관심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 필요
 - 구체적으로 국민의 의학 및 질병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국민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적이고 참신한 보건 홍보 전략이 요구됨
 -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 정부가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질병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정보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보 수용의 문제: 즉 정부가 질병 관련 홍보자료를 국민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학적 전문지식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환자들의 의료문화나 사고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함

- ▷ 질병 및 의료에 대한 대중의 일상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질병에 대한 대응능력도 미흡한 실정임. 다양한 경로로 보건의료에 관련된 지식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식은 건강에 대한 행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 대중들은 의학 및 질병과 관련된 지식을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여기거나, 구체적인 질병 관련 지식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과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 즉, 의학 및 질병에 대한 대중적 편견과 무관심의 결과로 인해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평소 질병을 낮선 것으로 보거나 타인의 일 등으로 보았기 때문에,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개인적 차원·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생김
- 그럼에도 질병관리측면에서 인문학-예술에 관한 연구 부족하였음
 - ▷ 즉 이에 질병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홍보함에 있어 질병에 대한 일상적 관심을 높이고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접근방법으로 질병에 대한 대중의 ‘일상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접근방법이 요청되고 있음

○ 공중보건전문인들과 시민의 의사소통 방안 개발

- 보건당국의 정보제공이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시민 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관점이 배후에 있음
- 역사적으로 질병과 의료에 있어 시민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다수로서 당국의 통제 대상으로 존재하였음
- 주체로서 시민들은 보건당국의 지도를 받는 동시에 그와 별도로 질병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음. 이와 같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업이 요청됨

○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 사회연결망서비스(SNS)나 웹2.0 등 변화된 매스미디어 환경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변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정보의 빠른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가운데 공포나 흥미, 잘못된 정보 등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냄
-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2) 감염병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의 예

○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학제간 연구가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임

- 학제간 연구는 최근 과학과 인문학의 간극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 학제간 연구란 “어떤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학문 분야가 제휴해서 참여하는 연구”임
 - ▷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생의학적 관점과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이전에 논의 된 바 없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며,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모색하게 됨
 - ▷ 지식의 세 가지 기능은 해석-이해-설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각각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기능으로 연결할 수 있음. 즉 자연과학의 기능이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예측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라면 사회과학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기술하는 것이고 어떤 현상이 개인과 집단에게 갖는 의미를 그려내는 해석은 인문학의 오래된 기능이었음
-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생의학적 관점과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이전에 논의 된 바 없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며,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모색하게 됨
 - ▷ 질병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공중보건전문인은 시민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감염병에 대한 전인적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음

○ 인문학, 예술과 보건의료의 연관성

- 인간의 질병과 고통은 인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음. 질병과 고통은 보편적인 경험으로 일상적 경험, 또는 죽음에 이르는 필연적 과정임. 이러한 이해는 종교, 철학으로 이어졌음
- 자연과학 역시 철학의 분과로 발전했음을 고려한다면 보건의료의 발전은 인문학적 관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인문학적 인식과 문제의식은 질병관리 측면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주제

- 질병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시각차
 - ▷ 인문사회과학이 질병에 관하여 가장 먼저 주목한 사안은 질병에 대한 시각차임
 - ▷ 시민들과 공중보건전문가들이 이해하는 질병의 의미는 서로 다름. 전문가들에게 질환(disease)이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몸속의 변화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환자에게는 질병(illness)으로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개인적·사회적 사건임
 - ▷ 전문가적인 설명은 환자가 인식한 질병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작용함. 즉 전문가적인 설명은 이차적이며, 선택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침. 따라서 질병에 대한 지식이 건강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질병에 대한 시민의 시각
 - ▷ 그간 인문학적 성찰의 주된 대상은 사회적으로 배척의 대상이었던 정신질환, HIV/AIDS와 같은 다른 질병과 구별되는 것들이었음
 - ▷ 이들 질환은 “시대, 사회적 병리가 신체적 병증으로 전치된 것”으로 그려졌음(이재선). 동시에 이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오명(낙인, stigma)이 연구자의 주목을 받았음
 - ▷ 국내 소개된 가장 대표적인 비평이론은 수전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임. 손택의 저서는 편견의 대상이 되었던 결핵, 암, HIV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폭로하는 접근을 취함

○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학제간 연구의 성과와 한계

- 감염병과 인문학의 학제간 연구는 과학적 합리성, 인문학적 통찰력과 상상력, 예술적 창의성을 융합시키는 시도임. 이러한 시도는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 보건학적 접근의 한계: 질병과 관련된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포함한 사회적 경험은 종교학, 철학,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연구주제로 다양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보건의료의 대상으로서 질병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인문학적 접근의 한계: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질병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는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개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산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종합되지 않아 학문별로 흩어져 있어 일반대중, 보건의료인, 인문학 연구자들이 접근하거나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 자료로 기능하지 못하였음

(3) 감염병의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들

○ 이러한 연구는 시민들과 보건의료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님

- 시민: 감염병에 대한 일상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편견, 무관심과 이에 따른 피해 및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 감염병이 가진 사회적, 인문학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적인 접근과 전인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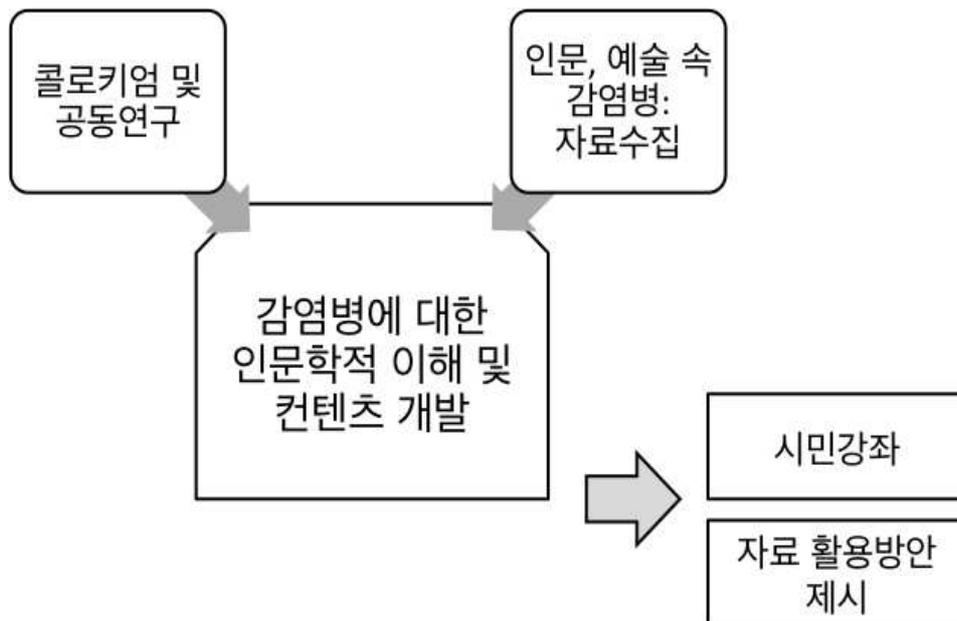
(4) 인문학적 성찰을 포함하는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확인하고 연구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하며, 이러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동시에 활용에 용이한 자료원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최근 새로이 대두되는 감염병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의 마련
- 문학, 역사, 철학 및 예술 속에 나타난 감염병, 특히 말라리아와 같이 곤충을 매개체로 하여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분석과 자료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함
-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함
- 질병의 이해를 위한 인문학적 시도를 통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감염병에 대한 지식, 정보를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3. 연구수행체계



<그림 1> 연구수행체계

-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일학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고 보건의료 및 인문학계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연구진으로 구성된 콜로키엄에서 연구를 수행함

○ 연구 과정에서 다음의 접근 방법을 활용함

- 문헌 고찰과 자료수집과 분류
- 콜로키엄 개최
- 콘텐츠 개발 및 자료 활용 방안 제시
- 시민강좌

4. 연구활용방안

○ 감염병에 관련된 인문학적 정보 정보원 개발 : 웹 콘텐츠 개발

○ 국민 대상 정보제공

-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에 활용함

○ 시민 강좌의 자료로 활용

- 사회적 이목과 관심을 끄는 감염병에 관한 대면 교육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강좌 대상에 맞추어진 과정을 통하여 흥미와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음

○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 성찰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관련 보건의료인 및 공중보건의 등
-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공중보건 관련 대학생

○ 언론 보도 자료 등의 개발과정에서 참조할 자료 제시

- 언론이 사회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언론 보도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이해를 돕는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참고할 자료를 개발, 활용할 수 있음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연구 동향

1. 감염병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의 예

- 그간 인문학적 성찰의 주된 대상은 사회적으로 배척의 대상이었던 정신질환, HIV/AIDS와 같은 질환이었음. 이들 질환은 “시대, 사회적 병리가 신체적 병증으로 전치된 것”으로 그려짐. (이재선). 동시에 이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오명(낙인, stigma)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짐. 국내 소개된 가장 대표적인 비평이론은 수전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임. 손택의 저서는 편견의 대상이 되었던 결핵, 암, HIV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폭로하는 접근을 취함
- 이러한 문학적 접근은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출판하고 있는 학술지인 『Literature and Medicine』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내용을 다루었거나 관련성 있는 논문을 소개하는 학술지로 기능하고 있음
- 다양한 질병이 미술에 나타나는 양상이 국내 저술가의 저술활동을 통해 소개되고 있음. 서울의대 한성구의 『그림 속의 의학』이나 고려의대 문국진의 『명화로 보는 인간의 고통』 등은 미술 작품 속에 담겨진 의학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소개함
- 한편 현대 사회에서 감염병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강미디어(health media)이며 인하대 이훈재는 HIV/AIDS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담긴 미디어 보도를 연구하고 이의 극복을 요청하고 있음
- 이들 사례는 인문학적 성찰과 자연과학적 합리성이 조화롭게 어울린 경우라고 할 수 있음. 학제간 연구는 이러한 조화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확대하려는 시도임.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제휴하여 참여함으로써 감염병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의학과 문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음악, 미술 등 관련분야들의 전문가들이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평가

- 질병의 서사화와 감염병에 대한 태도의 변화
 - 질병의 서사화 등 질병경험의 인문화는 의학적 이해에서 상실된 환자와 그 가족의 경험을 일종의 ‘느낌’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도와줌
- 인문학적 성찰과 감염병의 사회적, 윤리적 측면 인식
 - 인문학적 성찰은 환자를 이해하고 질병에 대응하는데 기여함
 - 특히 질병으로 인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이들의 인간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적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

제2절 국외 연구 동향

1. 인문학에 대한 외국의 데이터 베이스

- 인문학과 보건의료의 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수의 웹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고 있음
- 다음의 예가 있음
 - 미국 뉴욕대학의 문학, 예술과 의학 데이터베이스(the Literature, Arts & Medicine Database)
 - 미국 메모리얼 대학의 인문학, 예술과 의학 데이터베이스(The Humanities, Arts and Medicine Database)
 - 미국의학박물관의 의학역사 이미지 데이터베이스(Images from the History of Medicine, IHM, NIH NLM)
 - 영국 웰컴 박물관 (Wellcome Library)
 - 생명윤리자료 데이터베이스(Bioethics Resources on the Web, NIH)

- 공중보건과 사회정의
 - 뉴욕대학의 THATCamp NY (THATCampNY2012)
- 국내에서는 아직 비근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임. 국내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이 있음 (정명교, 2012)
- 구성
 - ▷ 문학작품: 소설, 수필, 시, 평론
 - ▷ 대중매체: 영화, 드라마, 신문기사 및 뉴스
 - ▷ 예술작품: 미술, 음악, 포스터 등
 - 검색
 - ▷ 제목검색:
 - ▷ 작가 검색
 - ▷ 키워드 검색
 - 제공정보
 - ▷ 제목, 매체, 저자, 시기, 주제, 줄거리, 논평 및 관련 의학문제, 키워드

2. 감염병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예: 말라리아와 인간사회변천

- 말라리아는 인간 사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예임
- 2005.2.22. 유엔 환경프로그램은 극심한 환경변화로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거나 이전에 사라졌던 질병이 새로이 출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함
- 이러한 환경변화와 질병의 등장의 관련성은 세계보건기구의 밀레니엄개발계획의 하나인 말라리아 극복에 함의하는 바가 큼
- 말라리아가 인체에 감염되는 복잡한 경로는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의 간섭이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드러냄
- 경작을 위한 삼림 개발은 모기의 산란지 교란을 가져오고 결국 모기의 주된 숙주가 조류에서 인간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그 결과는

말라리아가 인간의 감염병이 된 것임

- 한편 인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진화하였는데 겸상적혈구빈혈증은 치명적 일수 있는 말라리아에 대한 불완전한 대책으로 인간에게 존재하는 형질임
- 말라리아의 확산 경로는 또한 서구 열강의 침탈과정을 반영하는 연구이 기도 함

○ 말라리아 역학은 질병의 확산과 피해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드러냄

- 개발도상국에서 말라리아는 여전히 주요 사망원인으로 존재함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 시도는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접근으로 실패하곤 했음
- 한편 최근의 국제적 공동 노력은 인간의 협력이 질병의 경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함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인문학 속에 나타난 감염병 등의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말라리아 등 곤충매개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친숙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및 활용함
 - 역사 속 인간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감염병에 관한 역사를 개관
 - 이들 감염병이 예술 작품과 대중문화 작품들, 언론보도에서 그려지는 양상을 추적

- 이를 위해
 - 감염병을 소재로 한 국내외 인문, 예술 분야의 자료수집
 - 감염병을 인문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정보 확보 및 전문가 콜로키엄 개최

- 이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
 - 감염병의 사회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역사적 분석
 - 감염병에 관한 문학적 이해와 함의의 제시
 - 감염병에 관한 보도 내용 등에 관한 분석

- 한편 성과는
 - 시민대상 강연회 개최를 통해 평가를 받고 추후 연구 방안 등을 모색

2. 연구방법

- 『감염병의 인문학』 연구 방법론 고찰

- 『감염병의 인문학』을 위한 의학-인문학 학제간 연구
 - 감염병의 인문학을 위한 연구는 인문학자와 의과학자의 학제간 연구로 수행

됨. 인문학자와 의료인은 감염병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해석-이해-설명’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개발하고, 사회 대중이 감염병과 감염병 대책을 이해하는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임. 이를 위해 다음 작업을 수행함

○ 사회학적 이해

- 말라리아와 독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이들 질병의 특성을 살펴보고 오늘날 감염병 관리 대책에 가지는 함의점을 도출
- 최근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으로서 독감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분석

○ 문학을 통한 해석

- 말라리아와 독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 질병과 질병의 경험을 묘사한 국내·외 문학작품을 발굴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보편적 경험을 수집

○ 역사적 이해

-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과 감염병의 관계 및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 시도

○ 의학적 활용 방안 개발

-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인과 사회 일반과 소통을 시도함
- 감염병이 무관심 또는 터부의 대상이 아니라 담론을 통한 평가와 참여의 대상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함
- 사회적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함

○ 의사소통

-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심사, 문제의식 및 새로이 발견한 사안을 공유하고 수정, 발전시키는 장으로 콜로키엄을 개최함 (콜로키엄은 특별히 전문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서로의 내용을 평가하고 토의하는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럼이나 심포지엄과는 구분됨)

제4장 인문학적 자료를 통한 감염병의 양상

제1절 말라리아에 대한 문학작품 속의 인식변화(근대문학 중심)

1. 말라리아에 대한 대중 인식

- 우리말로 학질, 초학, 하루거리, 도둑놈 병 등의 이름으로 불린 말라리아는 “개항 이전이나 이후의 조선에서 사회적으로 지극히 만연한 질병”(여인석, 2011)이었음. 옛 사람들이 아주 질색인 일을 두고 ‘학을 떤다’, “아주 학질이 었다”(김유정, 『만무방』, 1935)라고 표현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말라리아는 한국인의 삶에 밀착한 질병이었음¹⁾
- 예술은 삶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일상적인 질병은 문학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빈번히 형상화되었음. 이 보고서에서는 ‘학질’이 핵심 소재로 등장하는 한국 시와 단편 소설 한 편씩을 중심으로, 이들 문학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질병 및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살펴봄

2. 말라리아와 민간의 인식관계의 양상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쓰게 되면 아버지는 나를 업어다 산과 바다와 들녘과 마을로 통하는 외진 내 갈림길에 놓인 널찍한 바위 위에다 엎어 버려두었습니다. 빨가벗은 내 등때기에다간 복숭아 푸른 잎을 밥풀로 짓이겨 붙여놓고, “꼼짝 말고 가만히 었드려요. 움직이다가 복사잎이 떨어지는 때는 너는 영 낮지 못하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 눈을 깜짝깜짝 몇 천 번쯤 깜빡거릴 동안쯤 나는 그 뜨겁고도 오슬오슬 추운 바위와 하늘 사이에 다붙어 었드려서 위아랫니를 이어 맞부딪치며 들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래, 그게 뜸할 때쯤 되어 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서 훌이불에 나를 들들 말아 업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스란히 성하게 산 아이가 되었습니다.

서정주,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쓰게 되면」, 『질마재 신화』

1) “말라리아, 즉 학질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서 만연한 질병이었다. 그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유행성 전염병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며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걸리는 풍토성 질병이었다. 학질은 일상적인 표현 속에 자리 잡을 정도로 친숙하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상적인 질병이었다.”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의사학』, 제20권 제1호(통권 제38호), 대한의사학회, 2011, pp77-78.

○ 미당 서정주徐廷柱의 『질마재 신화』(1975)

- 어릴 적 학질에 걸려 앓았던 경험을 시로 형상화함. ‘질마재’는 시인이 타고 자란 곳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마을 선운리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시는 시인이 어릴 적 고창군의 민중들이 학질이라는 질병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시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업고 외떨어진 갈림길으로 나간 뒤 아이의 등에 밥풀로 복숭아 잎을 붙이고 잎이 떨어지면 병이 낫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근대적 의학 지식을 갖춘 현대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물론 얼토당토않은 미신에 불과하지만, 어린 서정주의 가족처럼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한국의 민중들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한 민간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유추 가능함
- 실제로 식민지시기 학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학질 환자를 물에 빠트리면 병이 낫는다거나 학질 환자 위로 소가 걸어가게 하면 병이 낫는다거나 하는 얼토당토않은 미신을 믿고 그대로 시행했다가 소중한 인명을 잃은 사건사고를 다룬 경우가 많음
- 상대적으로 훌륭한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선조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비웃기 이전에, 질병에 걸렸지만 속수무책인 사람들의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는 역사속 기록으로서 옛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음. 미당의 시는 병에 걸려 고생하는 어린 아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무지하고 가난한 아버지의 애틍는 부정(父情)을 보여주는 일화로 볼 수 있음

○ 평론가 유종호의 서정주 시 인용 사례와 매천야록의 인용

- 한편 1935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출생한 평론가 유종호는 서정주의 시를 인용하면서, 학질의 또 다른 우리말 명칭들을 언급한다. 학질은 초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흔히 하루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음.²⁾ 경북이나 충북에서 학질을 두고 ‘도둑놈 병’이나 ‘도둑놈 걸렸다’라고 표현했음
- 유종호는 학질의 이름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 그 질병이 흔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질병과 ‘시와 말의 사회사’(이는 유종호

2) 유종호, 『시와 말의 사회사』, 서정시학, 2009, pp129-130.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임. 옛 사람들이 말라리아의 수많은 우리말 이름에 친숙했던 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흔히 학질이 곧 말라리아라는 사실도 잘 모른다는 사실은 언어(그리고 언어 예술인 문학이)가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예임

- 한편 한국인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과학적인 방법으로 말라리아에 대처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임. 염산 키니네에 ‘금계랍金鷄蠟’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치료예방법이 한국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반증임.
- 여인석에 따르면, 적어도 개항기부터 의사 알렌의 제증원에서 키니네를 말라리아의 치료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제증원에서는 초기부터 키니네를 치료제로 사용하였다. (중략) 그러다가 금계랍이 학질에 특효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며 누구나 가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금계랍에 대한 약광고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96년 11월 7일 『독립신문』임. (중략) 몇 년 후인 1901년부터는 제증원에서도 미국에서 새로 나온 금계랍과 회충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황성신문』에 실리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말라리아의 특효약인 금계랍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만연한 말라리아에 의한 고통에서 놓여나게 되었다.”³⁾
- 여인석은 『매천야록』(1894년 이전)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의학의 혜택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음

이들에 한 번 앓는 학질을 속칭 당학(唐瘡)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 병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10명 중 4-5명은 사망할 뿐 아니라 힘이 강한 소장년층도 수 년 동안 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계랍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후로, 학질을 앓는 사람이 1전의 양만 먹으면 즉시 낫지 앓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우두범이 나와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고 금계랍이 나와 노인들이 수를 누린다”는 유행가가 나왔다.

『매천야록』(1894년 이전)

- 이러한 『매천야록』의 기록은 1894년 이전에 쓰인 것이지만, 서정주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동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의학적 지식의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라는 가설이 가능함

3)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의사학』, 제20권 제1호(통권 제38호), 대한의사학회, 2011, pp56-57.

- 다시 유종호를 인용해 보면,

학질은 말라리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초학이라고도 했다. 그 밖에 하루거리로 발열하고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거리’라고 흔히 말했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에는 ‘도독늬 병’이란 항목이 있고 학질을 가리키는 경북 방언이라 적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자란 충북 괴산이나 충주에서도 흔히 ‘도독늬’ 걸렸다고 했다. 이렇게 지칭어가 많은 것은 흔한 질병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염산 키니네를 가리키는 금계랍의 쓴 맛과 함께 하루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동안 사라졌다가 요즘 휴전선 근처에서 다시 유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미당이 적고 있는 주술적 민간요법이 과연 학질 치료에 얼마만큼 효과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질병도 바닥을 치고 나면 회복하는 수가 많으니까 그런 바닥치기 효과를 노린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또 일종의 위약(placebo)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건 수상한 민간요법이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수두룩했다. 불거리를 앓을 때 목에다 잉크를 바른다고 가래뿔 난데 특정 글자를 적어놓는다든가 하는 식의 주술적 요법이 많았다.

유종호, 『시와 말의 사회사』

- 이러한 ‘주술적 민간요법’을 단순히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당대의 한국인들이 인간의 신체와 질병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수한 이해와 지식의 배경에는 어떤 특수한 문화적·사회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예시임. 예를 들어 듀든(Duden, 1991)은 18세기 유럽에서 활동했던 요한 슈토르크라라는 의사의 ‘임상례’ 기록을 검토하면서, ‘유액(flux)’이라는 일종의 비과학적인 의학 지식이 당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한 바 있음. 셔틀워드(Shuttleworth, 1990) 또한 19세기 의사들이 여성의 생리불순을 여성의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과 연관 지었던 현상을 연구했음
- 생리불순 이론이 여성의 참정권 운동에 반대하는 정치적 기획과 맞닿아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의학적 지식들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조건 지어져 있었다는 것임. “의학지식은 질환과 질병을 단순히 기술하거나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고, 현존하는 사회 구조와 사회적 가치를 재생,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⁴⁾
- 미당이 그리는 질마재 사람들의 민간요법을 두고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함. 말라리아를 치료하려는 주술적 요법은 단순한 무지와 몽매에서 기인한 것인 동시에,

4) 사라 네틀턴, 조효제 옮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 1997, p55

보건의료시스템이 척박했던 당시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리고 식민지의 가난한 이들은 질병 습격 앞에서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기 보다는, 등허리에 복숭아 잎이라도 붙여 보는 길을 택했던 것임

과연 자기가 의학도로서의 철저한 자각이 있다면 마땅히 선구자적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화의 수준이 높고 문명의 혜택이 많은 도시보다는 도리혀 농산어촌의 무의촌에 할 일이 많지 않느냐. 진정한 의료보국은 이런 곳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활정도가 얕은 그들은 위생사상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상약을 무지하게 써서 귀중한 생명을 뺏기고 병신이 되지 않는가. 또한 생활이 빈약한 만큼 그들은 비싼 약을 쓸 수 없거니와 의료 시설도 없다. ……그러므로 궁벽한 시골이야말로 자기와 같은 의학도가 필요하다.
이기영, 『처녀지』 (1944)

3. 말라리아균과 근대의학

- 추리소설 장르와 말라리아를 통해 살펴본 식민지 조선

○ 학질과 근대의학의 만남

- 학질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등장함. 주목할 것은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몇 안 되는(약 스무 편 가량으로 추정되는) 추리 소설 가운데 한 편인 박경호의 「의문의 말라리아균」에 학질이 중심 소재로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소설의 중심인물은 다름 아닌 길동엽이라는 이름의 의사라는 점이 특색임
- 1939년 『농업조선』이라는 잡지에 연재된 「의문의 말라리아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 사회가 식민 지배국인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전시 체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 이 작품에서 식민지 의사와 경찰들은, 러시아나 중국의 스파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성(서울)에 말라리아균을 퍼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함. “즉 어떤 악한 혹은 스파이가 이 경성에 잠입해 가지고 자기가 해한 인물에게 균을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말라리아가 일종의 생화학 무기로 등장하는 셈인데, 작품이 1939년에 쓰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학적 상상력은 무척 흥미롭게 나타남

○ 말라리아에 대한 과학적 접근

- 이 작품은 시대를 앞선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말

라리아에 대하여 나름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함. 미당 서정주가 1915년생이고 박경호가 1908년생으로 오히려 박경호가 손위이지만, 박경호의 작품에서 말라리아는 미신과 풍속에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형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일하는 과학적인 현대 세계에 속하는 질병으로 표상됨. “아실 테지만은 말라리아는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맨 처음에는 말라리아 모기란 놈이 그 균을 매개합니다. 이렇게 체내에 들어온 말라리아균은 소위 말라리아 플러스 모디움이 형성되어 놈이 배양되어 가지고 천천히 적혈구를 잡아먹는 데 이걸 소위 삼일열 말라리아라고 하여 우리 조선도 흔한 것인데 보통 금계랍이나 수혈 같은 방법으로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라는 질병의 성격과 전염 경로, 치료법을 논하는 젊은 의사 길동엽의 차분한 설명에는 “복숭아 푸른 잎을 밥풀로 짓이겨 붙여 놓”는 주술적 민간요법의 세계가 감히 받을 디딜 틈이 없음. 물론 이러한 차이에는, 전라도 산골의 질마재와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의 차이라는 지리학적 간극이 크게 작용했을 것임. 위에 인용된 이기영의 『처녀지』(1944)에 잘 드러나 있듯이, 당대에도 근대적 의료보건 시설은 일부 도시 지역에만 소수 집중해 있음

- 한편 이러한 과학적인 의료 전문 지식 덕분에 근대적인 역학疫學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추리소설이라는 근대적 문학 장르에 속하는 이 작품의 서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박경호의 작품에서 의사는 경성의 조선인 환자들이 걸린 말라리아가 “우리 일본뿐 아니라 온대지방에서는 거의 없는 열대 말라리아”라는 점에 주목함. “그렇지만 이제 보신 그 세 환자와 또 이 병실 二七五호에 있는 환자는 우리 일본뿐 아니라 온대지방에서는 거의 없는 열대 말라리아라는 것입니다. 두 분을 오십사 한 이유가 이점에 있습니다. 요점만을 말씀하면 이 환자들은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자체의 혈액 속에서 생겨 가지고 저 모양이 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조선에는 열대 말라리아균을 매개하는 모기가 없을뿐더러 조선의 의학사상에 그런 데가 도무지 없습니다.” 따라서 길동엽 의사의 과학적 추리에 따르면 이 특정한 말라리아 병균은 ‘외부’에서 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됨

“조선뿐 아니라 어떤 온대지방에든지 대번에 매일 열로 시작하는 말라리아는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어느 사람의 환자를 받은 후 내지는 물론 말라리아 병이 그중 많은 아프리카 지방과 동 푸도시 지방에까지 정보로 알아보았으나 이렇다하는 회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라리아균의 자가 발생이란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인걸요.”

“허허. 그러나 어디서 온 데가 있을 게 아니겠소. 그 병균이 이렇게 이 환자들의 혈액 속에 들어갔느냐 말이요. 어떤 힌트든지 붙잡아서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할지를 알아야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 아니겠소.”

곽 형사는 다소 흥분된 음성으로 말한다. 길 의사는 좀 난처하다는 듯이 켈런 꾀지를 내던지며, “그러기에 말씀이지요. 그 점을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우리 병원 실험실에서 다른 데서와 같이도 실험관 속에 각종의 병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환자들이 우리 실험실에서 전염되었을 리는 더구나 없는 일이지요.”

(중략)

“저로서는 다만 한 가지 추측밖에는 딱 도리가 없습니다. 즉 어떤 악한 혹은 스파이가 이 경성에 잠입해 가지고 자기가 해한 인물에게 균을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는 두 형사는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

박경호, 「의문의 말라리아균」(1939)

- 이러한 문학적 설정은 당대에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함. 작중 인물의 말대로 열대 말라리아는 온대 말라리아와 다르지만, 실제로 당대 식민지 조선에 열대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병한 희귀한 사례들이 있었음

희귀하기는 하지만 열대열 말라리아에 대한 증례 보고도 있다. 전염병 전문병원인 경성부립 순화병원에 장티푸스로 입원한 환자 3명에서 열대열 말라리아가 발병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중략) 이와 같은 열대열 말라리아 증례보고는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열대지방에 만연하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왜 온대지방인 조선에서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그에 대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자연적으로 열대열 말라리아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자신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를 보고했던 전중휘는 보고된 환자들이 모두 마약 중독 환자였다는 점을 들어 자연상태의 감염이 아니라 주사기 공유에서 비롯되는 혈액을 통한 직접적인 감염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전중휘, 1965: 71)⁵⁾

- 이 추리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길동엽이 의사라는 점은 우연이 아님. 이는 추리소설이 대중성을 얻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회자되는 설록 홈즈 시리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본래 에든버러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의사였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음. 홈즈의 조수인 작중인물 왓슨 박사 또한 의사인 것임. 도일은 『주홍색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바 있음

5)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의사학』, 제20권 제1호(통권 제38호), 대한의사학회, 2011, p76

○ 코난 도일 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과학적 접근

다른 학문들도 다 그렇겠지만, 연역의 과학과 분석이야말로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연구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네.

코난 도일, 『주홍색 연구』(1887)

- 즉 의사인 도일이 탐정 설록 홈즈의 입을 빌려 논하는 추리의 기본이란, ‘연역의 과학과 분석’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완벽하고 분석적인 사고”(에르네스트 만델), 의학과 같은 근대적 과학 지식과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태도의 결합이 추리소설의 근간인 것임. 근대 추리소설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에르네스트 만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냄. “코난 도일이 에든버러 대학의 존 벨 교수-질병을 진단할 때에 뛰어난 연역적 방법론을 사용했던 이 교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각자의 눈, 귀, 손, 두뇌, 직관, 특히 무엇보다도 모든 연역 능력을 사용하라고 줄기차게 말해왔다-밑에서 의학을 공부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추리소설이 승리한 부르주아 사회, 기술, 자연과학, 그리고 물신화된 부르주아적 인간관계와 맺고 있는 연관성을 여실히 볼 수 있다. 공쿠르 형제는 이 점을 『주르날』(1856년 7월 16일자)에서 잘 정리해놓았다. “(추리소설의 시조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에드거 앨런 포는 사물들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문학으로 우리를 인도했다.”⁶⁾
- 공쿠르 형제식으로 표현한다면, 식민지 조선의 박경호 또한 서투른 방식으로나마 “사물들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문학”으로 독자를 인도하려고 시도했다고 적을 수 있을 것임. 실제로 식민지 조선에서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 발생 사건을 보고한 당사자인 의사 전중휘는 이들 환자들이 모두 마약 중독자로서 주사기를 공유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박경호의 ‘과학적’ 추리 소설에서도 경성 열대 말라리아 환자 발생의 미스터리는 결국 스파이의 소행이 아닌 마약중독자들의 주사기 공유로 밝혀짐. 박경호의 작품에서 이 ‘사물’이란 곧 말라리아 병균과 그것을 둘러싼 근대적 역학인 바, 근대 추리소설이라는 통속문학(Trivialliteratur) 장르와, 당대 조선에 흔하던 질병인 말라리아라

6) 에르네스트 만델, 이동연 옮김,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p47

는 소재가 얽혀 탄생한 이 작품의 서사는 일독의 가치가 있음

- 한편 이 작품은 식민지 조선에서 의료인(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어떠했는지, 혹은 근대적 지식의 분화와 전문적 직업인의 등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기도 함. 일제의 경찰인 박 주임이 민간인인 의사 길동엽에게 말라리아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물으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임

나는 의학에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말라리아 병에 대하여도 도무지 모르지요. 그러나 노형은 의사이니까 짐작이 가실 게 아닙니까. 가령 어떤 경로로 이 환자들이 그 균을 체내에 받았는지-어쨌든 말라리아균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박경호, 「의문의 말라리아균」 (1939)

○ 국가적 문제로서의 질병

- 의료인에 대한 이토록 깎듯한 존중이 가능한 것은, 이 문학 작품이 그리는 바 말라리아 환자 발생 문제가 곧 “칠십만 부민의 사활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함. 즉 의사는 환자의 건강이나 목숨을 구하는 일개 전문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전문 지식을 익힌 존재인 것임. “그 점에 대하여는 이 병원 당국자는 고사하고 또 위생과에서도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험한 수수께끼지요. 만일 이것을 시작할 때에 방어하지 않으면 큰 변괴로 확대될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의료 전문가의 과학적 지식의 도움을 빌려 이 ‘의문의 말라리아균’의 정체를 밝혀내지 않으면, 다름 아닌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

중대한 환자라기보다 지금은 중대한 국가적 문제로 화하려는가 보오. 예-오늘 아침에 총독부 위생과와 헌병대를 방문하였는데 당국자들은 대부분 시국적 각도로 관찰하여 적국 스파이의 계획적 행위로 단정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경찰부와 연락을 취할 터이지요.

박경호, 「의문의 말라리아균」 (1939)

- 이렇듯 위 작품에서 말라리아의 통제 문제는 일종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표상되는데, 다소 차원은 다르지만 이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 정부의 말라리아 통제 역사의 실상과 맞닿아 있는 것임. 일본 제국은 본래 조선 주둔 일본부대의 말라리아 감염에 대한 관리에서 출발하여 조선의 말라리아를 통제하기 시작했던 것임

- 이처럼 조선의 말라리아에 대한 관심이 조선주둔 일본군대의 감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말라리아가 식민지 의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치명적인 열대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식민지 의학의 대표적인 대상 질환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조선의 말라리아가 식민지 의학의 그러한 전형성을 띠기는 어려운 점은 있었음. 그렇지만 주둔군인에 대한 관리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주민에 대한 관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말라리아가 조선에서도 식민지 의학의 대상으로서 특징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⁷⁾
- 한편 이러한 근대 의료 전문직의 힘과 지위 및 국가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라 네틀턴(Sarah Nettleton)은 19세기 서구의 의료인들이 ‘대중과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 및 의학적 지식의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설득했음을 지적함. 미셸 푸코 식으로 말하자면, 근대적 생명관리정치/통치 체계의 확립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분명한 사회적 역할을 찾아 확립한 것임. 혹은 거꾸로 일본 정부가, 말라리아를 비롯 식민지 조선의 질병을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식민지 의료인들의 분명한 활용 가치를 찾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음. 물론 그것은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데, 일본은 식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식민지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증진하는 ‘생명관리정치’(미셸 푸코)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임

생의학적 혁신과 의료 전문직의 확립은 동시에 일어났으며, 전통적인 역사 기술에 따르면 ‘양자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과학과 그 능력 덕분에 의료전문적인 인정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shortt, 1983: 54).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의학의 내용이 아니라 의학이 이용되는 방식이라고 쇼트는 주장한다. 의사는 자신을 과학의 본보기인양 내세웠고 이 결과 전문직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과학적이라는 의학이 치료법을 많이 개발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담보로 시대와 장소와 계급을 초월하는 만족스러운 설명은 제시할 수 있었다. 출산에 관한 의학의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이같은 과학적 설명이 전통적인 사회가치를 확인시켜 주었을 때 의학의 대중적 인기는 보장되었다. 생의학적 혁신이 의료의 전문직화를 촉진시킨 것은 바로 이처럼 널리 퍼져있는 자연과학 지식의 맥락 속에서였다.’(shortt, 1983: 68) 따라서 과학은 의료전문직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밖에 없다고 대중과 국가를 설득시키기 위해 동원한 방편이었다. 의료전문직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의과학 기능 자체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공인을 얻기 위해 의료인들이 채택했던 사회·정치적 전략의 효과 덕분이었다.⁸⁾

7)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의사학』, 제20권 제1호(통권 제38호), 대한의사학회, 2011, p66

- 한편 일제의 의료정책은 일종의 ‘의사경찰(medical police)’⁹⁾ 개념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신동원(1986) 및 조진기(2010)의 논의를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임.¹⁰⁾ “일제의 보건 의료는 내무성 위생국과 경무청에서 함께 담당했는데 실제 운영인 경무청이 중심이 되었다. 경찰에 의한 위생업무는 서양에서 중상주의와 절대주의 시대의 ‘국가는 백성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며 최선을 찾아내어야 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의사경찰(medical police)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폴레옹 집정의 종말과 함께 사라졌던 제도임. 그러나 이 시기 의사경찰제도의 형태가 일본의 의하여 조선에 강제됨.¹¹⁾ 특히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일제의 의료 및 인구정책은 개인의 건강에 초점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임. 의사경찰/의사내치內治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는 다름 아닌 의사와 경찰이 협동하여 국민을 의문의 말라리아 발병 사건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의문의 말라리아균」의 서사를 분석하는 일에 도움을 줌. 국민을 위협하는 ‘외부’의 질병으로서의 말라리아, 생화학 무기로서의 말라리아 및 그에 대처하는 경찰과 의사의 협력이라는 문학적 상상력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것임

8) 사라 네틀턴, 조효제 옮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 1997, p61. 강조는 이 글의 것

9) 혹은 번역가 집단 오르트망의 미셸 푸코 번역을 참조하자면 ‘의사 내치’ (police=내치=內治)

10)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0, p162

11)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6, p58. 조진기,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제2절 말라리아에 대한 언론자료의 분석

1. 내용과 형식적 측면의 분석

<표 1> 말라리아의 형식적 측면 분석

구분	내용	건수
에피소드식 프레임 (episodic frame)	말라리아 관련 사건사고 이야기,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	105
	-급계랍장사하는 모씨가 강도만난 이야기 -미신이 낳은 참사 -KBS 홍석건PD/태국서 취재중 숨져	
주제진술식 프레임 (thematic frame)	말라리아 발생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 정부 대응 태도에 대한 기사, 공공이슈 등	43
	-과리, 모기 번식막도록 -지구 온난화 계속될 땐 연8천만 말라리아 위험 -말라리아 비상-예방 어떻게	

<표 2> 말라리아의 내용적 측면 분석

구분	내용	건수
책임귀인 프레임	말라리아의 원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규명 등	13
	-매가 모기 병원충포자를 발견 -봄날씨 달력 앞서간다. 3월 이상고온현상 계속 -방역청소주간 십칠일부터 실시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독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보도자료 등	53
	-키니네 과용으로 어린이 사망 -동남아여행 회사원/말라리아 감염 -병원서 수혈 말라리아 감염 국내 처음	
경제적 결과 프레임	말라리아로 인한 경제적 문제	0
공중의제 프레임	말라리아에 대하여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사안,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는 내용 등	53
	-말라리아백신개발 미국 동물실험선 성공 -말라리아 확산 안될 듯, 국내 토착가능성 희박 -작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 785명 집계 11년만에 최저치	
재난 인식 프레임	국가 및 세계의 말라리아 재난 인식유무와 대처 등	29
	-학질박멸책, 총독부가 조사 -남북한 휴전선 접경 '말라리아 공동방역' -말라리아 박멸운동 WHO 보사부 합동	

<표 3> 말라리아의 연대기적 내용 구분

시기 구분	주요 언론 내용
1930년대 이전	이 시기에는 말라리아(학질)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다. 주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겪은 황당하거나 혼치않은 이야기들이 기사화되었기에 대부분의 보도자료는 ‘에피소드화 프레임’ 범주에 속한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그대로를 가감없이 기록하였으므로 ‘사건중심’ 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흥미롭게도, 두렵게도 만드는, 어찌보면 황당무계할 정도의 말라리아과 관련된 여러가지 에피소드적인 기사는 ‘인간적 흥미’와 관련되어 있다.
1930~1940년대 일제강점기	근대화와 함께 일제강점기 최고점에 접어든 1930~1940년대에는 지금의 정부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조선총독부에서 적극적으로 말라리아 예방에 개입한 시기이다. 주로 군대 내에서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였으므로 군사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신문기사에서는 ‘공중의제 중심프레임’에 속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정보와 모기퇴치방법 등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여전히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인간적 흥미 프레임’ 형식으로 많이 쓰여졌다. (각각 6개씩 동일한 개수로 확인됨)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간 ‘에피소드식 프레임’ 기사가 많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사건중심’ 보도자료를 주로 확인할 수 있다.
1950~1960년대 한국전쟁 직후 국제협력을 통한 말라리아 퇴치운동실시	한국전쟁 이후 WHO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에 개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project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재난인식프레임’ 기사에서 국내 정부의 대응여부 뿐 아니라 국제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말라리아 퇴치프로젝트와 관련한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사건중심’ 기사가 대부분이며 말라리아 환자들의 소소한 사건사고를 기록한 ‘인간적흥미 프레임’ 형태의 기사는 매 시기별로 여전히 많다. 국제적으로 말라리아 퇴치 작업이 이뤄져가는 현황들을 보도한 ‘에피소드식 프레임’의 기사 역시 반 이상을 차지한다.
1970년대~1993년 WHO에 의한 malaria free 선포가 된 이후	WHO에 의해 malaria free가 선언된 후 국내 토착형 말라리아는 사라진 반면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말라리아 케이스들이 간간히 보고되는 시기이다. 그로인해 좀더 엄격하게 말라리아를 범으로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중심’ 보도자료가 많고 해외유입말라리아라는 추상적인 사항을 주로 ‘주제진술식 프레임’ 형식으로 기사화되었다. 또한 ‘공중의제’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별관리 등 국민이 중요시하고 관심있어 하는 사안에 대한 기사를 주로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이후 말라리아 환자의 재출현	1993년 7월 토착형 말라리아 환자가 처음 발견되고 난 후에 한동안 집단적으로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하게되는데 그와 관련한 말라리아 재출현에 대한 발생경위와 피해내역들이 대다수 ‘사건중심’ 보도형태로 기사화되었으며 그 기사들은 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말라리아 발생현황들을 보도하고 있어 ‘에피소드식 프레임’ 성격을 가진다. 말라리아 재출현 관련 사항 및 시대적 발달에 따른 말라리아 예방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국민들이 그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관심있어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 보도자료들은 ‘공중의제 중심프레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말라리아 재출현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가진 자극적인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 1896년 키니네(금계랍)에 대한 광고가 독립신문에 게재되었던 시점부터 최근 2013년까지 말라리아에 대해 보도되었던 신문 및 인터넷 기사 총 154건을 수집하였고 그 중에서 광고 및 만평 등 프레임에 맞추어 구분할 수 없는 종류 6건의 자료를 제외한 148건의 보도자료를 분석함
- 과거에 말라리아가 학질로 불리던 시절에는 치료약인 금계랍(키니네)이 있었으나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학질을 치료하기 위해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리하여 학질을 떼어내기 위한 수많은 미신적 행위가 신문 기사화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에피소드식 프레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속하는 것들임. 이와 같이 약 60년대까지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속하는 보도자료가 많았다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말라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고 정부 및 국민들이 일종의 재난을 극복해야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공중의제 중심 프레임’을 사용한 주요정보 및 건강 관련 시사들이 주를 이루게 됨
 -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자료 분석 중에 말라리아로 인한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기사를 찾지 못했다는 점임

제3절 독감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속의 인식 및 행태 변화

1. 언론보도를 통한 일반시민의 질병정보 접근 양상

○ 1980년대 이후 연구자들은 개인의 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의 언론, 즉 매스미디어(mass media)에 주목함

-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 전략의 대부분은 반듀라(Bandura)가 제창한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오로지 내적 동기에 의해 이끌리거나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님을 주장함.¹²⁾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은 인간은 단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함으로써 대리적 학습을 통해 다양한 상징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특정한 태도 또는 인식을 학습하도록 고안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론보도를 통한 의학적 보도 형태의 주 내용임¹³⁾

○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일간 신문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료, 건강관련 칼럼이나, 기사, 혹은 광고성 기사까지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질병 또는 일반 의학 관련 보도의 증가는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동안 제도적이나 경제적으로 건강 또는 질병관리의 측면에서 피해자로만 인식되었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식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음
- 질병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은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질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2) 박경숙,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 언론학보, 제46호, 2004, pp310-340.

13) 김성재,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재난보도 방향, 방송연구, 2003, pp89-112.

-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01년 연구된 ‘공중보건과 의학보도’¹⁴⁾라는 보고서에서 나타난 결과 중 ‘의학 및 건강보도에 있어서 매체별 신뢰도’를 살펴 보았을 때 전국 성인남녀 500명으로부터 5점 척도의 평가 결과 신문은 3.47점으로 텔레비전에 이어 2위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이는 신문이 질병예방과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주요 정보출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난 2003년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이하 사스)에 관한 보도는 의료에 대한 신문의 언론보도가 매우 중요한 변화를 나타냄. 즉 이전 대부분의 호흡기성 질환(주로 감기 등)에 대한 질병보도는 개인의 건강 염려와 관련한 부분이었다면 사스에 대한 보도는 질병보도를 통해 여행사, 관광대행사 등의 여행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킴. 그리고 또한 2003년 말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이하, 조류독감)에 대한 신문 등의 보도를 통해 전국민을 독감 또는 감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음
- 따라서 질병 특히, 독감 또는 감기에 대한 신문의 보도는 흔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만큼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컸음. 이에 따라 감기 또는 독감이라는 제목과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는 과거 1900년대 근대화 시기부터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시대 별 독감 유행의 역사와 일반 대중의 의식변화

○ 독감의 시작과 그 역사

- 독감이 우리나라에서 ‘무오년독감(戊午年毒感)’이라는 명칭으로 언론보도가 시작된 이래 2013년 현재까지도 환절기와 겨울철이 되면 위생에 대한 언론보도를 하며 감기를 조심하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친숙한 질병임. ‘무오년독감(戊午年毒感)’은 우리가 흔히 1918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스페인독감’을 일컫는 말임. ‘스페인독감’은 1918년 미국

14) 박정의, 공중보건과 의학보도, 한국언론재단, 2001, p120.

시카고 부근을 발생원으로 하여 당해연도 8월 경 영국령의 시에라리온에서 고병원성으로 발전하게 됨.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무려 2,500만 명에서 5,00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740여만 명이 감염되어 14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 사실 ‘스페인독감’스페인이 병원체의 발원지는 아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은 이를 ‘스페인독감’으로 불렀음. 그 이유는 스페인이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시 보도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스페인 언론에서 이 사태를 매우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임. 즉, 전시 국가에서는 더 많은 감염자와 사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보도 통제로 오히려 독감의 유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스페인의 언론은 이 독감의 유행을 깊이 있게 다뤄 ‘스페인독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임

○ 독감유행에 대한 집중 보도

- 이 시대의 독감이나 감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1918년을 기준으로 하여 바이러스(또는 병원균)에 의한 감기 발병에 대한 인식변화가 주요함. 1918년 이전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감기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기온변화에 유의하도록 하는 정도의 신문 논설과 사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1918년 ‘스페인독감’의 유행으로 매일 신보의 1918년 11월 9일자 보도를 살펴보면

감기가 유행하여 북리연구소에서 연구 중 ‘인플루엔자’라는 균이 병의 근원으로 발견됨.
 매일신보, ‘毒感의 病原菌, 북리연구소에서 발견, 인플루엔자’, 1918년 11월 9일

- 이라는 내용의 감기의 원인으로 ‘인플루엔자’ 라는 병원균이 있음을 보도하여 주 원인이라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음. 이 시기를 기점으로 독감의 치료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되고 있었으며 1918년과 가을 무렵부터는 경성(지금의 서울)내의 학교에서 약 100여 명 이상의 결석자가 발생하자 해당학교에 대하여 임시 휴교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가 취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그러나 독감의 유행을 통해 병원균이 주원인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방법 자체에 대한 진전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병원에서조차 중세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 ‘스페인독감’을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음. 한 가지 예로 1919년 2월에 나타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독감에 대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한 결과 일부 환자가 호전된 결과를 보임

매일신보, ‘毒感治療新法, 사람의 피를 주사’, 1919년 2월 9일

- 건강한 사람의 피를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거나 순환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중세기에 유행한 방법을 통해 독감의 치료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명확한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스페인 독감에 대한 유행 공포

- 1918년 이후의 대부분의 감기 또는 독감에 대한 신문보도는 1928년 이전까지 대부분 겨울철 독감의 유행으로 인한 환자의 속출과 그에 따른 겨울철 방한 대책, 마스크를 쓰라는 등의 위생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독감에 대한 치료약이나 치료제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아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거나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감기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약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928년도에는 10여년전 유행했던 ‘스페인독감’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 마치 10년 주기로 독감이 대유행할 수도 있다는 형태의 언론보도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음. 1918년 이후 거의 매년 1~2건 이상의 감기유행 보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928년은 유독 스페인 독감이 다시 유행할지도 모른다는 형태의 논설 및 사실 기사가 유행했음. 1928년 중외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발췌하여 살펴보면,

10년 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이 다시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함

중외일보, ‘접종속출의 악역, 대경성 중중포위’, 1928년 11월

- 라는 내용의 지성내과 원장 정석태의 논설 기사를 시작으로 1928년 한해 동안 약 30여 건 이상의 ‘스페인독감 재유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실렸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신문기사 상에서 다른 기간과의 특이점은 찾지 못했으며 1928년 10월에서 1929년 4월까지 통상적인 겨울철 독감에 대한 기사와 독감 유행에 대한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1938년에서 1939년 사이의 기사 역시 ‘스페인독감 재유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10건 이상 확인되었음. 따라서 이를 살펴볼 때, 약 14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힌 1918년 ‘스페인독감’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약 10년 주기로 반복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900년에서 1945년 해방까지의 언론보도자료를 정리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북미, 유럽과 마찬가지로 1918년 유행한 ‘스페인독감’에 대한 공포가 약 10년을 주기로 찾아오고 있었으나 아직 백신 등의 효과적인 예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단순 감기와 마찬가지로 위생문제, 또는 기온 차이에 따른 발병 예방 정도로만 예방 및 치료 접근이 제한되었음
- 해방 이후에는 1950년 6.25로 인하여 관련 언론 보도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1945년부터 1959년까지의 약 15년 정도의 신문보도자료 중 독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웠음

○ 아시아 독감의 유행

- 그러나 1957년의 경우 1957년 2월 중국대륙을 시작으로 발생한 ‘아시아 독감’이 전세계적인 유행성 독감으로 진행되어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을 거쳐 1957년 6월에서 미국까지 상륙하여 약 6만 여명 등이 숨지는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이할 것은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1957년 발생한 ‘아시아 독감’이 중국의 귀주 등지에서 발생하여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우리나라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918년 ‘스페인독감’의 여파로 마치 제 2의 ‘스페인독감’이 발병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었음. 1957년도의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살펴보면 국민보의 5월 기사 중

필리핀에 독감(플루)가 유행하여 사망자가 속출함. 독감유행으로 약국에서 약을 비싼 값에 팔아 마닐라 시장이 정가로 약을 팔도록 함

국민보, '필리핀에 스페인감기 유행', 1957년 5월

- 라는 내용으로 필리핀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시아독감'이 제2의 '스페인 독감'인 것처럼 보도하여 혼란을 주었던 사실이 나타나 있음. 다만 같은 년도의 8월 이후 기사에서는 '스페인독감'이라는 단어 대신 '아시아독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독감의 발생원이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임을 밝히고 있었음. 또한 '아시아독감'이 미국에서 유행함에 따라 미국 보건부에서 독감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기로 했다는 기사나 확인되어 1957년 이후 '독감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방접종이 국외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음¹⁵⁾

○ 홍콩독감 등 전세계적인 독감의 유행과 보도기사의 급증

- 1960년 이후 1990년대까지의 신문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거의 1만 여건 이상의 독감에 관련된 기사가 수집됨. 다만 내용의 대다수가 가을철과 겨울철이 독감예방백신 접종 및 독감주의의 전형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어 해당내용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약 200여 개의 신문보도도 내용 중 언론보도가 120 여건, 광고가 50여건 기타(사설 및 논설)등이 30여 건 등으로 구분됨
- 이 중 언론보도자료를 살펴보면 1968년에서 1969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홍콩독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 1968년 6월 발생한 '홍콩독감'은 홍콩을 발생원으로 하여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유럽, 미국까지 퍼져나가 전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음
-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주요일간지 모두 '홍콩독감' 유행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惡性毒感(악성독감)침입우려' 이라는 제목으로 'A형계신형인플루엔자가 홍콩에서 대 유행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한국에도 빨리 전파될 것으로 예상됨.'

15) 국민보, '미국에 (플루)독감 유행', 국민보, 1957. 10. 2 기사

- 등의 내용으로 홍콩을 통해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9월 이후 한국에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함께 독감약에 대한 광고가 신문지면에 매우 크게 보도되고 있었음. 그러나 1968년 말에 광고된 내용의 경우에는 백신과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감기약이 유행 중인 ‘홍콩독감’에 특효라는 문구만 삽입되어 있었음

○ 여행자유화 이후의 신종독감의 등장

- 위의 홍콩독감 유행 이후 2009년까지 사스와 조류독감 등에 의한 보도 자료가 인터넷 검색자료를 포함하여 약 1 만여 건 이상이 보도 되었음. 대부분의 보도자료는 사스와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피질, 또는 전쟁보다 더 큰 참사라는 일부 과격한 문구를 삽입하여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측면을 보이기도 하였음
- 또한 독감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독감의 유행이 건강 또는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대되는 현상을 다루었음.¹⁶⁾ 특히 2009년 4월 이후 발생한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명칭의 문제로 확대되는 비화를 겪기도 함. 2009년 일부 보도자료를 발췌하면

최근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를 두고 돼지 인플루엔자인가, 북미 인플루엔자인가, 멕시코 인플루엔자인가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동아일보, ‘신종플루에 대한 명칭 둘러싸고 국내·외 논란’, 2009년 4월 29일

- 기사의 내용과 같이 대한양돈협회 등의 이익단체가 신종플루를 돼지독감으로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으로 이를 ‘북미 인플루엔자’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 시기 해당 기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는 약 100여 건 이상으로 ‘조류 독감’으로 인한 양계 농가의 손실을 이미 경험한 결과로 인하여 독감 바이러스의 매개체에 대한 명명 또는 호칭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 원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 모두 신종플루를 초기에는 ‘돼지독감’이라고 명명하고 있었으며 이후 ‘북미 인플루엔자’라는 호칭 대신 2009년 6월을

16) 경향신문, 사스,전쟁보다 더 '충격과 공포' - 세계경제에 직접 타격, 2003년 4월 7일 기사

기점으로 ‘신종플루’라는 호칭으로 통일됨을 알 수 있었음. 이는 과거 ‘스페인독감’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플루엔자의 기원을 정확히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북미 인플루엔자’에 대한 호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1900년 이후 대규모의 유행으로 번지는 ‘스페인독감’과 같은 독감 바이러스의 유행이 약 10년에서 20년을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또한 1918년 발생한 최초의 유행성 독감의 공포로 인하여 일반 대중의 인식 속에 유행성 독감의 출현을 곧 제2의 ‘스페인독감’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그러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1980년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를 통하여 국내·외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관광, 식·음료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독감 바이러스의 유행에 대한 언론보도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계를 벗어나 경제적 문제와 부담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호칭과 매개체, 발생원에 대한 문제가 국가간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표 4> 독감의 역사

시기 (연도별)	주요사건
1833년	중앙아시아독감 -국한된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전파된 최초의 사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시작 -육·해로를 통해 유럽, 미국, 태평양 섬까지 전파 -현재 독감의 첫 시원이 되는 바이러스의 탄생
1888년	러시아독감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세계적인 유행성 독감 -발생지는 중국의 광둥성 -전세계적으로 100만명 이상 사망 추정
1918년	스페인독감 -1차 세계대전당시 미국 시카고부근에서 시작된 H1N1바이러스 -1차 세계 대전의 사망자수보다 3배나 많은 사망자 발생(약 2,500만~5,000만명) -후에 밝혀진 원인으로서는 돼지를 통한 사람과 조류간주의 유전자 재편성 -흔히 무오년 독감(戊午年毒感)이라고 불림 -한국에서의 스페인독감과 관련된 기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1918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한국에서도 독감이 대발하여 740만 명이 감염되고 그 중 14만 명이 사망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감) “한국에서 확산되는 인플루엔자의 최초 창궐일은 9월말이며 발원지는 시베리아였고 철길을 따라 확산됐다.” (미국의학잡지<JAMA>에 실린 ‘PANDEMIC INFLUENZA IN KOREA’ 연구 보고서. 1919년 4월 스킵필드박사) “백범 김구 선생도 1919년 상해에 있을 때 서반아 감기(스페인 독감)에 걸려 20일간 고생했다” (백범일지) “경성에서 독감(毒感)으로 사망한 사람이 268명인데 그중에서 조선 사람이 119명이다.” (매일신보 11월12일자) “서산 1군에만 8만명의 독감 환자가 있고, 예산·홍성서도 야단이다. 감기로 사망한 사람이 2000명이나 된다.” (매일신보 12월3일자) </div>
1957년	아시아독감 -중국 귀주에서 발생 -H1N1바이러스가 동물(야생오리)과 혼합되어 조류H2N2바이러스로 변종됨 -“독감전국에 20만명” (경향신문 7월25일자) -“독감 5개월에 세계일주” (경향신문 8월11일자) :중국에서 시작된 독감이 5개월만에 전세계 확산됐다고 WHO에서 발표했다는 내용
1968년	홍콩독감 -사람의 H1N2바이러스가 동물과 혼합되어 조류H3Nx(H3N2)바이러스로 변종 -‘모택동독감’ 또는 ‘항항독감’ 이라고 불림 -“홍콩독감 조심합시다 9월경에 침범우려” (동아일보 8월 21일자) -“홍콩독감만연” (매일경제 1969년1월4일자)

시기 (연도별)	주요사건
1977년	러시아독감 -스페인독감과 같은 H1N1바이러스 -중국과 시베리아에서 시작 -원인불명(1950년부터 유행한 변종 바이러스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 -“보사부 전국에 경보 소련독감 상륙” (매일경제 1978년3월13일자)
1997년	홍콩조류독감 -홍콩에서 시작 -사람이 순수조류독감바이러스(H5N1)에 감염된 첫 사례
2003년	-국내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 첫 발생(충북음성의 한 닭농장에서 대규모 폐사) -2003년 이후 매년 연례행사처럼 AI발생
2006년	-2003년 당시 가금류를 처분했던 노동자 4명에게 H5N1바이러스 국내 첫 인체감염 확인
2009년	신종플루 -멕시코에서 시작 -돼지유래 신종H1N1바이러스 -사람과 사람간의 전파 능력있음(조류독감과 차이) -멕시코여행 후 입국한 사람에게서 첫 신종플루 확진 -급속한 집단 발병으로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심각’(최고단계)까지 격상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9명의 사망자 중 92명(44%)이 59세 이하였고 20, 30대 사망자도 20여 명에 달함 -2010년4월1일 사실상 신종플루 위기 종료

3. 독감 치료약 및 예방접종에 대한 언론보도

○ 약품광고의 등장과 예방약의 개발

-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독감에 대한 언론보도의 양상 중 앞서 이야기한 근대기와의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독감 백신에 접종에 대한 홍보와 약에 대한 광고가 급증하였다는 것임.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아직도 독감과 감기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5년 미국에서 포르말린으로 불활성화시킨 ‘전백신(whole virus vaccine)을 시작으로 1950년대 후반 개발된 일반적 형태의 ‘분할백신(split vaccine)까지 독감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면서 감기에 대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독감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기 시작하였음

- 이후 1969년 1월을 기점으로 백신에 대한 외신보도가 나타나 ‘홍콩독감’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음. 1969년 1월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연방혈청연구소에서 ‘홍콩독감예방ワクチン(백신)’이 개발되어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후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국내에 ‘홍콩독감’ 관련 백신이 일반에게 접종되었다는 보도가 나타나 있지 않아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다만 그 이전인 1964년 경향신문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毒感(독감)ワクチン 15萬(만)CC 韓美財團(한미재단)寄贈(기증)’ 이라는 제목으로 ‘A한미재단에서 독감백신을 보사부장관에게 기증함. 보사부는 각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할 예정임.’

- 이라는 내용을 통해 독감과 관련한 백신이 국내에 유입된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1965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자료를 통해 서울시 일부 아동들에게 접종되었음을 알 수 있음

서울시는 적십자로부터 받은 독감예방백신 10만명분을 각 보건소를 통해 국민학교아이들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함.

경향신문, 10萬國民校兒童(만국민교아동)에 毒感豫防無料接種(독감예방무료접종), 1965년 1월 11일

‘독감이 유행하여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하고 있으나 시내 전 국민학생이 접종하기엔 부족한 실정임.’

동아일보, 蔓延一路(만연일로)의毒感(독감) 못따르는 豫防藥(예방약), 1965년 3월 16일

- 또한 1968년 ‘홍콩독감’이 유행할 당시 일반인들 대상으로 접종되었다는 보도자료는 있으나 접종백신이 매우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대신 주로 해열·진통제인 아스피린 계열의 약품에 대한 광고가 약 50여 건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독감에 대한 치료약으로서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1926년 중외일보 기사(아스피린에 대한 우리나라 첫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아스피린(안치피린)을 대표적인 감기약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약은 유명한 해열제로서 신열이 몹시 나고 정신이 없어 어지러울 때 매우 잘 들으며 관절염, 감기, 독감 등에 대한 치료약으로 특효이다.

중외일보, 가정약국 안치피린, 1926년 12월 7일

- 이와 함께 1930년 대 후반에서 1960대 중반까지 독감 치료제로서 아스피린에 대한 광고가 대부분의 신문보도자료의 광고란에 기재되어 있음. 하지만 이 시기의 신문보도자료 중 독감의 증상에 대한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라이증후군과 유사한 독감 증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독감의 증상 중 일부 심각한 사람의 경우에는 구토를 동반하여 눈알이 아픈 경우가 많고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동아일보(간리보험국위생과, 김중화 박사), 전조선을 휩쓸고 있는 독감과 치료법 1938년 2월 19일

독감의 증상 중 심한 경우에는 뇌 신경을 건드려 의식이 몽롱해지고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경향신문, 인플루엔자 A2형, 1962년 2월 23일

- 위에 나타난 증상은 주로 라이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라이증후군은 아이들이 바이러스질환을 겪은 후 뇌와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1929년 에 처음 증상이 보고되어진 후 1963년에 Reye에 의해 학계에 새로운 질환으로 발표되었음
- 하지만 이 시기에는 라이증후군과 아스피린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1960년대 독감에 대한 예방백신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독감과 감기에 대한 치료약으로 아스피린이 가장 좋다는 연구결과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음

최근 미국의 해군병원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아스피린의 효능이 독감 및 감기 등의 치료에 가장 좋다고 입증되었다. 독감의 경우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싼 항생제에 대한 대용으로 아스피린의 효능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되었다.

동아일보, 감기라면 거뜬히 입증된 아스피린 효능, 1962년 5월 24일

- 그러나 1980년대부터 라이증후군과 아스피린에 대한 관계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경향신문을 통해 ‘라이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처음 확인 할 수 있음

방콕A형 독감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한강성심병원에서만 어린이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져 있다. 심한 독감환자 중 특히 어린이에게 라이 증후군이 발병하여 고열과 호흡장애, 경련 등의 증세를 보인다.

경향신문, 독감 후유증 소아병 급증, 1981년 2월 21일

- 이후 CDC의 연구를 통해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 둘이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가장 탁월한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이 치명적인 어린이 질환 중 하나인 레이증후군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국 미국 국립 레이증후군재단의 충고에 따라 워싱턴의 학교당국자들이 학부모에게 취한 경고서한에서 나타났다.

경향신문, 독감·수구에 아스피린 피하라, 1984년 5월 10일

-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1926년 중외일보기사 확인) 아스피린을 사용해왔고 60년대부터는 아스피린이 감기약 중에 최고로 좋은 약이라는 기사와 신문광고까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독감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대부분 먹었을 것으로 생각됨
- 레이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기사가 나온 1981년 전까지 어린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의 증상이 어떠하였는지 조사해본 결과, 아이들이 독감이 심해지면 뇌압상승 증상(구토, 눈이 아픔, 경련)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반면 liver failure에 대한 증상은 걸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황달은 레이증후군의 증상으로 보지 않음) 자료를 찾기 어려웠지만 아스피린 계열의 약품 광고가 1980년 대 이후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부작용 ‘라이 증후군’에 대한 보도가 나타나면서 아스피린 계열의 약품이 독감에 특효라는 의식은 사라지게 됨

제4절 2000년 대 이후 유행 독감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¹⁷⁾

1.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SARS)에 대한 언론자료의 분석

○ 2003년 2월 12일 중국에서 탄저병으로 의심되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첫 보고가 있었던 시점부터 그 해 7월 WHO에서 SARS 경계령 해제를 선포한 날까지의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에 관한 신문 및 인터넷 보도기사 150건을 분석함.

- SARS 유행시기에 따라 언론보도의 내용과 특성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시기별로 공통된 것은 국민들의 감정을 동요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으로 분류된 기사가 모든 시기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 그와 관련하여 SARS 중기 즈음(4~5월)에는 언론보도가 너무 선정적이고 과장되었다는 등의 자성이 섞인 기사도 간간히 확인할 수 있음 (‘조선일보의 선정적인 사스보도’ 한겨레, 2003-04-30, ‘사스 경제파장 다소 과장됐다’ 문화일보 2003-05-02)

○ SARS 초기(2~3월): 중국 광둥지방에서 어떤 폐렴으로 의심되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명확한 이유는 아직 모르는 시기임

- 무엇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초기단계에서 주로 ‘사건중심’의 보도 기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있는 그 자체 사실의 내용을 제시하는 ‘주제진술식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고 아직 전염병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보도자료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SARS 중기(4~5월): SARS가 급격하게 전염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던 시기

17)

- 급격한 SARS 확산으로 전염환자 수가 최대로 증가되며 SARS의 원인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조사가 이뤄지던 시기였음(결국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밝혀짐)
- 이 시기에는 WHY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제중심’ 보도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함
- 사스로 인한 각종 전염사례들이 폭증하면서 ‘에피소드식 프레임’을 사용한 구체적인 예시와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었고 그로 인해 다소 자극적이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의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SARS 말기(6~7월): SARS의 전염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기

- SARS의 여파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그동안 SARS 발생현황 및 피해규모, 혼란상황에서 정부의 대처에 대한 평가 등 재난 이후 그에 대해 리뷰하고 정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시작함
-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건중심’의 기사가 주로 많았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각각 같은 수의 ‘에피소드식 프레임’과 ‘주제진술식 프레임’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에피소드식 프레임으로 분류된 기사는 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경우였고 주제진술식 프레임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SARS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보도되어져있다. 내용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고 그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한 ‘공중의제 중심프레임’ 보도자료가 1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SARS로 인한 경제적 피해내용을 다룬 ‘경제적 결과 프레임’과 국가대처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재난 인식프레임’이 같은 수로 확인됨

<표 5> SARS에 대한 형식적 분석

구분	내용	건수
에피소드식 프레임 (episodic frame)	사스 발생현황, 사스로 인한 피해규모, 해외보도 등	90
	-홍콩교민들 귀국러시 -사스 감염 임신부, 아기낳고 목숨잃어 -방독마스크, 휴대소화기 날개 단 재난용품	
주제진술식 프레임 (thematic frame)	사스발생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 정부 대응 태도에 대한 기사, 공공이슈 등	60
	-사스 경제파장 다소 과장됐다 -제2흑사병인가 지구촌이 떨고있다 -중국정부 사스 뒷북	

<표 6> SARS에 대한 내용적 분석

구분	내용	건수
책임귀인 프레임	사스의 원인, 사스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규명 등	17
	-중국 괴질, 아직 정체 못밝혀 -WHO, 중국 개와 쥐들이 괴질의 원천 -괴질 규명 9개국 인터넷 공조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독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보도자료 등	59
	-중국 괴질 305명 감염.. 홍콩인 2명 사망 -대구서 사스 유사환자 중국서 살다 귀국한 3세어린이 격리 -중국발 괴질공포 확산, 교민 대피귀국	
경제적 결과 프레임	사스로 인한 경제적 문제	20
	-지역경제도 괴질 직격탄. 한중교류 막막혀 -국내관광지 때아닌 괴질 특수 -아시아지역 성장률 둔화 '감염'	
공중의제 프레임	사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사안,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는 내용 등	25
	-괴질 감염경로 황사 전염 가능성 전무 -사스 원인균은 코로나바이러스 -who 사스괴질 확산방지 위해 여행제한고려	
재난 인식 프레임	국가 및 세계의 사스(재난) 인식유무와 대처 등	28
	-괴질 역학조사팀 광둥 특파 -WHO 전세계에 페렴 경계령 -사스방역체계문제있다	

2. 신종플루에 대한 언론자료의 분석

○ 2009년 4월 22일 미국에서 돼지독감에 걸린 환아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2010년 3월 31일 국가재난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시키면서 사실상 신종플루 위기가 종료된 시점까지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신종플루(돼지독감) 관련 470개의 보도기사를 분석함

- 국가에서 재난단계를 구분함에 따라 보도자료를 분류해보면, 전반적으로 사건 그대로를 보도한 ‘사건중심’ 기사와 발생현황 및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실린 ‘공중의제 중심프레임’ 기사가 많았음
- 초기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자극적인 보도가 많았으나 본격적으로 재난(신종플루)이 일어난 후에는 그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관련 활동 보도자료들이 많았으며 후기에는 전체적인 발생현황 및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룸

○ 국가재난단계 ‘주의’ (2009.4.27~2009.7.20)

- 4월22일 미국에서 돼지독감이 발병했다는 소식과 함께 초반에는 주로 외국의 신종플루전염사례들과 우리나라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사가 주를 이루다가 5월2일 국내에서 첫 신종플루환자가 발생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환자발생현황, 신종플루관련 전파방지대책 등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 자료가 봇물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함
- 대부분이 ‘사건중심’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에피소드식 프레임’의 보도방식이 사용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전염되고 있는 사실을 ‘공포확산’ ‘나도 혹시?’ ‘괴물바이러스’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과 관련한 기사와 당시에 WHO와 우리나라 정부에서 신종플루에 대처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중의제 중심프레임’이 많이 사용됨.(각각 102개의 보도기사로 같은 개수로 확인됨)

○ 국가재난단계 ‘경계’ (2009.7.21.~2009.11.2)

- 8월15일 신종플루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최고조에 오르게 됨
- 그에 따른 신종플루 환자 사망에 대한 분석과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는 내용의 ‘주제중심’ 기사가 쓰여지고 추상적인 이슈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맥락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주제진술식 프레임’이 주로 사용
- 그러나 ‘사건중심’과 ‘에피소드식 프레임’ 관련 기사 또한 꾸준히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각각 보도기사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그에 대한 ‘재난 인식 프레임’ 보도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함

○ 국가재난단계 ‘심각’ (2009.11.3.~2009.12.10)

- 10월27일부터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국가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으나 다행히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드는 시기임
- ‘심각’ 단계였던 약 한 달의 기간동안 예방접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어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대부분
-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신종플루를 보도하는 ‘사건중심’ ‘에피소드식 프레임’이 많으며 국가재난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 보도자료를 주로 확인할 수 있음

○ 국가재난단계 ‘경계’, ‘주의’(2009.12.11.~2010.3.7.) (2010.3.8~2010.3.31)

- 신종플루 발생은 더더졌으나 타미플루와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후유증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사건사고 그대로 객관적인 ‘사건중심’ 형태로 보도되는 시기
- 또한 신종플루의 위기가 마무리 되어가면서 ‘주제진술식 프레임’과 ‘공중의제 중심 프레임’에 속하는 그동안의 발생현황, 정부대처에 대한 평가, 분석 등의 기사들이 주를 이룸

<표 7> 신종플루에 대한 형식적 분석

구분	내용	건수
에피소드식 프레임 (episodic frame)	신종플루 발생현황, 피해규모, 해외보도 등	262
	-돼지 인플루엔자 검역기준일 17일 이후 멕시코서 1만명 입국(28) -신종플루 3번째 사망자 발생 (339) -개성공단 주재원 9명 신종플루 확진(456)	
주제진술식 프레임 (thematic frame)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 정부 대응 태도에 대한 기사, 공공이슈 등	208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어떻게 감염되나 (24) -정부 신종플루 비상대응체계 능력대응(352) -신종플루 완치 후 또 걸릴 수 있다. (414)	

<표 8> 신종플루에 대한 내용적 분석

구분	내용	건수
책임귀인 프레임	신종플루의 원인, 사스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규명 등	13
	-공장식 축산업 괴물바이러스 키운다(126) -국내유입 신종플루 염기서열 미국과 일치(223) -신종플루 국내환자 대부분 미국서 감염(245)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독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보도자료 등	137
	-“혹시..”병원,보건소 문의전화 빗발.. 시민들 감염공포확산(69) -“신종플루에 임신도 못하겠다.” 전세계 공포 심리확산(291) -지구촌 다시 신종플루 공포(314)	
경제적 결과 프레임	신종플루로 인한 경제적 문제	20
	-돼지독감 공포 확산 희비 엇갈린 증시(15) -신종플루로 제주관광대박.. 월 관광객 사상최고(249) -신종플루 때문에.. 홈쇼핑,온라인쇼핑 매출 사상 최대(405)	
공중의제 프레임	신종플루에 대하여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사안,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는 내용 등	170
	-돼지독감, 예방법을 알면 피할 수 있다.(23) -타미플루 예방효과없어.. ‘의심’진단 때 복용을(370) -신종플루 백신접종 누구나 가능(463)	
재난 인식 프레임	국가 및 세계의 신종플루(재난) 인식유무와 대처 등	130
	-정부, 돼지독감 국내전염예방위한 시스템구축(44) -정부, 신종플루 경보 ‘심각’ 격상 검토(357) -질병본부, 신종플루 대응위해 국가격리병상 확충나서(467)	

제5절 임상 의사 관점에서 본 독감: 2009년 신종플루를 중심으로

1. 역사 속의 독감과 주요 사건들

○ 바이러스의 발견

- 1918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발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여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감염이 되고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수의 건강한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20-40%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5천만의 인구가 사망함
- 15년 뒤 비로소 독감바이러스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유전학적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997년 토벤버거와 키스티던컨이 각각 알래스카의 영구 동토에서 찾은 독감사망자의 폐조직에서 바이러스를 얻어내어 이것이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었고, 이후 유전학적으로 reconstruction이 가능하여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염기서열과 재건, 그 병독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스페인독감과 조류독감

- 1919년 스페인 독감은 유래없는 높은 감염율과 치명율을 보였는데 이는 조류로부터 기인한 유전자 재조합형에 대하여 인류가 전혀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었기 때문임
- 다른 계절형 인플루엔자 감염의 사망률 곡선이 유소아와 노인에서 높은 U모양을 보이는 것과 달리 1919년 독감은 W모양의 사망률을 보여 20-40대에서의 사망이 높은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임. 이는 젊은 20-40대층에서의 강한 면역 반응을 통한 강력한 염증반응으로 인한 악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폐렴사슬알균이나 황색포도알균 세균성 폐렴의 2차 감염에 매우 취약하였고 특히 파괴된 호흡기 상피의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 발생시 더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연구되어짐. 이후의 임상 의들이 인플루엔자와 함께 세균성 폐렴에 관심을 갖고 치료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1919년 스페인독감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 외의 포유류, 조류 등의 인간 주변 생태계의 인플루엔자의 적응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됨
- 1919년의 H1N1바이러스는 이때부터 각각 돼지와 사람에게서 다른 방법으로 진화하기 시작하여 변형되어 왔으며 이것이 2009년 H1N1인플루엔자에서 유전자 재결합의 형태로 나타나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냄
- 이후 1957년 H2N2 아시아독감, 1968년 H3N2 홍콩독감이 범유행하였고 이 이후 범유행이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인가는 임상이나 역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음. 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것은 조류독감이었음. 1997년 이전까지는 A형 인플루엔자의 3가지 아형 H1,2,3만 사람에게서 유행을 일으킬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97년 홍콩에서 H5N1의 인체 감염증이 발생한 이후 H9N2, H7N7, 최근에는 H7N9등의 과거 조류에 국한되어 있던 A형 아형이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신종의 인플루엔자의 범유행의 가능성이 제시되어져 왔음
- 1919년의 조류유래 바이러스가 각각 돼지와 사람에게서 다른 방법으로 진화하여 2009년 H1N1인플루엔자에서 유전자 재결합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1919년의 바이러스 유전형의 일부가 보존되어 이를 경험하였던 노인들이 교차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효과는 감염 및 사망이 이군에서 높지 않은 특징으로 드러났음. 이를 근거로 기존의 독감예방접종과는 달리 초기 제한된 백신의 보급 상황에서 이들 고령층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예방접종 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배제되었음

2. 독감과 관련한 국내의 상황

○ 인플루엔자 감시체계와 임상에서의 상황

- 한국에서는 1997년부터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감시체계가 시작되고, 2000년 제 3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국가적 관리를 시작함. 보건학적 관점에서 또한 범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preparedness으로 타미

플루의 보유율을 인구 대비 올리는 것과 유행의 감시를 통하여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하였음

- 임상현장에서 인플루엔자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치료의 두가지 면이 중요하였음. 의사협회지, 내과학회지, 감염학회지에 관련된 기사를 고찰하였을 때 초기에는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 기고되었음(1996 송재훈, 2001 김우주)
- 2000년 초반까지는 임상의를에게 독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았음. 합병증의 고위험이 없다면 일부러 치료할 필요가 없는 질환으로 대증요법 위주의 치료가 이루어졌음. 항바이러스인 타미플루의 작용 특성상 초기 48시간 이내에 사용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특성과, 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타미플루 내성에 관한 이슈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2004년에 와서야 1997년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외 발생사례들이 감염내과의와 질병관리본부 담당관들에 의해 학회지에 소개되면서 가능성들이 제시되지만 일반적 임상현장에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음

○ 치료제에 대한 문제

- 치료제의 선택에 있어서 주된 치료제로 사용하는 독감바이러스의 타미플루 약제 내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2008년에서 2009년 시기에는 국내 H1N1 인플루엔자의 타미플루 약제 내성이 100% 였으며, 이는 국외의 바이러스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보임
-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어 치료하여야 하는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다면, 무슨 약으로 치료해야 할 것인지가 임상 의사와 소수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중요한 문제였음

○ 사회적 이슈

- 국가적으로, 공공의료현장에서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우려로 H5N1과 같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의 국내 전파 가능성에 대하여 준비가 이슈가 되었음
-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동안 한국에선 3명의 추정감염 사례(probable case)가 있었음. 이때의 사회적 위기관리 경험을 통해 안정적

인 격리진료 시설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국가지정 격리병상)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어 주로 조류독감을 대상으로 호흡기 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사업이 이루어 졌음

- 미국,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에서의 고위험병원체 환자 입원 격리 병상인 고도 격리 병상(high level isolation unit)이 에볼라나 마버그 등의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등을 대비하였던 것과 달리 국내는 사스 대비의 경험을 근거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조류독감의 최적화된 격리, 진료를 위한 호흡기에 국한된 격리 병상을 구축함. 따라서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 구분, 오염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오프클레이브, 오염제거 등의 계획 등 전반적인 격리 시설은 반영되지 않고, 최소한의 음압의 유지, 전실, HEFA 필터를 설비하는 것을 중시하였음

3. 신종플루에 대한 임상 의사로서의 경험

○ 발생현황과 현장의 대처

- 대유행의 경험은 임상 의에게 감염병의 발생 경과에 따른 대응의 일련의 과정들을 내부에서 들여다보도록 하는 경험이었음. 전염성질환의 유입을 관리하는 정책과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음
- 국외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주의¹⁸⁾기 당시 그 치명율을 알 수 없을 당시 봉쇄정책이 먼저 시작됨. 이 시기에는 모든 감염자와 접촉을 하였을 무증상 환자까지 따로 입원 격리 시키고 예방적으로 약제를 제공하였음

○ 환자조치의 단계와 경험

- 일반의료진들에게는 관련이 없으나 공공의료기관의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의사들이 환자를 먼저 돌보는 경험을 하게 됨. 의료진은 전신보호장구로 방역복을 입고 장갑과 고글을 착용하고, N95마스크(95%까지 필터링이

18) 국내 위기 대응 전략은 관심:해외 발생, 주의: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유입, 경계: 지역사회로의 확산, 심각: 전국적 유행의 순으로 수준이 결정된다.

가능한 마스크), 방수 덧신을 착용한 뒤 환자가 있는 병실로 들어감

- 음압 병실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2.5파스칼이라는 결핵 비밀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음압이 형성되어 있는 병실로 들어감. 동선은 구분을 원칙으로 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함. 환자와의 접촉시간과 접촉 의료진의 인원은 최소화되었었고, CC TV같은 감시 모니터에 의하여 환자의 24시간은 밖에서 관찰됨. 가족의 면회는 제한되었었고 환자를 돌보아야하는 부모는 한명이 예방약제를 투약하며 같이 수용되었어야 했음
- 마스크를 한 익명적 상황에서 치료의 내용은 최소화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플루엔자 관련 상황들만이 다루어질 뿐이었음
- 예방접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던 시기로 혹시라도 노출되는 의료진이 발생할지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졌고 그 위험은 감래되었음. 무증상 양성자들에 대한 투약과 최대잠복기 동안의 격리상태의 경과 관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게 될 환자를 돌보는 것 이외의 외적인 문제에 환자와 의료진이 다툼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시적 문제였음. 반면 중환자실에 인플루엔자 감염과 함께 입원하게 되는 환자들은 죽음의 가능성에 대하여 시름하고 인플루엔자 양성의 결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음
- 유입 차단 봉쇄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 확산이 되기 시작하였고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불안해하였고, 대학병원 등의 대형 의료기관을 찾아 확실한 진단을 요구하게 되었고 작은 증상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을 찾아왔음. 의료진은 더 이상 전신보호장구를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N95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호흡기 주의, 손위생을 준수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감염의 가능성에 대하여 걱정하였음. 이 시기의 바이러스의 PCR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를 통한 확진이 늘어 검사의 양, 이에 대한 의료비용이 증가하였고 약제의 사용도 증가함. 약제나 검사 비용의 보험 적용상의 혼선은 차상위층 등의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을 위축시켰고 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있기도 하였음

○ 치료약과 백신의 공급

- 전국적 유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자들을 선별하여 검사와 상관없이 먼저 치료하는 방식이 확대되어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사용량이 증가함. 이 시기가 되면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확대됨. 인플루엔자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확대, 예방접종의 사용 등으로 병원에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반적 수준의 호흡기 주의와 접촉주의를 준수하면서 진료가 이루어졌음
- H1N1에 대한 예방접종이 갖추어짐에 따라 제한된 백신 공급 하에서 효과적으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상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게 됨. 예방접종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문제 제기는 빠르게 종료되었고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대상군의 선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의료인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 아동,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초중고교생, 군인 등의 대상자가 결정되었음. 이들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합병증 발생이 높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확산이 빠르며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대상자는 국내 감염 및 예방의학 등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음.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국외 연구들에 의하여 1919년 인플루엔자의 교차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미국 등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상군에서 제외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사망자 중 노인 인구가 있는 부분,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서적 요소들이 작용하여 대상군으로 선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신종플루에 대한 연구방향의 문제

- 병의 심각도를 모르는 소수 발생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저병원성 대규모 발생으로 확산된 후기로 갈수록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어떻게 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지, 치료와 격리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체험하였음
- 빠른 전개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관계나 윤리적인 문제는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다시 2009년의 경험은 많은 이후 후향적 연구 결과물들로만 쪼개지고, 객관적 지표들로 정리되어 국내외에 논문화됨.

제6절 감염병 관련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1. 시민강연을 통한 인플루엔자 관련 정보전달 방안<부록 3, 쪽 참조>

○ 시민강연의 개요

- 역사 속의 독감의 진행, 독감의 영향과 대책
- 일시 및 장소: 2013년 10월 25일(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 대상: 일산 동구청 노인대학 소속 60세 이상 인구 150명 이상

○ 시민강연의 주요 내용

- 역사 속 감염병 중 아테네의 대역병과 잉카문명의 멸망을 일으킨 천연두 등의 사례를 통해 문명과 감염병의 사례 등을 알아봄
- 전염병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고대와 중세 이후의 상황을 서술함
-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의 전염병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봄
- 스페인 독감 이후 돼지독감의 사례를 통해 독감에 대한 미국의 예방접종 사례와 돼지독감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안, 대중매체의 영향 등을 논의함
-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과 그에 대한 개념 등을 논의함
- 새로운 전염병 중 2000년 이후 나타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응체계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내 대응과 감염병 대책의 성공적 사례에 대하여 설명함
- 신종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신종 전염병의 등장에 있어 시민의 협력, 독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2. 영상자료를 통한 정보전달 방안<부록 4, 쪽 참조>

○ 영상자료의 개요

- 역사 속의 독감의 진행, 독감의 영향과 대책
- 플래쉬 파일 형식의 3분짜리 동영상 2편
- 대상: 10세 이상의 일반 시민

○ 영상자료의 주요 내용

- 역사 속 감염병 사례를 통해 문명과 감염병의 전파와 내용 등을 알아봄
-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비롯하여 주요 인플루엔자의 발병과 치료방법, 내용등을 살펴봄
-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과 그에 대한 개념 등을 논의함
- 신종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신종 전염병의 등장에 있어 시민의 협력, 독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1절 결론

1. 말라리아의 인식변화와 시대상

○ 일제시대 말라리아 관련 문학작품의 특성과 시대배경

- 일제의 보건 의료는 내무성 위생국과 경무청에서 함께 담당했는데 실제 운영인 경무청이 중심이 되었음. 경찰에 의한 위생업무는 서양에서 중상주의와 절대주의 시대의 '국가는 백성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며 최선을 찾아내어야 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의사경찰(medical police) 개념에서 비롯됨
- 특히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일제의 의료 및 인구정책은 개인의 건강에 초점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임
- 의사경찰/의사내치內治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는 다름 아닌 의사와 경찰이 협동하여 국민을 의문의 말라리아 발병 사건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의문의 말라리아균」의 서사를 분석하는 일에도움을 줌. 국민을 위협하는 '외부'의 질병으로서의 말라리아, 생화학 무기로서의 말라리아 및 그에 대처하는 경찰과 의사의 협력이라는 문학적 상상력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것임

○ 1896년 키니네(금계랍)에 대한 광고가 독립신문에 게재되었던 시점부터 최근 2013년까지 말라리아에 대해 보도되었던 신문 및 인터넷 기사 총 154건을 수집 분석

- 과거에 말라리아가 학질로 불리던 시절에는 치료약인 금계랍(키니네)이 있었으나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학질을 치료하기 위해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리하여 학질을 떼어내기 위한 수많은 미신적 행위가 신문 기사화되었

는데 이와 같이 약 60년대까지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속하는 보도자료가 많았다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말라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고 정부 및 국민들이 일종의 재난을 극복해야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공중의제 중심 프레임’을 사용한 주요정보 및 건강관련 시사들이 주를 이루게 됨

2. 독감관련 언론자료의 분석

- 2003년 2월 12일 중국에서 탄저병으로 의심되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첫 보고가 있었던 시점부터 그 해 7월 WHO에서 SARS 경계령 해제를 선포한 날까지의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SARS에 관한 신문 및 인터넷 보도기사 150건을 분석함
 - 국민들의 감정을 동요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으로 분류된 기사가 모든 시기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 그와 관련하여 SARS 중기 즈음(4~5월)에는 언론보도가 너무 선정적이고 과장되었다는 등의 자성이 섞인 기사도 간간히 확인할 수 있음
- 2009년 4월 22일 미국에서 돼지독감에 걸린 환아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2010년 3월 31일 국가재난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시키면서 사실상 신종플루 위기가 종료된 시점까지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신종플루(돼지독감) 관련 470개의 보도기사를 분석함
 - 국가에서 재난단계를 구분함에 따라 보도자료를 분류해보면, 전반적으로 사건 그대로를 보도한 ‘사건중심’ 기사와 발생현황 및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실린 ‘공중의제 중심프레임’ 기사가 많았음
 - 초기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자극적인 보도가 많았으나 본격적으로 재난(신종플루)이 일어난 후에는 그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관련 활동 보도자료들이 많았으며 후기에는 전체적인 발생현황 및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룸

- 대부분의 보도가 국가 기관에 대한 미온적, 제한적 비판 중심으로 흥미유발 차원의 보도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
 - 감염병 관리 주체들 사이의 의사소통문제
 - 관리당국의 적극적 조치, 대응에 대한 홍보부족
 - 여론몰이식 보도행태 및 비판능력 미비
 - 부정적 보도 → 산업보호를 위한 캠페인
 -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해명을 필요하게 만드는 환경

- 언론보도를 통해 독감 등 감염병에 대한 대중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대중 강연을 통한 특정 독감 등의 질병에 대한 인식 전환
 - 방송 광고를 통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언론보도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보도행태 및 공중의제 변화 확인
 - 피해 지역 및 관련자들에 대한 행동지침 전달에 언론보도를 이용
 - 발생원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인 보도전담인력의 육성
 -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문제점 감시

3. 임상 의사 관점에서 본 독감

- 변이의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
 - 여러 감염성 질환 중 유일하게 변이를 보이는 병원체에 대하여 매년 백신을 만들어내고 예측하여 투여하는 유일한 병원체가 인플루엔자임
 - 1940년대 처음 killed virus vaccine으로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A형 H3N2, H1N1, B형 후보주를 포함하는 3가 백신임
 - 매년 일어나는 항원 소변이로 인해 전년도 백신이 다음해에 효과적인 항체 반응을 유도할 수 없으므로 국제보건기구를 주축으로 미국 FDA, CDC, 영국, 호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곳에서 인플루엔자 감시 대응 시스템 (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Response System)내 국제보건기구 협력 실험실들 (WHO collaboration center와 essential regulatory laboratories)에서 전세계적으로 분리된 바이러스 아형을 분석하여 매년 2월말에 그해 겨울 유행할 바이러스의 아형을 예측하고 백신주를 권고하고 있음

- 인플루엔자는 유행기 후반후에 두 번째 아형의 소규모 유행이 뒤따르는데 이 herald wave를 통해 다음해 유행할 아형을 예측하게 됨. 비교적 예측되어 조제된 인플루엔자 백신과 실제 유행 항원형의 항원성이 얼마나 부합하는가(동일, 또는 유사)가 그해의 백신의 효과를 말함. 다른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환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C형 간염의 경우 지속적인 돌연변이와 유사종 다양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최근문제가 된 SARS Co Virus, MERS Co Virus등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감기의 원인바이러스가 되는 이 병원체에 대하여 사회적 효과가 적으므로 백신을 개발하려 하지 않음.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질병 발생의 예방과 사망 예방효과가 70%, 90%로 매우 높아 보건학적 측면에서 권고되고 있음. 질병의 이환율, 합병증 발생율, 사망률을 낮춰 질병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관리의 기본정책으로 되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여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음. 계절형 인플루엔자는 유전자의 점돌연변이에 의한 항원 소변이 (antigenic drift)에 의하여 매년 새롭게 발생하게 되고, 매년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대응을 일으킴

○ 생태학적 문제와 예측불가능성

- 변형된 바이러스에 대하여 인간은 면역을 점차 획득하여가고, 반면 바이러스는 변이를 쌓아감. A형 인플루엔자에만 발생한 항원 대변이 (antigenic shift)는 갑작스럽게 유전자 재조합 (genetic reassortment)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며 항원 대변이로 인한 대유행의 발생은 태생적으로 예측불가능 하였음
- 최근의 흐름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심, 포유류의 바이러스 조합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조류, 인간 이외의 포유류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모니터링이 증가하고 있음. 주변 생태계를 들여다봄으로 예측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변화시키거나, 발생된 대유행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얼마나 변화하는 이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함
- 역사속의 각종 전염병 특히 인플루엔자의 범유행은 지금도 정보들을 생

산해 내고 있음. 임상 의사로서 인플루엔자 범유행의 경험은 의료와 보건 문제의 일련의 과정들을 내부에서 들여다보도록 하였고 고찰되어야 할 많은 경험들이 있음. 인플루엔자의 예측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은 임상 의사들에게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의 흐름을 읽는 관찰과 이해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음

제2절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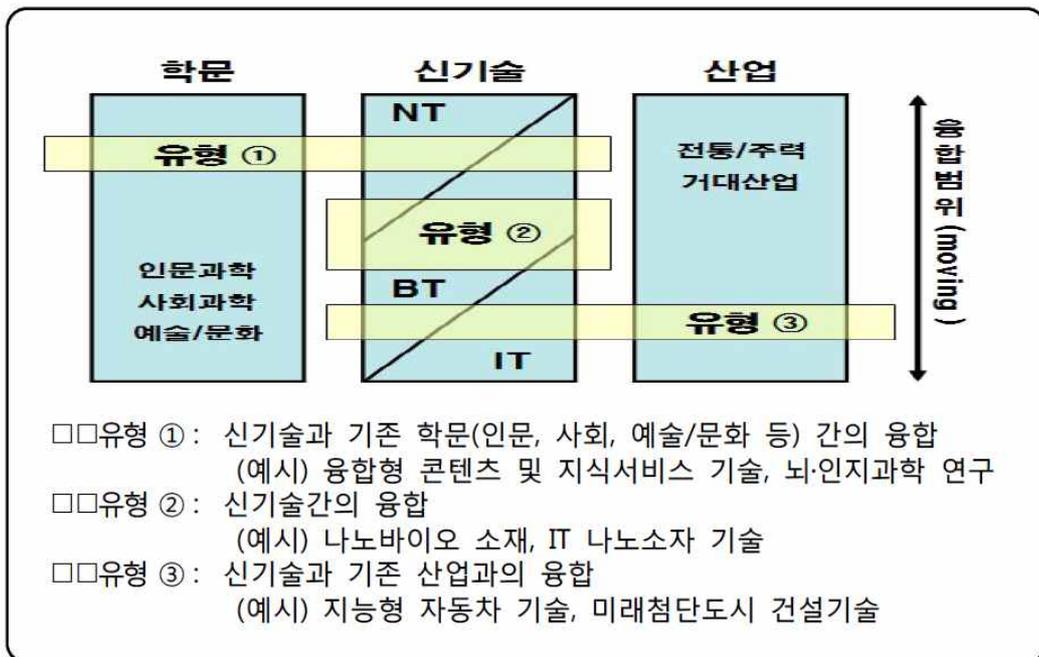
1. 감염병-인문학 융합연구의 필요성

-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 지성의 총아가 융합연구임
 - 분과학문으로 발전한 인간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으나 현재 그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하게 된 상황(예를 들어 분과학문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따르는 상황)에서
 - 다른 문제의식과 문제 접근방식을 허용하고 의사소통함으로써, 융합연구는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제시함

- 융합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2007년 이후 융합기술의 진흥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발전 동력으로 상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국가융합기술 발전기본방침 2007,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2008.11) 정부는 NT, BT, IT 사이, 또는 이들과 타분야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지원하였음
 - 이때 융합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NT, BT, I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20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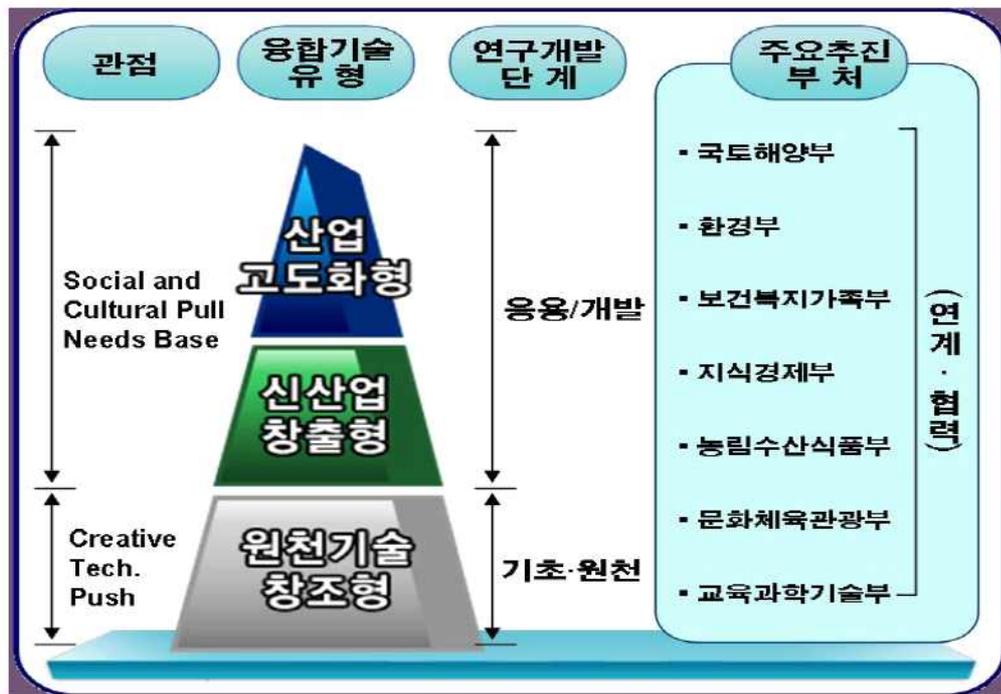
- 위의 융합기술의 분류에서 감염병-인문학의 연구는 유형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BT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분야와 인문/사회과학, 문학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임

-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가치있는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배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고도화에 해당)
- 한편 정부가 2007년 제시한 방향성에 근거하면 주요한 발전 전략으로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가 필요함
- 융합연구를 위한 학제간 연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학제간 연구와 동시에 학제간 연구에 능한 신진/우수 연구자 발굴이 필요
 -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해야 한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지속적인 사업이 의미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학술재단이 제시한 학제간 융합의 단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감염병-인문학 융합연구는 각단계에 걸쳐 성취를 거두었음. 기존 수립된 관계를 확충하는 좌담회(1단계), 콜로키엄을 통한 네트워킹과 논쟁, 문제점 탐구(2, 3단계), 사회 일반에 접근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4단계) 등이 그러함



<그림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 특히 이번 연구는 연구자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감염병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감염병과 인문학의 관계를 규명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 하였음 (한승환, 김정운.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한 실증분석: 학문분야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1; 20(1):151-178)
- 연구 수행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게 됨. 감염병에 관한 의학 적, 보건학적 정보가 새로이 인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기는 지난하였으며, 종종 공동연구자가 작성한 결과물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공동연구경험이 필요 할 것임. 동시에 사회적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시민사 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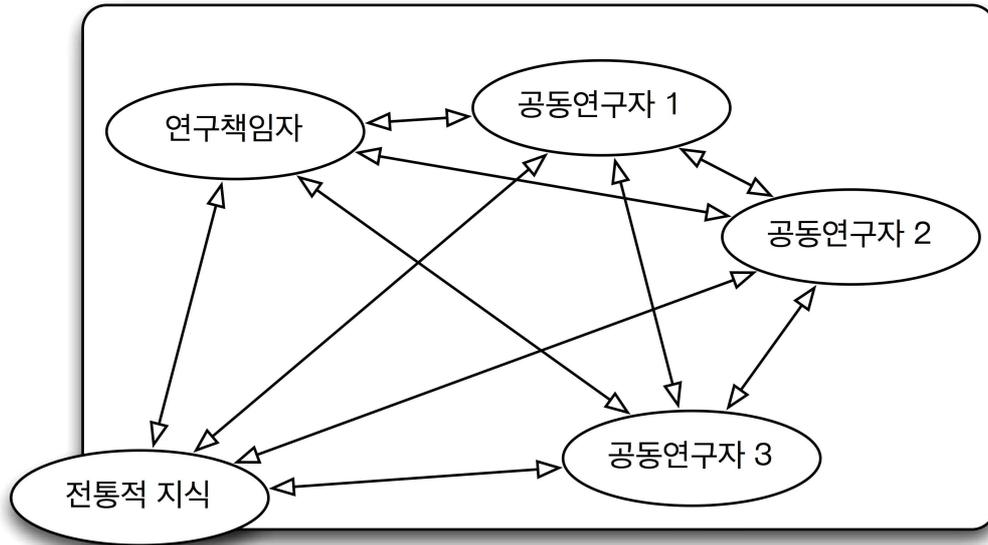


< 활용목적별 분류 >

<그림 3> 활용분류별 단계

2. 추후 연구제언

- 이후 감염병-인문학 융합연구의 주제는 기존 감염병 분류에 따른 가로축과 주제에 따른 세로축의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함 (참고 2012. 보건복지부. 인문학속 감염병 실태 및 활용방안)



<그림 4> 연구수행에 따른 의사소통 개념도

- 세로축을 구성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흥미롭고 참여할 수 있는 융합연구 방법론 개발
 - 감염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패러다임의 개발
 - 감염병의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형태에 대한 심층적 연구
 - 인류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감염병 양상 변화에 대한 다각적 분석
 -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 국제적 이동의 증가에 따른 감염병 양상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제고
 - 감염병 정보 소통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 감염병, 보건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융합 사례 제시

주제	감염병 1 (수인성 감염병)	감염병 2 (항생제/백신을 통해 통제가능)	감염병 3 (병원감염/기회 감염)	감염병 4 (곤충매개 감염 병/신종감염병)
감염병-인문학 방법론 개발				
감염병에 대한 사회 전 반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패러다임의 개발				
감염병의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형태 에 대한 심층적 연구				
인류 사회의 변화에 따 른 감염병 양상 변화에 대한 다각적 분석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 안 제시				
국제적 이동의 증가에 따른 감염병 양상 변화 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제고				
감염병 정보 소통에 대 한 평가와 대안제시				
감염병, 보건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융합 사례 제시				

○ 한편 앞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인과 인문학 연구자들의 정기적인 교류 및 논의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함
- 융합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형태로 가공, 확산되도록 하는 방
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감염병과 인문학적 성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조직의 운영이 필요함
- 감염병-인문학 융합연구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연구자 간의 의
사소통 및 결과물 공유-논의를 위한 커뮤니티 확충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1절 활용계획

과제명	감염병의 인문학적 접근과 활용
과제책임자	이일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 여부
1	감염병 보도의 분석, 신종플루 언론보도 중심으로	이일학 이동현	문헌의학 학회지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감염병 관련 국민홍보 자료 활용 감염병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강연 자료
--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웹 콘텐츠 제작

- 독감의 역사와 주요사례, 인식변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속 삽화 및 플래쉬 제작자 1팀(2인)
 - 약 3분짜리 영상을 2편 제작: 1차 삽화제작 후 삽화를 플래쉬 영상으로 제작

시민강연(예정사항)

- 역사 속의 독감의 진행, 독감의 영향과 대책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3년 10월 25일(금) 오후 1시
 - 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 대상
 - 일산 동구청 노인대학 소속 60세 이상 인구 150명 이상
- 관련내용
 - 개요
 - ① 역사 속의 독감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3분짜리 플래쉬 영상
 - ② 독감의 영향과 예방에 대한 3분짜리 플래쉬 영상
 - ③ 시민강연(약 1시간)
 - ④ 시민강연 자료 관련 질의응답
 - 강연내용(안): 역사 속에 표현된 독감의 양상과 그에 따른 일반 시민의 잘못된 인식 또는 예방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 독감들의 내용에 문학작품 속 내용 또는 언론보도 행태를 예로 하여 독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구축함. 또한 그릇되거나 과장된 표현에 대한 사항을 바로잡아 관련 질병에 대한 올바른 예방 및 홍보 필요사항을 강의함

제7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해당사항 없음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1. 연구비 사용 내역

(단위 : 원)

구분 \ 비목	계약금액	사용금액	구성비	비고
○ 인 건 비 소 계	11,349,218	6,060,000	37.83	
책 임 연구 원 (총 1명)			0	
연 구 원 (총 3명)		1,200,000	13.42	10월 인건비
연 구 보 조 원 (총 5명)		4,860,000	19.93	미지급
보 조 원 (총 1명)			4.48	
○ 경 비 소 계	17,358,860	3,672,920	57.87	
여 비	1,640,000	0	5.47	
유 인 물 비	5,500,000	2,750,000	18.33	
전 산 처 리 비	308,000	62,000	1.03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4,996,860	0	16.66	*연구종료 후
회 의 비	4,120,000	821,320	13.73	지급 예정 금
임 차 료	0	0	0.00	액 존재
교 통 통 신 비	480,000	39,600	1.60	
감 가 상 각 비	0	0	0.00	
*위 탁 정 산 수 수 료	314,000	0	1.05	
*일 반 관 리 비 ()%	1,291,922	0	4.30	
이 운 ()%			0	
○ 계	30,000,000	9,732,920	100.0	

2. 연구분담표

구분	이름	소속	직위	참여율	인건비지급	분담내용
책임연구원	이일학	연세대	교수	25%	○	· 연구총괄 및 연구진행 상황 검토
연구원	손명세	연세대	교수	25%	×	· 연구총괄 보조 · 인문학과 예술 속 감염병에 대한 접근 및 분석방법에 대해 논의
연구원	이병훈	아주대	교수	20%	×	· 인문학과 예술 속 감염병에 대한 접근 및 분석방법에 대해 논의 · 강연회 개최
연구원	여인석	연세대	교수	25%	○	· 인문학과 예술 속 감염병에 대한 접근 및 분석방법에 대해 논의 · 외국의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미국, 프랑스 등)
연구보조원	김다혜	연세대	연구보조원	50%	○	· 자료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강연회 준비 · 연구비 관리, 회의 관련 행정업무
연구보조원	이동현	연세대	연구보조원	50%	○	· 조사내용 검토 및 관련자료 분석 · 강연회 준비 · 연구비 관리, 회의 관련 행정업무
연구보조원	이연호	연세대	연구보조원	50%	×	· 조사내용 검토 및 관련자료 분석 · 강연회 준비 · 연구비 관리, 회의 관련 행정업무
연구보조원	조단비	연세대	연구보조원	50%	×	· 조사내용 검토 및 관련자료 분석 · 강연회 준비 · 연구비 관리, 회의 관련 행정업무
연구보조원	이원	연세대	연구보조원	50%	○	· 조사내용 검토 및 관련자료 분석 · 강연회 준비 · 연구비 관리, 회의 관련 행정업무
보조원	강지해		연구보조원	30%	×	· 강연회 준비 · 연구비 관리, 회의 관련 행정업무

제10장 참고문헌

- Alonzo, Angelo A. and Reynolds, Nancy R. Stigma, HIV and AIDS: an Exploration and elaboration of a stigma trajector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95: 41(3): 303-315.
- Borel, Jacques : *Medecine et Psychiatrie Balzaciennes - La science dans le roman*, Paris : Jose Corti, 1971.
- Canguilhem, Georges : *Ecrits sur la medecine*, Paris : Seuil, 2002(Edition originale: 1989).
- Daftary, Amrita. HIV and tuberculosis: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double stigm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12: 744; 1512-1519.
- Delacompte, Jean-Michel : *Ambroise Pare : La main savante*, Paris : Gallimard, 2007
- Farmer, Paul. Social scientist and the new tuberculo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97: 44(3): 347-358.
- Hacking, Ian. *Rewriting the Soul: Multiple Personality and the Sciences of Mem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Hawkins Mcentyre, Anne Hunsaker/Marily Chandler (Ed) : *Teaching Literature and Medicine*, New York :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00
- Imber, Gerald : *Genius on the Edge: The Bizarre Double Life of Dr. William Stewart Halsted*, New York : Kaplan Publishing, 2011.
- Kervella, Goulc'han : *Medecine et litterature en langue bretonne qux XIXe et Xxe siecles*, Brest : Editions du Liogan, 2000.
- Mak, Winnie W. S. Mo Phoenix K. H. Cheung, Rebecca Y. M. Woo Jean. Cheung Fanny M. and Lee Dominic. 2006. Comparative stigma of HIV/AIDS, SARS, and Tuberculosis in Hong Kong.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6: 63; 1912-1922.
- Wallis, Patrick and Nerlich, Brigitte. Disease metaphors in new epidemics: the UK media framing of the 2003 SARS epidemic.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5: 60; 2629-2639.
- Yang, Lawrence Hsin, Klienman Arthur, Link Bruce G. Phelan, Jo C., Lee Sing, and Good. Culture and stigma: Adding moral experience to stigma theor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7: 64; 1524-1535.
- 「Literature and Medicine」, Volume 28, Number 2, Fall 200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 김성재,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재난보도 방향, 방송연구, 2003
- 마중기 외 지음, 『의학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04.
- 문국진, 『명화로 보는 인간의 고통』, 예담, 2005.
- 박경숙,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 언론학보, 제46호, 2004
- 박정의, 공중보건과 의학보도, 한국언론재단, 2001
-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6
-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의사학』, 제20권 제1호(통권 제38호), 대한의사학회, 2011

유종호, 『시와 말의 사회사』, 서정시학, 2009
조주연, 인사-이공 학제간 융합연구 과제도출 및 활성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0
한성구, 『그림 속의 의학』, 일조각, 2007.
에르네스트 만델, 이동연 옮김,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사라 네틀턴, 조효제 옮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 1997

제11장 첨부자료

<부 록 1: 문학작품의 말라리아 데이터베이스 >

키워드	오오카 쇼헤이, 말라리아, 태평양 전쟁, 열대 기후, 필리핀, 식민지
제목	『포로기』
장르	장편 소설
저자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1909~1988)
시기	1948년
참조 판본	오오카 쇼헤이, 허호 옮김, 『포로기』, 웅진출판, 1995.
줄거리	“나는 1945년 1월 15일 민도로 섬 남쪽의 산 속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저자 오오카 쇼헤이의 태평양전쟁 참전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민도로 섬의 산 호세에서 경비의 임무를 띠고 복무하던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다. 그리고 그해 12월, 미군이 민도로 섬에 상륙하면서 오오카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섬의 고지(高地)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패잔병들과 함께 산 속을 3달 가까이 방황하면서 극단의 기아와 병과 싸우며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던 오오카는 죽음 직전에 미군의 포로가 되어 레이테 섬의 병원에 후송된다.
논평	이 자전적 소설의 서술자이자 작가인 오오카 쇼헤이는 “참전하는 날까지 '조국과 운명을 같이할 때까지'라는 관념에 안주“하던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정작 군인이 되어 수송선에 타는 순간 '죽음'의 무게를 체감하고 압도당하게 된다. 전장에 도착한 그는 동료들이 차례로 죽어나가는 목도하는 가운데 아군이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탈영을 계획한다. 그러나 탈영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오오카와 동료들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된다. 여기서 사람들의 목숨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가는 말라리아는 태평양 전쟁의 메타포이다. 또한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인들이 믿었던 것과는 달리, 죽음이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성하거나 고귀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카미카제 식의 총력전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오오카라는 젊은 엘리트가 '이런 전장에서 죽는 건 개죽음이다'(14쪽)라는 걸 빠르게 깨닫는 것과 관련된다. 전쟁을 일으킨 천황과 일본 군부의 엘리트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세뇌하려는 바와 달리, 전장에서서의 죽음도 말라리아로 인한 죽음도 비참한 결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필리핀의 일본군 병사들이 말라리아를 '우리들의 가장 친근한 적'이라고 부르며 감염에 대비하여 체력을 기르려 노력하는 장면이나, 위생병이 말라리아 환자는 물을 마시면 안된다는 기묘한 민간요법을 내세우는 장면은 일종의 풍속사로서 주목할 만하다. 말라리아 예방약에 대한 언급이나 키니네에 대한 묘사도 찾아볼 수 있다.
인용문	그러나 재앙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말라리아였다.

민도로는 필리핀 군도 중에서 가장 악성인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섬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방약이 지급된 덕분에 산호세에 있는 동안은 환자가 두세 명을 넘지 않았지만, 산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위생병이 키니네를 분실한 탓으로 이윽고 급속도로 번져, 1월 24일 미군의 습격을 당하였을 때는 서서 싸울 수 있는 자가 30명을 넘지 않았다. 마지막 보름 동안에는 하루에 평균 세 명씩 죽어갔다. 병자는 조용히 죽었다. 그들은 현저하게 급속도로 의기를 상실하였기에, 평소의 태만한 생활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중대장은 매일 아침 각 분대의 숙사로 문병을 다녔다. 그는 숙사에 가득한 환자들을 바라보며 잠자코 입구에 서 있었다.

-출처: 오오카 쇼헤이, 허호 옮김, 『포로기』,웅진출판, 1995, 10~11쪽

우리들은 또한 당시에, 우리들의 가장 친근한 적인 말라리아에 걸렸을 경우를 고려하여, 현재 남은 유일한 대항법, 즉 미리 체력을 길러 두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우리들은 병자가 남긴 죽을 먹고, 땅에 떨어진 밥풀도 주워 먹었다.

하지만 이처럼 갖가지 경우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라리아로 발열하고 있는 마침 그때에 미군이 올 가능성에 대하여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둘이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1월 16일에 발열하였다. 나는 40도의 열이 계속되어, 이틀째에는 일어설 수도 없게 되고, 사흘째에는 혀가 꼬부라졌다. S의 증상은 나만큼 중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매일 30도 이상의 열이 났다.

최초의 시련이 온 것이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무기를 집어라!'하고 외쳤다. 내 몸은 강건하지는 않았지만 병에 대하여는 비교적 저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세심하게 자신의 증상을 관찰하며 치료법을 스스로 강구하였다. 열 때문에 설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는, 소화기에 무익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이것이 당시의 내 생각이었다-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하였다. 보름 정도 먹지 않아도 체력을 유지할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고 나는 자부하였다.

위생병은 산에 들어온 이후로 기묘한 말라리아 요법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말라리아 환자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맹목적으로 따르던 습관을 버리고 단호히 반대하였다. 갖가지 증거를 내세우면서, 그러한 금지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였다. 분대장은 화를 내며 다른 병사들이 나에게 물을 떠 주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나는 다른 분대의 병사들이 통과하기를 기다

	<p>러서 몰래 부탁하거나 또는 스스로 20 미터 가량 떨어진 샘까지 기어가서 물통에 물을 담았다.</p> <p>나는 말라리아 환자에게 죽음이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감시하며 아직 죽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는 또한 병자가 죽기 전에 대소변을 싸는 것을 보고, 고통이 심하여지면 일부러 입구까지 기어가서 소변을 보았다.</p> <p>얼마 전에 같은 분대의 병사가 하나 죽었다. 시체는 내 가슴을 넘어서 운반되었다. 분대 전원이 병자였기에, 비교적 가벼운 병자가 매장을 도와야만 하였다. 오랫동안 발열하다가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된 병사 하나가. 죽은 사람의 소지품을 100미터 가량 위쪽에 있는 중대 본부까지 반납하러 갔다. 돌아와서 숙사로 들어올 때, 나는 그의 얼굴이 몹시 일그러져있는 것을 알았다. 이튿날 아침, 그는 죽어 있었다.</p> <p>이 병사가 죽은 것은 1월 22일이었다. 나도 조금 열이 내렸기에, 저녁 무렵, 발병 후 처음으로 소량의 죽을 먹었다. 그때 전망초소로부터 미국 함정 3척이 브라라카오 만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전해져왔다.</p> <p>분대장은 중대 본부로 가서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와서도 불쾌한 듯이 드러누운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지나가는 병사들에게서, 곧바로 4명의 척후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p> <p>-출처: 오오카 쇼헤이, 허호 옮김, 『포로기』,웅진출판, 1995, 16~17쪽.</p>
--	---

키워드	빅토르 위고, 나쁜 공기(miasma), 미아스마, 말라리아, 하수구
제목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장르	장편 소설
저자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
시기	1862년
참조 판본	빅토르 위고, 이형식 옮김, 『레 미제라블』,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
주제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
줄거리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 미제라블』은 한국에서는 『장 발장』이라는 제목의 축약본으로 널리 소개되었다. 1982년 프랑스 6월 봉기를 소재로 삼은 이 작품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전과자, 매춘부, 노동자, 학생 등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혁명을 다룬 이 작품은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소설인 동시에,

	인간의 죄와 구원이라는 종교적 테마를 중심에 두고 있다.
논평	<p>인용된 대목은 파리의 하수구를 묘사하는 장면으로, 여기서 더러운 하수구는 ‘티푸스성 질병’ (154쪽), ‘콜레라의 창궐’ (155쪽) 등 각종 도시 전염병의 원천지로 묘사된다. 특히 하수구에서 나온 “독한 기운miasma” 이 사람을 질식사시키기도 하는 등 건강에 극히 해로운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하는데, 이는 말라리아를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ammetta Rocco, The Miraculous Fever-Tree: Malaria, Medicine and the Cure that Changed the World, HarperCollins UK, 2012 참조) 하수구에서 창궐하는 각종 질병은 위고가 묘사하는 것처럼 민중의 비참한 삶의 조건이기도 했다. 장발장은 혁명 진압 와중에 심하게 부상을 당한 젊은 마리우스를 몰래 빼돌리기 위해 하수구 길을 택하는데, 위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수구의 더러움과 비참함, 그리고 그 오랜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한다.</p>
인용문	<p>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적인 경제적인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빠리의 하수도는 공중위생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빠리는 두 층 사이에 놓여 있는 바, 두 층이란 물의 층과 공기의 층이다. 상당히 깊은 지하에 있으되, 이미 두 번이나 착암기로 그 존재를 확인한 지하수층은 백악층과 쥐라기 석회암층 사이에 있는 녹색 사암층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그 지하수층은 반경 25리으 되는 원반 모형을 하고 있다. 무수한 하천들의 물이 그곳으로 스며든다. 그르넬의 우물에서 뜬 물 한 잔에는, 쉐느, 마른느, 이욘느, 와즈, 엔느, 세르, 비엔느, 루와르 등 강들의 물이 섞여 있다. 건강에 좋은 그 지하수가 처음에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다음 땅으로부터 온다. 반면 공기의 층은 건강에 해로운데, 그것은 하수도에서 온다. 시궁창의 모든 독한 기운들(miasms)이 도시의 숨결과 되섞이며, 냄새가 좋지 않음은 그 때문이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이저니와, 퇴비 더미 위에서 채취한 공기가 빠리 상공에서 채취한 공기보다 더 맑다. 때가 이르면, 모든 분야의 발전과 더 완벽해진 장치들 및 한 층 개명된 인지 덕분에, 사람들이 지하수층을 이용하여 공기층을 정화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수도를 씻어낼 것이다. 하수도를 씻어낸다는 말은, 오물을 땅에 돌려준다는 뜻이며, 바꾸어 말하면, 퇴비를 토양으로, 그리고 비료를 밭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그 간단한 일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가난의 완화와 건강의 증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악취 풍기는 바퀴인 빠리의 바퀴통에 해당하는 루브르 궁으로부터, 사방 50리으까지 온갖 질병들이 전파된다. 지난 십 세기 전부터 시궁창이 빠리의 질병이었노라고도 말할 수 있</p>

	<p>을 것이다. 하수도는 도시가 핏속에 가지고 있는 악습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백성의 본능이 결코 잘못 짚은 적이 없었다. 하수도 청소 부라는 직업이 전에는, 혐오의 대상이어서 오랜 세월 동안 망나니들에게 맡겨졌던 백성의 일만큼이나 위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따라서 백성들이 기피하였다. 석공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역한 냄새 진동하는 그 지하도 속으로 사라지듯 들어갈 결단을 내리도록 하려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했다.</p> <p>-출처: 빅토르 위고, 이형식 옮김, 『레 미제라블』, 팽귁클래식코리아, 2010, 156~157쪽.</p> <p>장 발장은 다시 걷기 시작하여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천장의 높이가 일정치 않은데, 평균 오빠에 육 뿌쓰쫂 되었다. 남자의 키에 맞추어 계산된 것이었다. 장 발장은 마리우스의 몸이 천장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몸을 구부릴 수밖에 없었다. 매 순간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일어서고, 끊임없이 벽을 더듬어야 했다. 돌이 축축하고 바닥이 미끈거리, 손이나 발에는 좋지 않은 받침대였다. 그리하여 도시의 그 흉악한 분노통 속에서 끊임없이 비척거렸다. 환기구들을 통해 들어오는 반사광이 몹시 드물 뿐 아니라 매우 창백하여, 한낮의 태양빛도 그 속에서는 달빛 같았다. 나머지 모든 것은 안개와 독한 기운(miasma)과 불투명과 검은색뿐이었다.</p> <p>-출처: 빅토르 위고, 이형식 옮김, 『레 미제라블』, 팽귁클래식코리아, 2010, 176쪽.(『레 미제라블』 5부 3편 <진흙탕, 그러나 영혼>, 4. 그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다)</p>
비고	장 발장이 마리우스를 부축하고 파리의 더러운 하수도를 걷는 장면은 2012년 동명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영화 속에서 잘 형상화되었다.

키워드	윌키 콜린스, 말라리아, 키니네, 열대병, 제국주의, 식민지, 열대 기후, 탐정 소설, 미스터리 소설
제목	『월장석The Moonstone』
장르	장편 소설, 서간체 소설, 탐정 소설(영어로 창작된 최초의 탐정 소설로 추정됨)
저자	윌키 콜린스(William Wilkie Collins, 1824~1889)
시기	1868년. 『흰 옷을 입은 여인』과 함께 윌키 콜린스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본래 찰스 디킨즈의 잡지인 『일년 내내All the Year Round』에 연재되었다. 이 작품은 작가 본인에 의해 1877

	년 연극으로 만들어졌으나, 겨우 2달 동안 상연되었다.
참조 판본	월키 콜린스, 강봉식 옮김, 『월장석』, 동서문화사, 2003.
주제	막대한 유산의 분실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가족 관계와 계급 관계의 긴장
줄거리	헨커슬 대령은 식민지 인도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했다가 거대한 전설 속 다이아몬드 ‘월장석’을 손에 넣게 된다. 대령의 사촌 동생은 헨커슬이 다이아몬드를 위해 세 명의 인도인을 죽였다는 점을 기록에 남겼는데, 헨커슬의 형제들 또한 그를 경멸하고 멀리한다. 다이아몬드에 집착하며 평생을 살던 대령은 결국 여동생의 딸 레이첼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는데, 이는 레이첼과 그녀를 사랑하는 사촌 오빠들이 겪는 불운의 전조가 된다. ‘월장석’은 레이첼에게 넘겨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맞게 되고, 2만 파운드 상당의 이 어마어마한 보석을 되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된다.
논평	말라리아는 19세기 영국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이는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말라리아의 번창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빅토리아 시대 토닉은 원래 키니네quinine를 함유하고 있었는데, 진과 토닉을 함께 섞은 음료수는 습한 기후에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원기를 북돋아줄 뿐더러 항말라리아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월키 콜린스의 『월장석』에는 식민지 인도에서 온 의문의 다이아몬드가 등장한다. 캔디라는 이름의 말라리아 환자는 이 최초의 영문 탐정 소설에서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을 푸는 열쇠 중 하나로 등장하는데, 캔디는 다름 아니라 비에 폭 젖은 채로 환자 왕진을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린 의사이다. 이 작품에는 캔디의 말라리아의 치료법을 두고 당대의 의사들이 설전을 벌이는 흥미로운 풍경이 등장하는데, 즉 두 명의 연륜 있는 내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죽과 레몬수와 보리차 같은 것을 주는 게 좋다고 말하는 반면 캔디의 젊은 조수는 샴페인이나 브랜디, 암모니아, 키니네가 말라리아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당대에는 말라리아의 치료에 소위 ‘감식 요법’과 ‘자극 요법’이 사용되었던 듯 하며, 이때 키니네는 자극요법에 사용되는 물질이었다.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살아난 환자가 기억력을 잃는 등 ‘뇌와 신경계통’(545쪽)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인용문	“캔디 씨의 조수입니다.” 베텔레지는 말했다. “그런데 프랭클린님, 그 작달만한 의사가 만찬회에서 돌아가다가 비를 맞고 얻은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다고 하면, 도련님께서도 틀림없이 딱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몸은 그만 하면 나왔는데, 열 때문에 기억력을 잃었지 뭐니

까. 그 뒤로부터는 머리가 아주 나빠져서 모든 일이 조수에게 넘겨지고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제 몸도 갈무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룩 머리에 집시 피부를 한 자라도 참아야만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의사라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월키 콜린스, 강봉식 옮김, 『월장석』, 동서문화사, 2003, 473쪽.

베텔레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의사의 얼굴에서 그가 고통당하고 있던 중병의 손톱 자국을 보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방에 들어와서 나와 악수를 나누었을 때 내가 본 그 엄청난 변화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눈은 흐리멍덩하게 흐려 있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쪼그라들고 손가락은 말라 비틀어져 가늘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그가 저지른 사교상의 무분별함이며 늘 떠들어 대던 어린아이 같은 농담을 떠올리면서, 전에는 활발하게 말도 잘하고 익살스럽던 작달만한 의사를 바라보았다. 옛날 그대로의 화려한 옷차림 이외에는 아무데서도 옛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한낱 산 송장이었다.

-월키 콜린스, 강봉식 옮김, 『월장석』, 동서문화사, 2003, 532쪽.

“캔디 씨를 만나보니 병이 꽤 중했던 모양이지요?”

“기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지요.” 에즐라 제닝스 씨는 말했다. “선생님이 그 병을 이겨내고 살아나신 것은 말이에요.”

“캔디 씨의 기억력이 내가 오늘 보았을 때보다 좀더 나은 때는 없었습니까?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했습니다만…….”

“병나기 전의 일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는 내가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네.”

“과거 일에 대한 선생님의 기억력은 이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월키 콜린스, 강봉식 옮김, 『월장석』, 동서문화사, 2003, 539쪽.

“캔디 선생님이 애초부터 병나신 원인에 대해서는 당신도 물론 들으셨겠지요?” 그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벨린더 부인 댁에서 만찬회가 있었던 날 밤에 비가 몹시 많이 왔지요. 그 빗속을 포장도 없는 마차를 타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집에 닿았을 때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환자한테서 급한 전갈이 와 있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선생님은 곧장 그곳으로 가셨답니다. 나는 마침 그날 밤 프리징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사

는 환자한테 갔다가 붙잡혀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돌아와 보니 캔디 선생님의 말구종이 몹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 벌써 재난이 덮친 뒤였지요. 병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병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하게 열병이라고만 들었습니다만……” 하고 나는 말했다.

“나로선 그 이상 정확하게 진단할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열병은 특별히 색다른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곧이 마을에 있는 캔디 선생님의 의사 친구 중 두 분에게-두 분 다 내과 전문의입니다-증상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볼까 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심한 듯하다는 점에서 그분들과 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두 분 다 처방에 대해서는 나와 도무지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맥박에서 끌어낸 결론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의견이 갈라지고 말았지요. 두 분 선생님은 맥박이 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취할 조치는 단 한 가지, 감식(減食) 요법이라는 거였습니다. 나도 역시 맥박의 양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맥박이 놀라울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건 신체 조직의 쇠약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분명히 자극물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지요. 두 분 선생님은 환자에게 죽과 레몬수와 보리차 같은 것을 주는 게 좋다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나는 샴페인이나 브랜디, 암모니아, 키니네를 주는 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큰 의견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에서 명망을 쌓은 두 분 의사와 한낱 조수에 지나지 않는 뜨내기 사이의 의견 차이입니다! 처음 2, 3일은 나이로 보나 솜씨로 보나 나보다 나은 두 분에게 양보를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환자는 시시각각 쇠약해져 가는 거였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맥박을 증거로 하여 호소해 보았습니다. 맥박의 양진은 몇지 않으면서도 자꾸 약해져 가기만 했지요. 두 분은 내가 고집이 세다고 화를 내시며 ‘제닝즈, 이 환자는 우리가 돌볼까, 자네가 돌볼까, 어떻게 할텐가?’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5분만 생각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내 대답은 결정이 되어 나는 ‘선생님들은 기어이 자극 요법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요. 두 분은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부터 당장 그 요법을 써 보겠습니다, 선생님.’, ‘해보게나, 제닝즈.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자한테서 손을 떼겠네.’ 나는 당장 광으로 가서 샴페인을 가져오게 하여 큰 잔에 반쯤 따라 내 손으로 직접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두 분 의사는 말없이 모자를 집어 들고 집을 나가더군요.”

“당신은 중대한 책임을 진 셈이군요. 만일 내가 당신 입장에 놓였다면 틀림없이 망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이크 씨, 당신이 내 입장에 놓였다면 틀림없이 당신도 캔디 선생님이 일생 동안 자기 집 식객이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용해 주셨던 점을 상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내 입장에 놓였다면, 선생님이 시시각각 쇠약해져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 준 오직 한 분이 눈 앞에서 죽어가는 걸 묵묵히 보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모험을 해보자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중략) 그 날의 밤이 지났을 무렵, 환자의 상태가 아주 좋아졌으므로 나는 필요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24시간 중 그밖의 시간은 환자의 생명이 위험 상태에 있었으므로 나는 한 시도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해질 무렵이 가까워지자, 이런 병의 경우 흔히 있는 일이지만 환자는 일시적으로 정신착란 상태가 시작되었지요. 그것은 거의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윽고 그것은 우리들 건강한 사람이라도 생명력이 가장 저하되는 이른 새벽-2시에서 5시까지-이 되어서야 잠시 멎었는데, 죽음의 신이 인간의 먹이를 가장 많이 굶어모으는 게 바로 그 시각이지요. 죽음의 신과 내가 죽음의 자리가 될 침대를 사이에 두고 싸운 건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건 치료법을 계속할 것을 단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지면 브랜디를 썼고, 다른 자극물의 효과가 없어지면 약의 양을 배로 늘렸습니다. 긴 불안의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밝자 맥박의 양진은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하게도 맥박이 뛰는 데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틀림없이 또박또박 힘차게 맥이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였지요, 내가 선생님의 목숨을 구했다고 깨달은 것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버렸습니다. 가엾은 분의 앙상한 손을 침대로 돌려 놓고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월키 콜린스, 강봉식 옮김, 『월장석』, 동서문화사, 2003, 542~545쪽.

키워드	샬럿 브론테, 말라리아, 나쁜 공기(Miasma)
제목	『셜리Shirley』
장르	단편 소설
저자	샬럿 브론테(Charlotte Brontë, 1857~1924)
시기	1849년

참조 판본	Bronte Sisters, 'Shirley', Complete Novels of Bronte Sisters, Collector's Library Editions, 2012
주제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사회 속 여성의 역할.
줄거리	Robert Moore is a mill owner noted for apparent ruthlessness toward his employees - more than any other mill owner in town. He has laid off many of them, apparently indifferent to their resulting poverty. But in fact he has no choice, since the mill is deep in debt. The mill was inefficiently run by his late father and is already mortgaged. His elder brother became a private tutor, leaving Robert to restore the mill to profitability. He is determined to restore his family's honour and fortune.
논평	셜리의 주된 주제는 산업화로 인한 19세기 영국 사회의 변화이다. 말라리아는 당대 영국의 사회상, 특히 빈민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말라리아 외의 열병들은 가을에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인용문	<p>“하지만 그럼 대신 뭘 가져줄까요? 과일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입술은 바싹 말라있는게 보이네요. 어떤 음료수를 마시고 싶으신지?”</p> <p>“길 부인이 토스트와 물을 줍니다. 나는 그게 가장 좋아요.”</p> <p>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p> <p>“괴로우신가요? 고통이 있나요?”</p> <p>“아주 조금요.”</p> <p>“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만들었죠?”</p> <p>침묵.</p> <p>“나는 고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p>“나쁜 공기(Miasma), 혹은-말라리아요. 지금은 가을이죠. 열병이 기승을 부리는.”</p> <p>“내 듣기로 당신은 홀 씨와 함께 브라이어필드의 환자들을 자주 방문하신다고요. 너리의 환자들도요. 조심하셔야 해요. 무모함은 현명치 못해요.”</p> <p>“그 말씀을 하시니, 킬다르 양, 어쩌면 당신이 이 방에 들어오시거나 이 카우치 근처에 오시지 말아야 했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네요. 나는 내 병이 전염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혹은-” 그는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이 병을 옮아갈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협의 그림자라도 감수할 이유는 없지요? 떠나세요.”</p> <p>-출처 Bronte Sisters, 'Shirley', Complete Novels of Bronte Sisters, Collector's Library Editions, 2012 (번역DB 작성자김다혜)</p>

키워드	오스카 와일드, 말라리아, 늪, 물
제목	『어린 왕The Young King』
장르	단편 소설
저자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
시기	1891년
참조 판본	오스카 와일드, 김전유경 옮김, 『별에서 온 아이』, 팽귄 클래식 코리아, 2008.
주제	부유한 자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것들에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라는 대가가 따른다.
줄거리	16세의 어린 왕은 그리스 조각과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예술의 애호가이다. 며칠 후 왕은 금으로 만든 옷에 루비로 장식된 왕관, 진주가 박힌 홀(笏)로 치장하고 대관식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대관식 전날 어린 왕은 이 모든 금은보화와 아름다운 것들이 가난한 이들을 잔혹하게 착취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꿈을 통해 깨닫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어린 왕은 신하들이 바치는 아름다운 옷과 왕관을 사절하고, 이에 귀족들과 신민들은 왕이 왕답지 않게 행동한다며 반란을 일으킨다. 주교 또한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짊어지거나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린 왕에게 직분에 충실할 것을 조언한다. 이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와 어린 왕을 오색 빛으로 장식한다.
논평	이 작품에서 말라리아는 지배 계층의 호화로운 삶과 낭비벽을 지탱하기 위해 비참하게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빈민들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재로 쓰였다. 일종의 우화(fable)인 어린 왕의 첫 번째 꿈에서, 질병의 신은 욕심을 부리는 탐욕의 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강가의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다. 이들을 죽이는 첫 번째 수단인 말라리아는 무려 노동자의 삼분의 일을 죽이는 강력한 전염병으로 그려진다.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노동자들이 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작품에서 말라리아는 물(水)과 연관되어 표상된다. 죽음의 신은 말라리아를 불어내기 위해 물웅덩이에 물잔을 담갔다가 꺼내며, 학질이 지나간 자리엔 차가운 안개와 물뱀이 따른다. 또한 질병의 신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대가로 탐욕의 신에게 옥수수 한 알을 나눠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빈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장면은, 탐욕스러운 부유층이 가난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나눠주는 것도 거부한 결과 질병이 만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인용문	왕은 숲이 거의 끝나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말라버린 강바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미

	<p>처럼 바위를 기어오르는가 하면,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도끼로 바위를 쪼개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래 속을 네 발로 기고 있었다. 그들은 선인장을 뿌리채 뽑고, 거기에 핀 진홍색 꽃을 마구 짓밟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대며 서둘러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한가하게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p> <p>어두운 동굴 속에서 죽음의 신과 탐욕의 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p> <p>“나는 지쳤소. 저들 중 삼 분의 일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시오.”</p> <p>그러나 탐욕의 신은 머리를 저었다.</p> <p>“저들은 내 하인들이다.”</p> <p>그러자 죽음의 신이 말했다.</p> <p>“그대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p> <p>“옥수수 세 알이다.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 하고 탐욕의 신이 대답했다.</p> <p>“내게 하나만 다오. 내 정원에 심을 딱 한 알이면 된다. 그러면 나는 떠날 것이다.”</p> <p>“나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탐욕의 신은 이렇게 말하며 옷의 주름 사이로 손을 감췄다.</p> <p>그러자 죽음의 신은 웃으며 잔을 하나 가져오더니 물웅덩이에 담갔다 들어 올렸다. 잔에서 학질이 나왔다. 학질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자 그중 삼 분의 일이 쓰러져 죽었다. 차가운 안개가 학질의 뒤를 따랐고, 그 옆에는 물뱀들이 우글거렸다.</p> <p>-오스카 와일드, 김전유경 옮김, 『별에서 온 아이』, 펭귄 클래식 코리아, 2008, 113쪽.</p>
--	--

키워드	이디스 워튼, 말라리아, 로마 열병, 페럼
제목	『로마 열병Roman Fever』
장르	단편 소설
저자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 1862~1937)
시기	1934년
참조 판본	Edith Wharton, Roman Fever, Charles Scribner's Sons, 1964.
주제	두 중년 여인 사이의 우정과 질투
줄거리	최근 남편과 사별한 앤슬리 부인과 슬레이드 부인은 오랜 친구로, 딸들과 함께 로마에 머물고 있다. 사교적이고 당당한 성격의 슬레이드 부인은 지루하고 조용한 앤슬리 부부가 어떻게 자신의 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소녀 바바라를 낳았는지 의아해 한다. 한가롭게 로

	<p>마의 오후를 즐기던 두 부인은 문득 딸들 모습에서 자신들의 소녀 시절을 연상하게 되고, 이미 작고한 슬레이드 씨를 두 사람 모두 연모했었다는 기억이 수면에 떠오르면서 긴장이 흐르기 시작한다. 슬레이드 부인은 수십 년 전 처녀였던 앤슬리 부인이 부모 몰래 밤 외출을 나갔다가 로마 열병에 걸린 이유를 캐묻기 시작한다.</p>
<p>논평</p>	<p>헨리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이디스 워튼은 로마에 거주 중인 미국인들을 주인공 삼아 로마 열병(말라리아의 한 종류)의 유행을 그렸다. 『데이지 밀러』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라리아는 부모의 통제나 사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인과 밀회를 즐기는 젊은 상류층 여성들을 노리는 무서운 질병으로 그려진다.</p>
<p>인용문</p>	<p>“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슬레이드 부인이 천천히 말했다. “다른 세대의 여행자들에게 로마가 서로 다른 걸 의미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조모님들에게 로마란 로마 열병을 상징했지.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감상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의 위험-우리가 얼마나 과잉보호를 받았는지!-을 뜻했고. 우리 딸들에겐 메인 스트리트 중심가 이상의 위험은 없지. 이 아이들은 몰라.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p> <p>하늘의 기다란 금색 빛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앤슬리 부인은 뜨개질 감을 눈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과잉보호를 받았는지!”</p> <p>“난 늘 이렇게 생각했어,” 슬레이드 부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의 조모님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어머니 노릇을 했을 거라고. 로마 열병이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위험한 시간에 소녀들을 집 안으로 거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야. 하지만 너와 내가 젊었을 땐,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고, 반항이란 양념이 더해졌고, 해가 진 뒤 서늘할 때에도 감기에 걸리는 것 이상의 위험은 없었으니, 어머니들이 우리를 집안에 두려고 애쓰시느라 고생하셨을 거야. 안 그래?”</p> <p>-Edith Wharton, Roman Fever, Charles Scribner's Sons, 1964, p.16. (번역 DB 작성자 김다혜)</p> <p>“해가 졌네. 두렵지는 않지?”</p> <p>“두렵다니-”</p> <p>“로마 열병이나 폐렴이 말이야? 그 해 겨울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하고 있어. 소녀 적에 넌 참 예민한 목을 가졌더랬지. 그렇지?”</p> <p>-Edith Wharton, Roman Fever, Charles Scribner's Sons, 1964,</p>

	<p>p.18. (번역 DB 작성자 김다혜)</p> <p>“아, 그래 대고모 해리엇. 밤에만 피는 꽃을 앨범에 수집해 넣으려고 어린 여동생을 해진 뒤 광장으로 보냈다는 대고모 말이야. 내 대고모들과 할머니들은 모두 말린꽃을 모아놓은 앨범을 가지고 있었어.” 슬레이드 부인이 끄덕였다. “하지만 사실 그 대고모는 여동생과 같은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동생을 광장으로 보낸 거지-”</p> <p>“글쎄 그건 가족의 전통이었어. 사람들이 말하길 해리엇 대고모가 몇 년 뒤에 고백했다고 하더라. 어쨌거나 그 불쌍한 어린 동생은 열병에 걸려서 죽었어.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때 이 이야기로 겁을 주곤 하셨지.”</p> <p>-Edith Wharton, Roman Fever, Charles Scribner's Sons, 1964, p.18. (번역 DB 작성자 김다혜)</p>
--	---

키워드	헨리 제임스, 말라리아, 로마 열병
제목	『데이지 밀러Daisy Miller』
장르	중편소설(Novella)
저자	헨리 제임스 (Henry James, 1843~1916)
시기	이 중편 소설은 1878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콘힐 매거진Cornhill Magazine』에 연재되었으며, 이듬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참조 판본	헨리 제임스, 최인자 옮김, 『데이지 밀러』, 팽귄클래식코리아, 2009.
주제	유럽으로 대표되는 구세계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세계의 문화적 충돌과 갈등.
줄거리	유럽에 거주하는 상류층 남성인 윈터본은 제네바의 휴양지에서 매력적이고 스스럼없는 젊은 여인 데이지 밀러를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교계 사람들은 지나치게 꾸밈이 없는 데이지의 태도를 신흥부자의 그것이라고 생각하여 경멸한다. 윈터본 또한 데이지가 이탈리아 남성과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크게 실망한다. 결국 사교계는 데이지를 추방하는데, 데이지는 관습에 저항하듯 보란 듯이 자유를 즐기다가 결국 ‘로마 열병’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한다. 윈터본은 데이지가 사실 데이지라는 꽃말 그대로 순수한 아가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논평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 데이지 밀러는 ‘로마 열병Roman fever’에 걸려 사망하는데, 이는 19세기 경 수많은 로마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말라리아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젊고 순수한 미국 여성의 목숨

	<p>을 앓아간 이 질병은 인습에 물든 상류층 사람들의 악의에 찬 시선과 소문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타락한 유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p>
<p>인용문</p>	<p>“여기 얼마 동안이나 있었습니까?” 그는 거의 투명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테이지는 아른거리는 달빛 아래 귀여운 모습을 하고 그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녁 내내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윈터본이 말했다. “바로 이렇게 하다가 열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는 조바넬리를 향해 돌아서며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 로마인이면서 이렇게 무분별한 짓에 동조하니 놀랍군요.” “아, 저 자신에 대해서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략) “전 여태까지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젊은 아가씨는 딱 잘라 말했다. “전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만 양지만 건강한 편이에요. 전 달빛 비치는 콜로세움을 꼭 볼 생각이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우린 최고로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지 않나요, 조바넬리 씨? 설사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유제니오가 약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신통한 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충고를 드리지요.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약을 드세요!” -헨리 제임스, 최인자 옮김, 『테이지 밀러』, 펍킨클래식코리아, 2009, 162~163쪽. “어서 가요, 어서. 자정까지만 도착할 수 있다면, 우린 무사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테이지는 마차에 올라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운 좋은 이탈리아인도 그녀 옆에 앉았다. “유제니오의 알약을 잊지 말아요!” 윈터본이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난 상관없어요. 로마의 열병에 걸리든지 말든지!”</p>

	<p>-헨리 제임스, 최인자 옮김, 『데이지 밀러』, 펭귄클래식코리아, 2009, 165쪽.</p> <p>“밤늦게 돌아다녔기 때문이에요.”</p> <p>랜돌프가 말했다.</p> <p>“누나가 병이 난 것은 그 때문이라고요. 누나는 항상 밤에 돌아다녔죠. 저는 누나가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지독하게 깜깜하니까요. 달이 뜨지 않으면, 여기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국에서는 항상 달이 뜨는데!”</p> <p>밀러 부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지가 중병을 앓고 있는게 분명했다.</p> <p>-헨리 제임스, 최인자 옮김, 『데이지 밀러』, 펭귄클래식코리아, 2009, 166쪽.</p> <p>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 가엾은 아가씨는 세상을 떠났다. 열병으로 인한 끔찍한 사례였다. 데이지의 무덤은 제정 로마 시대의 성벽 한 귀퉁이에 있는 신교도들의 조그만 공동 묘지 내에 있었으며, 삼나무와 무성한 봄꽃으로 뒤덮여 있었다.</p> <p>-헨리 제임스, 최인자 옮김, 『데이지 밀러』, 펭귄클래식코리아, 2009, 168쪽.</p>
비고	영화(1974)화 됨

키워드	헨리 제임스, 말라리아
제목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
장르	장편소설
저자	헨리 제임스 (Henry James, 1843~1916)
시기	이 작품은 1880년에서 1881년에 걸쳐 『애틀랜틱 먼슬리』와 『맥 밀란 매거진』에 연재되었으며, 1881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참조 판본	
주제	
줄거리	19세기 말, 매력적이고 자존심 강한 이자벨은 백부의 죽음으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그간 수많은 청혼을 뿌리쳐 온 그녀는 이탈리아 여행 중 오스몬드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이자벨은 오스몬드와 그의 정부인 멜 부인이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논평	헨리 제임스의 다른 작품 『데이지 밀러』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말라리아는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로마와 연관되어 표상된다. 물론 말라리아가 핵심 인물의 죽음 및 결말과 연관되는 『데이지 밀

	<p>러』와는 다소 다르게 말라리아는 사소하게 언급될 뿐이지만, 당대 유럽 사람들, 심지어 귀족과 같은 상류층에게도 말라리아는 상당히 위협적인 일상 속 질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말라리아는 이탈리아 주민들 뿐 아니라 수시로 매력적인 이탈리아 도시들(로마, 피렌체 등)을 방문하는 영국인이나 미국인, 다른 유럽인들에게도 상당한 위협이었다.</p>
인용문	<p>“인터뷰를 하는 이가 실망했을 지도 모르지만, 헨리에타는 최소한 유럽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현재 목표는 말라리아가 올라오기 전에 로마로 내려가는 것이었다-그녀는 분명 말라리아가 정해진 날에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플로렌스에서 당장 며칠만을 머물 예정이었다. 뱅틀링 씨는 헨리에타와 함께 로마에 갈 예정이었고, 그녀는 이자벨에게 뱅틀리씨가 로마에 이미 가본 적이 있고 또 군인이며 고전적 교육을 받았으므로-미스 스탭폴에 의하면 뱅틀링 씨는 라틴어와 화이트-멜빌(Whyte-Melville)만을 공부하는 이튼에서 교육을 받았다-그는 카이사르들의 도시에서 가장 좋은 동행인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VOLUME 1 CHAPTER XXVI) (번역 DB 작성자 김다혜)</p>
비고	<p>이 작품은 1968년 BBC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1996년에는 뉴질랜드 출신 감독인 제인 캠피온이 니콜 키드먼, 존 말코비치 등을 주연 배우 삼아 영화화하였다.</p>

키워드	조셉 콘래드, 암흑의 핵심, 어둠의 속, 말라리아, 식민지, 제국주의, 강
제목	『어둠의 속Heart of Darkness』
장르	단편 소설
저자	조셉 콘래드(Joseph Conrad, 1857~1924)
시기	1899년
참조 판본	조셉 콘래드, 나영균 옮김, 『어둠의 속』, 문예출판사, 2004.
주제	이 소설의 화자 말로우는 유럽인들이 '암흑의 대륙'이라고 부른 아프리카의 향해를 통해, 탐험을 동경해 온 자신의 꿈이 궁극적으로는 위장된 제국주의적 꿈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김성곤,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줄거리	젊은 시절 벨기에 령 콩고의 한 회사에 선장으로 취직한 말로우는 우여곡절 끝에 콩고 강 상류의 오지로 가서 '커츠(Kurtz)' 라는 이름의 주재원을 데리고 나온다. 커츠는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 과학과 진보의 사절로 자처했지만, 실상은 문명을 벗어난 어둠의 오지에서 온갖 무자비한 수단을 동원해 상아를 긁어모으고, 총으로 원주민

	<p>들을 제압하여 살아 있는 신으로 군림한 인물이다.</p>
<p>논평</p>	<p>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바 있는 커츠가 사실 말라리아로 사망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콘래드는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의 강 위에서 미지의 질병과 필사의 투쟁을 벌이는 커츠의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커츠의 생명력을 천천히 앗아가는 말라리아의 힘을 바다로 흘러가는 콩고의 '갈색 강물'에 비견한 장면은 일품인데, 즉 열대 질병 말라리아는 흔히 그렇듯 강이라는 '물'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동시에 열대의 땅 아프리카의 탁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환기시킨다.</p> <p>동시에 말라리아는 유럽 외의 대륙을 식민지 삼아 잔혹하게 착취하는 제국주의의 폐해를 상징한다. 제국주의자 유럽인의 전형인 커츠를 죽인 것이 다름 아닌 말라리아라는 사실은 상징적인데, 즉 그는 병 때문에 열이 오른 상태에서 "자신의 내부", 즉 제국주의의 심장, 제목 그대로 "암흑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문자 그대로 공포를 느끼고 미치게 된다.</p>
<p>인용문</p>	<p>그가 있는 데까지 갔는데 그가 내가 오는 소리를 못 들었더라면 그 위에 넘어질 뻔했어. 하지만 커츠가 미리 일어났어. 대지가 내뿜는 증기처럼 비틀비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더니,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안개에 싸여 말없이 희미하고 길쭉하게 내 앞에서 서 있었어. 한편 내 뒤에서는 불꽃이 나무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고, 삼림에서는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난 교모하게 그를 가로막았지만 실지로 그와 마주서자 정신이 들어서, 그제야 정작 얼마나 사태가 위험한가를 깨달았어. 위험은 결코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던 거야. 그가 소릴 지르기 시작한다면? 그는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음성에는 아직도 기운이 많았으니 말이지. '저리 가서-숨어'하고는 그는 그 구성진 음성으로 말했어. 아주 무시무시하더군. 난 뒤를 돌아다봤어. 우리는 제일 가까운 불에서 30미터도 못 되는 곳에 있었어. 붉은 불빛 속에서 길고 검은 형상이 두 다리로 일어서더니, 길고 검은 팔을 휘저으면서 걸어 다니는 거야. 머리에 뿔이 달렸더군-양 뿔이었다고 생각해. 무슨 마술사나 무당이었겠지. 말할 것도 없이 말이야. 흡사 마귀처럼 보이더군.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오?'하고 난 소곤소곤 말했어. (중략)</p> <p>그렇다고 내가 미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믿건 말건 그의 정신은 완전히 맑았어-무섭게 강렬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맑긴 맑았던 말이야. 그리고 나의 유일한 기회도 바로 그 점에 있었어-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는 것을 막아준 것도 바로 이 점이었어. 피할 수 없이 소</p>

리가 날테니 죽이는 것은 재미가 적었어. 한데 그의 영혼은 미쳐 있었어. 황야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 보았던 거야. 그리고 정말이지 미쳐버린 거야! (중략) 실은 뼈가 앙상한 그의 팔을 내 목에 감고 그를 부축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야-어린애보다 별로 무겁지도 않았어.

출처-조셉 콘래드, 나영균 옮김, 『어둠의 속』, 문예출판사, 2004, 127~130쪽.

갈색의 물결은 어둠 속에서부터 재빨리 흘러나와 거슬러 올라갈 때의 두 배의 속도로 우릴 바다 쪽으로 싣고 갔어. 커츠의 생명도 그의 심장에서 빠져나와 가혹한 시간의 바다 속으로 급속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 (중략) 커츠는 이야길 했어. 음성! 하나의 음성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음성은 우렁차게 울렸어. 그의 가슴 속의 황막한 어둠을 당당한 웅변의 우리 속에 감춰두기 위해서 음성은 그의 생명력보다 오래간 거야. 아아, 그는 싸우고 또 싸웠어! 그의 폐물이 되다시피 한 지쳐빠진 뇌에는 지금 그림자 같은 환상이 오가고 있었어-

출처-조셉 콘래드, 나영균 옮김, 『어둠의 속』, 문예출판사, 2004, 132~133쪽.

어느 날 저녁 때 내가 촛불을 들고 들어가니까, '난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누워 있다'하고 그가 약간 떨리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려 깜짝 놀랐어. 촛불이 그의 눈에서 30센티도 못 되는 곳에 있었어. 난 억지로 '쓸데없는 소리!'하고 중얼거리면서 얼어붙은 듯이 그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어.

그때 그의 용모에 일어난 변화는 그 비슷한 것도 본 일이 없고, 또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아아, 감동한 것은 아니야. 황홀했던 거지. 마치 얇은 장막이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 상아 같은 얼굴에 엄숙한 자존심과 무자비한 권력, 심약한 공포심-심각하고 가망 없는 절망의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본 거야.

이 지고의 완벽한 깨달음의 순간에 욕망과 유혹 그리고 굴복을 살살이 빠짐없이 다시 되풀이하여 경험하고 있었던 말인가? 그는 어떤 환상, 어떤 환영을 보고 속삭이듯 외쳤어-두 번 외쳤는데 숨결 소리만한 외침이었어-'무서운 일이야! 무서운 일!(The horror! The horror!)" '하고.

출처-조셉 콘래드, 나영균 옮김, 『어둠의 속』, 문예출판사, 2004, 135~136쪽.

비고	이 작품은 1979년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에 의해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이라는 이름으로 개작되었다. 콘래드의 원작이 식민지와 식민주의의 무서움을 형상화했다면, 이 영화는 베트남 전쟁의 비참함과 실상을 폭로한 작품이다.
----	---

키워드	박경호, 말라리아, 균, 식민지, 일제시대
제목	「의문의 말라리아균」
장르	단편 소설, 연재소설, 탐정소설
저자	박경호(1908~1937)
시기	1939, 9월 『농업조선』 연재, 1963년 『국민보』에 재연재(개작).
참조 판본	박경호, 「의문의 말라리아균」, 『국민보』, 1963.
주제	경성 경찰서 사범계 주임 박순철과 명탐정 곽용학 형사는 의문의 말라리아 발병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밝혀낸다.
줄거리	경성 경찰서 사범계 주임 박순철과 명탐정 곽용학 형사는 말라리아 단체 발병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의사에 의하면, 환자들이 걸린 '열대 말라리아'는 조선에 흔한 말라리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의사는 병균의 출처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하고, 지금 나라가 전시에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친 경찰들은 충격에 빠진다. 이들은 이 의심스러운 말라리아균이 어떤 경로로 침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논평	1939년에 쓰여진 이 탐정소설은 말라리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해를 보여준다. 저자 박경호는 이미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 매개되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말라리아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균의 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아실 테지만은 말라리아는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맨 처음에는 말라리아 모기란 놈이 그 균을 매개합니다. 이렇게 체내에 들어온 말라리아균은 소위 말라리아 플러스 모디움이 형성되어 놈이 배양되어 가지고 천천히 적혈구를 잡아먹는 데 이걸 소위 삼일열 말라리아라고 하여 우리 조선도 흔한 것인데 보통 금계랍이나 수혈 같은 방법으로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탐정 소설에서 말라리아가 적국 스파이가 퍼트린 일종의 '생화학 무기'로 의심받는다라는 점이 매우 재미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라는 작품 속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당대 일본이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시의 긴장감이 팽배했고, 따라서 스파이 소설이나 영화 등이 유행이었다. 말라리아 발병의 원인이 결국 아편 중독자들의 주사기 공유로 밝혀지는 결말 또한 당대의 풍속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저자 박경호나 독자들이 주사기를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p>적인 의학 지식과 상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등장인물인 윤박사가 “신성한 의료 과학의 정신“을 강조하는 대목 또한 주목할 만하다.</p>
인용문	<p>경찰서 사범계 주임 박순철과 범인 수사에 명탐정으로 유명한 곽용학 형사는 오전 아홉 시 ××병원 무료병실 제 일백오 호에 입원해 있는 세 사람의 환자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섰다. 이 두 경관을 안내하는 길동엽은 작년 봄 모 의전을 졸업하고 이 병원에 인턴 실습생으로 와있는 청년 의사이다.</p> <p>“이 세 사람은 바로 나흘 전에 입원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말라리아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는지 모릅시다하는 이 사람들은 소위 매일 열 말라리아 즉 열대 말라리아에 감염된 환자인데 모두가 절망상태입니다. 체온이 근 五十一도나 되어 저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성한 말라리아균이 적혈구를 급속도로 파괴하는 까닭으로 얼굴이 저 모양으로 흠뻑 같습니다. 백혈구의 수효가 적혈구에 비하여 많아 질수록 환자는 쇠약해지니까요.“</p> <p>아픔과 고열을 견딜 수 없이 붉은 눈알을 부라리고 두 손을 공중으로 허우적거리며 허튼소리를 연해하는 이 세 사람의 꼴은 냉정한 심리의 소유자인 이 두 사람의 경관에게도 자못 끔찍하고 가련한 광경이었다. 박 주임, 곽 형사, 길 의사 세 사람은 우울과 침묵에 잠겨 그 병실을 나서서 긴 복도를 지나 뒷문 밖 꽃밭 옆으로 나갔다. 구월 아침의 잔디는 너무나 포근하고 이슬 개인 공기는 무한히도 부드럽다. 길 의사는 가볍게 떨어지는 포플러 잎사귀를 발로 문지르며 다시 설명을 한다.</p> <p>“아실 테지만은 말라리아는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맨 처음에는 말라리아 모기란 놈이 그 균을 매개합니다. 이렇게 체내에 들어온 말라리아균은 소위 말라리아 플러스 모디움이 형성되어 놈이 배양되어 가지고 천천히 적혈구를 잡아먹는 데 이걸 소위 삼일연 말라리아라고 하여 우리 조선도 흔한 것인데 보통 금계랍이나 수혈 같은 방법으로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p> <p>길 의사는 켈련을 한대 붙이고 나더니 다시 “그렇지만 이제 보신 그 세 환자와 또 이 병실 二七五호에 있는 환자는 우리 일본뿐 아니라 온대지방에서는 거의 없는 열대 말라리아라는 것입니다. 두 분을 오십사 한 이유가 이점에 있습니다. 요점만을 말씀하면 이 환자들은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자체의 혈액 속에서 생겨 가지고 저 모양이 되었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조선에는 열대 말라리아균을 매개하는 모기가 없을뿐더러 조선의 의학사상에 그런 데가 도무지 없습니다.“</p>

여기까지 듣고 있던 박 주임은 비로소 입을 연다.

“나는 의학에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말라리아 병에 대하여도 도무지 모르지요. 그러나 노형은 의사이니까 짐작이 가실 게 아닙니까. 가령 어떤 경로로 이 환자들이 그 균을 체내에 받았는지-어쨌든 말라리아균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출처: 박경호, 「의문의 말라리아균」, 『국민보』, 1963년 1월 30일

“그 점에 대하여는 이 병원 당국자는 고사하고 또 위생과에서도 두 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험한 수수께끼지요. 만일 이것을 시작할 때에 방어하지 않으면 큰 변괴로 확대될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 과거에도 이런 환자가 있었던 말이지요?”

“없었습니다. 조선뿐 아니라 어떤 온대지방에든지 대변에 매일 열로 시작하는 말라리아는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어느 사람의 환자를 받은 후 내지는 물론 말라리아 병이 그중 많은 아프리카 지방과 동 푸도시 지방에까지 정보로 알아보았으나 이렇다하는 회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라리아균의 자가 발생이란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인걸요.”

“허허. 그러나 어디서 온 데가 있을 게 아니겠소. 그 병균이 이렇게 이 환자들의 혈액 속에 들어갔느냐 말이요. 어떤 힌트든지 붙잡아서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할는지를 알아야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 아니겠소.”

곽 형사는 다소 흥분된 음성으로 말한다. 길 의사는 좀 난처하다는 듯이 껌연 쑹지를 내던지며, “그러기에 말씀이지요. 그 점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병원 실험실에서 다른 데서와 같이도 실험관 속에 각종의 병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환자들이 우리 실험실에서 전염되었을 리는 더구나 없는 일이구요.”

길 의사는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머뭇머뭇하더니 아주 낮은 음성으로 “하지만 만일 두 분께서 저의 미련한 의견이라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에?” 두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너무 황당한 말일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병원 당국에 대하여 다소 무책임한 진술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지요. 지금은 어떠한 의견이라도 있으면 결코 주저할 경우가 아닙니다. 칠십만 부민의 사활문제가 아닙니까. 자 어서 말씀하십시오.”

두 형사는 권유 절반 강박 절반의 어조로 재촉을 하는 것이다. 길 의사는 역시 난처하다는 듯이 잠시 주저하더니 사면을 돌아 보고나

서 가만가만히 말한다.

“저로서는 다만 한 가지 추측밖에는 딱 도리가 없습니다. 즉 어떤 악한 혹은 스파이가 이 경성에 잠입해 가지고 자기가 해한 인물에게 균을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에?“ 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는 두 형사는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

이제 겨우 실습생으로 있는 젊은 의사의 입에서는 어디까지나 과학적 이론이나 나오리라고 생각하였던 끝에 실로 뜻하지 않은 큰 사건이 벌어지는 듯 더구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말이 황당한 추측만이라 하더라도 그냥 돌려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전술이었다. 다사더 이론이나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제는 조사 진행의 길이 남았을 뿐이다.

-출처: 박경호, 「의문의 말라리아균」, 『국민보』, 1963년 2월 6일

“물론 선생님께서도 그 말라리아 환자에 대하여 걱정이 되시겠죠.“ 유 박사는 머리를 끄덕끄덕하면 “애-중대한 환자라기보다 지금은 중대한 국가적 문제로 화하려는가 보오. 애-오늘 아침에 총독부 위생과와 헌병대를 방문하였는데 당국자들은 대부분 시국적 각도로 관찰하여 적국 스파이의 계획적 행위로 단정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경찰부와 연락을 취할 터이지요.“

“스파이의 계획적 행동이라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혹시 지나(중국)계통 혹은 소련계통의 행위이겠습니까.“

“허허, 그건 내게 물을 말이 아니요. 나는 일개 의사요 학자니까 이 문제를 학술적 각도에서 밖에는 관찰을 할 수가 없는 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즉 이건 첫째 우리 병원의 체면문제이고 만일 스파이설이 근거가 있다면 국가적으로 보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xxx 병원에도 꼭 같은 환자가 들어왔다죠.“

유 박사는 눈이 휘둥그래지며,

“누가 그렇디까. 천만에 xxx 병원에 말라리아 환자는 우리 병원의 환자와 성질이 다른 것이요. 그들은 보통 말라리아로 이 경성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환자이지요. 그리고 그 환자들은 치료의 성적이 아주 양호하다는 걸요.“

“에 그러면 매일 열 말라리아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글세, 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소만 xxx 병원의 환자는 격일 열 말라리아인 것이 확실하게 판명되었으므로 우리 병원의 말라리아는 아무 관계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중에서 둘은 죽고 넷은 지금 위독 상태에 있어 어쩔 수가 없는데 여섯째 사람이 들어온 지가 한

주일이나 되었건만 그 후에는 더 발생하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라 할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이 병원 근처 앞뒷집에 사는 이웃 간이라는 사실을 선생님께서는 아실 터이지요.“

“글쎄 그런가 보요.“

“그러면 이 병의 근원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론을 주장하시나요.“

“아무 이론도 없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았으나 도무지 알 길이 없소이다. 나의 병원생활 삼십 년에 처음이니깐요. 나뿐 아니라 세계 어떤 병원에든지 이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박경호, 「의문의 말라리아균」, 『국민보』, 1963년 3월 6일

동시에 형사대 한패는 이 환자들의 가택을 일일이 수색하였다. 그리고 형사는 이애라를 호출하여 가장 맹렬한 추궁을 한 결과 그렇듯이 영리하고 교활한 그녀의 입에서도 할 수 없이 자백을 하고야 말았다. 즉 이때까지 들어온 보고를 보면 [이 말라리아 환자들은 다수로 천한 친구들이다. 그리고 모두가 지독한 모히(morphine의 준말) 중독자이다. 또 이애라도 그 패거리의 한 사람으로 거의 절망적인 중독자이다. 그런데 그들은 돈이 없어서 각각 약을 살 수가 없음으로 이따금 한푼 두푼 모아서 약을 사다가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박 주임은 곱 형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곱 형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이 이렇다 하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에 말라리아균이 섞인 약을 나눠 마셨다고 하면 어째서 유독 애라만은 멀쩡하겠느냐 말이지요.“

곱 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문제라 하겠는데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한 사람이죠.“

“누구?“

“XX 병원장 윤우제.“

곱 형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윤 박사는 한참이나 곰곰 생각하더니 한숨을 깊으면서

“네-대강 짐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앞에서 제가 길 의사를 심문할 테니 용서하시겠소.“

윤 박사는 길 의사를 곧 불러들였다. 길동엽이는 실험복을 입은 대로 몹시 창백한 얼굴과 꼭 다문 입술로 조용히 들어와 윤 박사에게 예를 한다.

“길군, 이 양반들을 아시겠지. 경찰서에서 온 양반들이야.”
 길 의사는 두 형사에게 목례를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빛이 없다.

“길군.“하고 기야 의사를 쳐다보는 늙은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대단히 중대한 일로 해서 자네를 오라고 한 것인데 자네와 나의 명예 또는 신성한 의료 과학의 정신을 위하여 자네 일신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고백할 양심이 있는가.”

“네. 사실대로 고하겠습니다.”

“길군 자네 약혼자가 만약 중독자이고 또 지금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데 자넨 어째서 그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았나.”

길 의사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시체같이 무색하다.

“예. 저도 모르는걸요. 무엇 때문에 경찰서-“

이때에 곽 형사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여보. 노형은 윤 박사에게 사실대로 고하기로 맹세하지 않았소. 당신이 이애라 씨가 중독자인 줄 몰랐단 말이 참말이오. 그래, 이애라가 길바닥에서 마약 사는 것을 보고 약을 뺏어 버리고 이애라를 때리고 약장수를 쫓아버린 사람이 당신이 아니더란 말이오.”

길 의사의 머리는 하잘 턱없이 숙여졌다.

“길군, 그게 참말인가.”

윤 박사는 목 메인 소리로 겨우 말을 한다. 길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길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게. 내가 지금 자네를 구하겠다고 약조는 할 수 없네 만은 아직 알지 못하는 수의 환자와 또는 우리 의학계에 명예를 구할 능력과 책임이 지금 군에게 있는 것일세. 자네의 약혼자가 자네 실험실에 들어왔던 일이 있나.”

“네.“ 하고 길 의사는 침을 생난다.

윤 박사의 얼굴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수억만의 병균이 있는 그 실험실에.”

길 의사는 숙였던 얼굴을 갑자기 들더니

“네, 바른 대로 말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애라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음.”

“애라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저에게 돈을 자꾸 청구하지만 혹시 그 몫쓸 버릇을 고쳐줄까 하고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악몽을 다시 생각해 내려는 듯이 길 의사는 잠깐 동안 생각

	<p>하더니</p> <p>“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어요. 여전히 ○, ○정 모루히 내 친구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런데 하루는 제 실험실에 들어와서 주사기를 훔쳐 내갔습니다. 이 주사는 말라리아균을 동물에게 주사할 때에 쓰던 것입니다.”</p> <p>“음.” 윤 박사와 두 형사는 이 조용한 젊은 의사의 고백에 모조리 눈이 둥그래서 서로 쳐다보고 있다.</p> <p>“처음 환자 네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저는 곧 알아챈 것입니다. 즉 애라가 그 주사기를 갖다가 첫 사람에게 빌려주고 또 그 다음 다음 해서 일곱 사람이나 그 주사기를 사용했습니다.</p> <p>“그럴 것이면 당신의 약혼자는 어떻게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소.”</p> <p>“네. 애라가 제 실험실에 왔다간 지가 아마 약 한 달 전인데 그때에도 제가 남몰래 데리고 아파트로 가서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서 실상 주사기를 뺏어 가지고 나온 것을 몰랐으나 애라의 일거일동을 엄히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사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에게 맨 처음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p> <p>“그 주사기는 어찌되었소?”</p> <p>“네. 환자 네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자 저는 곧 그 사실을 짐작하고 애라에게 엄히 문초를 하여 그 주사기 있는 곳을 알아 가지고 뺏어다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럼으로 이제부터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p> <p>-출처: 박경호, 「의문의 말라리아균」, 『국민보』, 1963년 3월 27일</p>
--	---

키워드	김유정, 학질
제목	『만무방』
장르	단편 소설
저자	김유정(1908~1937)
시기	1935.7.17~31, 『조선일보』 연재
참조 판본	김유정, 『동백꽃』, 글누림, 2007.
주제	일제 식민지하 농촌의 착취 체제에 내재하는 모순을 겨냥.
줄거리	<p>응칠은 부채 때문에 파산을 선언하고 아우인 응오의 동네로 와서 무위도식하는 인물이자 도박과 절도에도 손을 댄 전과자이다. 응오는 형과 달리 순박하고 성실한 농군이지만, 지주의 탐욕과 착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돈이 없는 응오는 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치성도 드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p> <p>결국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청년’ 응오는 추수를 아예 거부하기에</p>

	이른다. 한편 추수되지 않고 버려진 응오 논의 벼를 누군가 훔쳐가기 시작한다. 형 응칠은 범인을 잡으려고 논 가까이 숨어 밤을 새운다. 깊은 밤중 격투 끝에 도둑을 잡고 보니 범인은 바로 응오였다. 응오는 울음이 복받쳐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라고 반문한다.
논평	여기서 ‘학질’은 ‘질색’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인용문	“그러나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였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였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답에는 절도로, 절도로-” 김유정, 『동백꽃』, 글누림, 2007, 84쪽.

키워드	찰스 디킨스, 말라리아
제목	『The Life and Adventures of Martin Chuzzlewit』
장르	장편소설, 피카레스크 소설
저자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1812~1870)
시기	1843~1844 년에 걸쳐 연재되었다.
참조 판본	
주제	
줄거리	<p>Young Martin, meanwhile, has fallen in with Mark Tapley. Mark is always cheerful, which he decides does not reflect well on him because he is always in happy circumstances and it shows no strength of character to be happy when one has good fortune. He decides he must test his cheerfulness by seeing if he can maintain it in the worst circumstances possible. To this end, he accompanies young Martin to the United States to seek his fortune. The men attempt to start new lives in a swampy, disease-filled settlement named “Eden“, but both nearly die of malaria. Mark finally finds himself in a situation in which he can be considered a virtuous and remaining good spirits. The grim experience, and Mark’s care nursing Martin back to health, changes Martin’s selfish and proud character, and the men return to England, where Martin returns penitently to his grandfather. But his grandfather is now under Pecksniff’s control and rejects him.</p> <p>Mark Tapley, the good-humoured employee of the Blue Dragon Inn and suitor of Mrs. Lupin (the Dragon’s owner), leaves that establishment in order to find work that’s more of a credit to his character: that is, work sufficiently miserable that his</p>

	<p>cheerfulness will be more of a credit to him. He eventually joins Young Martin Chuzzlewit on his trip to America, where he finds at last a situation that requires the full extent of his innate cheerfulness of disposition.</p> <p>Martin buys a piece of land in a settlement called “Eden”—which, if not actually underwater, is at least in the midst of a malarial swamp. Mark nurses him through his illness, and they eventually return to England</p>
논평	
인용문	http://en.wikipedia.org/wiki/Martin_Chuzzlewit

<부 록 2: 신문보도자료의 감염병 데이터베이스 >

<말라리아>

제 목	仁川瘧疾病流行, 인천의 학질병 유행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2년 07월 11일
주 제	인천에 학질병이 창궐하여 유행
시놉시스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한 관계로 경기도 인천부에 학질이 유행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민간인(조선인)들에게 청결에 힘쓸 것을 당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과 환경문제
키워드	학질

제 목	분묘를 굴하고 시육을 할취, 학질에 약이라고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7년 08월 29일
주 제	학질에 특효라는 이유로 시체를 도굴
시놉시스	학질에 특효약이라는 이유로 묘를 도굴하여 시체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일부에서 학질에는 인육이 좋다는 유언비어가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과 치료약에 대한 미신
키워드	학질

제 목	瘧疾에 독약, 스토리기니네를 먹고 즉사되었다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8년 06월 14일
주 제	학질에 걸린 사람이 출처 모르는 약(독약)을 먹고 죽음
시놉시스	학질에 걸려서 열나고 힘들어 하던 사람이 출처를 알수 없는 약을 먹고는 사망함. 경찰이 찾아보니 스토리기니네라는 독약이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과 치료약
키워드	학질

제 목	조치원에 瘧疾같은 병, 대체는 이상하다, 무슨 까닭의 병증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0년 09월 08일
주 제	조치원에 학질과 비슷한 확인불가의 질병 창궐하여 유행
시놉시스	조치원에 학질과 비슷한 질병이 발생하여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함. 피곤함,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갑자기 발병하여 중증자는 사망에 이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과 비슷한 확인 불가의 질병 발생
키워드	학질

제 목	虐疾을 退治하고자 어린 딸을 나무에 달아 매고 독기로 찌으려는 무지한 자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3년 07월 20일
주 제	학질 치료를 위해 딸을 도끼로 찌으려고 함
시놉시스	학질에 걸린 사람을 놀라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미신을 믿고 학질에 걸린 딸을 나무에 달아 도끼로 찌으려다가 아이 우는 소리에 달려온 사람에게 의해 제지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과 미신
키워드	학질

제 목	愛子の 拘置를 自願, 학질을 떼려고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4년 09월 06일
주 제	학질에 걸린 아들을 구치소에 넣어달라고 부탁함
시놉시스	학질을 낮게하기 위해 학질에 걸린 아들을 구치소에 넣어달라고 부탁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과 미신
키워드	학질

제 목	인도학질유행
매 체	시대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5년 01월 09일
주 제	인도학질이 유행
시놉시스	인도학질이 유행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 발생
키워드	학질

제 목	幼子 학질로 母子 참사
매 체	시대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5년 06월 02일
주 제	학질로 인한 사망
시놉시스	학질이 발병하여 모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 발생으로 인한 사망
키워드	학질

제 목	학질박멸책, 총독부가 조사
매 체	중외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8년 07월 01일
주 제	학질박멸책에 대한 조사 실시
시놉시스	여름철을 맞이하여 날씨가 습하고 더워 학질이 발생함에 따라 학질박멸책에 대하여 총독부가 직접 조사를 실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 발생
키워드	학질

제 목	農村에 만히 流行되는 瘧疾病源根滅策 위생과에서 각도에 통지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8년 07월 02일
주 제	농촌에 유행하는 학질관리를 위해 예방대책세우도록 각도에 통지
시놉시스	의료 체계가 불완전한 농촌에서 학질이 만연하여 위생과에서 학질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각오하도록 각 도에 통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정부의 학질 관리
키워드	학질

제 목	瘧疾 세준다고 江中에 蹴入致死 친고의 병 고쳐 주랴다 살인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8년 08월 08일
주 제	학질을 치료한다며 살인 발생
시놉시스	학질에 걸린 환자를 놀라게 하면 학질이 떨어진다는 속설을 믿고 강변에서 사람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과 치료약에 대한 미신
키워드	학질

제 목	학질보유자 조사 실시
매 체	중외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8년 08월 17일
주 제	학질 발병에 따른 환자 조사 실시
시놉시스	평안남도 위생과에서 강서군과 용강군의 위생실태 조사를 위하여 학질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보균자 조사 실시
키워드	사회, 보건, 의료, 질병, 기타질병, 학질

제 목	학질에 희생되는 인명다수, 등한히 할 병이 아니다.
매 체	중외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9년 05월 26일
주 제	학질의 심각성 알림
시놉시스	학질의 심각성을 알고 걸리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며 현재 학질을 앓은 사람은 총 15만명 정도로 추산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의 발병자 수와 사망률 통계
키워드	사회, 보건, 의료, 질병, 기타질병, 학질

제 목	학질 때려 남의 처를 강간
매 체	중외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0년 08월 20일
주 제	학질에 대한 무서움과 그에 따른 미신적 믿음의 결과
시놉시스	평안북도 자성군 삼풍면 신흥동의 김선치라는 사람이 학질에는 남의 처를 강간하며 낫는다는 미신을 듣고 길신원의 처를 강간하고 살해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에 대한 속설과 치료방법
키워드	사회, 보건, 의료, 질병, 기타질병, 학질

제 목	水島城大助教授 마라리아研究 학질모기박멸과 환자 치료 衛生課長과 協議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1년 07월 17일
주 제	말라리아 모기 박멸 연구의 진행
시놉시스	수도성대조교수가 말라리아 모기에 대한 박멸과 환자치료 연구를 시작하였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모기 연구
키워드	학질, 말라리아

제 목	瘧疾藥으로 昇汞을먹여 잘못알고산약을먹여죽여 無智가나온慘劇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2년 06월 12일
주 제	약을 잘못 먹어 환자가 사망
시놉시스	학질 환자에게 어머니가 약을 잘못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어머니를 과실치사로 경찰이 입건하였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약물 오용
키워드	학질, 말라리아

제 목	학질 앓은 사람이 십 삼만 사천여 명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3년 06월 17일
주 제	학질 발생에 따른 사망자 증가 문제 조명
시놉시스	더운 날씨에 지속적으로 학질 앓은 사람이 십 삼만 사천여 명, 그 중 사망자가 일천 팔백여 명, 사망률이 수 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 발생
키워드	학질

제 목	본사의료반 각대 활동상황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4년 08월 15일
주 제	경상북도 방면의 수해로 인한 학질 발병과 수해복구현황
시놉시스	낙동강역 부근에서 1200여명 진료, 부녀자와 유아의 위장병이 최다발생, 적리와 학질이 성행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 발생
키워드	이재민 구호, 기타질병, 위장병, 학질

제 목	악성의 학질병을 오진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4년 09월 13일
주 제	오진으로 인한 환자사망
시놉시스	악성의 학질병을 장질부사로 오진하여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의 모 의사는 재판에 회부되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키워드	의료사고, 학질

제 목	미신이 낳은 참사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5년 07월 29일
주 제	학질에 대한 미신으로 인한 인명피해
시놉시스	진천군 삼룡리에서 연병덕이라는 60대 노파가 학질을 떼려다가 소에게 밟혀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함. 거적을 깔고 누운 뒤 그 위를 소가 지나가면 학질이 낫는다는 미신으로 인한 참변이 발생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에 대한 오해와 치료방법
키워드	학질, 사고, 미신

제 목	경성부내 모기발생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6년 05월 16일
주 제	모기발생으로 인한 학질 우려
시놉시스	경성부 내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괴어 있는 곳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학질이 발병할 것이 우려 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발생과 예방
키워드	학질예방

제 목	학질을 옮겨다주는 모기를 업새자면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9년 06월 16일
주 제	학질의 원인인 모기 퇴치법
시놉시스	학질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모기향으로 물리지 않게 주의하고 습기 있는 곳을 조심하며 약은 '기니네'를 사용할 수 있고 빨리 의사를 찾도록 한다.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학질의 예방 및 치료
키워드	학질, 말라리아

제 목	家庭 모기도 말썽쟁이 『텅구』 열과 학질을 퍼트려 방공수조에 붕어를 기르자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43년 04월 26일
주 제	장구벌레를 막기위해 붕어를 키우라고 권유함
시놉시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장구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수조에 붕어를 키우자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의 정의 및 예방법
키워드	학질, 말라리아

제 목	법정전염병 환자 격감/작년 천3백72명… 전년보다 4배 줄어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2년 03월 07일
주 제	법정전염병 환자 감소했다고 보건사회부가 발표함
시놉시스	보건사회부에서 법정전염병 환자가 격감했다고 발표함. 2종전염병(말라리아 포함)은 5배가량 감소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KBS 홍석건PD/태국서 취재중 숨겨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2년 12월 23일
주 제	촬영중 KBS PD 말라리아에 걸려 숨짐
시놉시스	KBS 홍석건PD가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취재하던중 악성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방콕에서 치료를 받다가 순직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도 방역대상/4월부터 항생제 지급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3년 01월 07일
주 제	방역대상질병에 말라리아포함시켜 필요시 항생제 지급하기로 함
시놉시스	보건사회부는 말라리아를 방역대상 질병에 포함시켜 4월부터 해외여행객들에게 예방항생제를 지급하기로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예방약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해외전염병 특별관리/국립의료원 전담병원 지정/보사부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05월 03일
주 제	외국관광객 및 해외여행자 급증으로 전염병(말라리아 포함) 특별관리
시놉시스	외국관광객 및 해외여행자 급증으로 유입가능성 높은 전염병 23종(말라리아 포함)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설왕설래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컬럼, 논단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06월 21일
주 제	15년만에 국내 말라리아 발병
시놉시스	79년 이후 국내에 말라리아 환자(군인)가 나타남.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발병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법정전염병 발생 크게 늘어/콜레라·홍역·이질 작년 10배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08월 20일
주 제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법정전염병 급격히 증가
시놉시스	해마다 감소추세 보이던 법정전염병 발생률(말라리아 포함)이 올해는 증가했다고 보건사회부가 발표함. 여름의 이상기후와 연관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중.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토착 말라리아 8명 발병/경기 북부서/군인 등 감염...“방역 비상”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09월 12일
주 제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말라리아가 최근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
시놉시스	70년대말 소멸 후 처음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 북한모기 남하 가능성 고려하며 역학조사중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재발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토착말라리아」 14년만에 발생/경기북부서 7명 감염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09월 13일
주 제	국내 토착말라리아 14년만에 발생
시놉시스	경기북부서 군인5명, 민간인2명이 국내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치료받음. 원인으로서는 이상고온현상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고려중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페스트비상 남의 일 아니다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사설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09월 30일
주 제	고전 전염병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시놉시스	지구상에서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페스트가 인도지역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위기에 있음. 고전 전염병 (말라리아 포함)은 과거에 개발된 약에는 내성을 지니고 있어 치료가 더 어려워짐. 대책이 시급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고전 전염병의 증가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에 콜레라, 말라리아 번져/1명사망 2백여명 입원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10월 03일
주 제	이집트에 콜레라와 말라리아 발생
시놉시스	이집트에서 콜레라와 말라리아로 1명 사망하고 200여명이 입원치료중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광주에 말라리아 환자/올 경기 이어 또 발생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뉴스
저 자	문준식 기자
시 기	1994년 10월 18일
주 제	광주지역에 말라리아 환자 발생함
시놉시스	여름 경기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한데 이어 광주지역에서도 환자 발생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발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인 말라리아 4천명 사망/서부 라자스탄주/동부로 확산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10월 23일
주 제	인도에 말라리아 발생
시놉시스	인도에 말라리아로 4천명 사망함.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추세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발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키니네 내성 말라리아/2명 감염 밝혀져/아프리카 여행중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11월 16일
주 제	키니네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 모기의 증가
시놉시스	아프리카를 여행한 2명이 키니네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에 감염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모기의 증가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악성 말라리아상륙 “비상”/아 여행 국교생 등 4명 감염밝혀져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뉴스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02월 18일
주 제	아프리카여행을 다녀온 국교생3명이 악성말라리아에 감염
시놉시스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국교생 3명 및 케냐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온 간호조무사 1명이 악성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치료받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감염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쿠르드자치구 말라리아 창궐/10만명 감염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05월 17일
주 제	이라크 지역에 10만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시놉시스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에서 보건환경의 악화로 인해 10만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발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방글라/설사병/멕시코/콜레라/자이르/에볼라/지구촌 질병맹위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05월 22일
주 제	세계 각 지역에 전염병 증가추세
시놉시스	인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의 한 지역에서 말라리아로 4백명 이상 사망함. 또한 사이클론으로 인해 식수와 음식이 오염되면서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지에서 설사병 확산추세.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전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군부대 말라리아환자 국방부 예방강화지시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07월 13일
주 제	군부대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
시놉시스	경기도내 일부 군부대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으로 국방부는 예방강화를 지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발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서울서 첫 발생/30대 발병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07월 21일
주 제	서울에서 처음 말라리아 발생함
시놉시스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굴날개모기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지역 군인의 말라리아 감염에 이어 처음으로 서울에서 발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발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심상찮은 말라리아 확산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사설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07월 22일
주 제	한국에도 말라리아와 확산추세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함
시놉시스	70년대말이후 사라진 말라리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당국과 국민의 대책과 예방이 절실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국내 말라리아 확산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확산 안될 듯/국내 도착가능성 희박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김의겸 기자
시 기	1995년 07월 23일
주 제	국내에 말라리아 전국주의보 내리지 않기로 함
시놉시스	보건복지부는 말라리아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주의보 내리지 않기로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확산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이용 에이즈치료”/HIV감염자에 투여-면역기능강화 효과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07월 26일
주 제	말라리아가 HIV감염자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연구결과
시놉시스	HIV감염자에게 치료가 쉬운 말라리아를 접종 후 면역기능이 강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됨
인 용	샌프란시스코=UPI연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로의 HIV 치료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남북 방역협조체제 절실하다
매 체	서울신문
분 류	컬럼,논단
저 자	신동식 논설위원
시 기	1995년 09월 20일
주 제	북한에 발생한 전염병이 남하함으로 방역협조체제가 시급함
시놉시스	북한에서 발생한 콜레라 및 말라리아가 남하하면서 남한에서도 전염병이 발생하므로 남북의 방역협조체제가 절실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남북한의 전염병 대처방안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지구 100년뒤 대재난/기후변화 국제위원회 경고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뉴스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10월 26일
주 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및 전염병 확산 예상
시놉시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위원회'에서 온난화영향으로 100년 뒤에는 지구에 물에 잠기는 한편 사막이 늘어나고 온난기후에서 활동하는 전염병이 확산될 것임을 예측함.
인 용	워싱턴=AP연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미래의 전염병 확산가능성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부산에 말라리아 환자/2명 발견 - 격리치료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6년 05월 10일
주 제	해외갔다 온 부산의 2명에게서 말라리아 발병
시놉시스	파푸아뉴기니와 케냐에 각각 다녀온 부산의 2명이 말라리아로 판명되어 치료받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발병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북한 학질모기 월남“비상”/비무장지대 근무장병 잇달아 발병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이진 기자
시 기	1996년 05월 23일
주 제	지난해에 비해 한달정도 빨리 국내 경기지역에서 말라리아 발병
시놉시스	더위가 일찍 찾아옴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빨리 경기도 파주지역에 근무하는 사병에게 말라리아 발병함.북한으로부터의 유입으로 분석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발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킬링필드' 폴포트 사망/캄보디아 반군거점서 말라리아 걸려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정성희 기자
시 기	1996년 06월 07일
주 제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의 주역인 폴포트가 말라리아로 사망
시놉시스	캄보디아의 악명높은 '킬링필드'의 주역인 폴포트가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동남아여행 회사원/말라리아 감염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6년 07월 06일
주 제	동남아 여행 다녀온 사람이 말라리아로 판명됨.
시놉시스	부산에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여행자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격리치료중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감염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지구 온난화 계속될땐 연8천만 말라리아 위협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6년 07월 11일
주 제	지구온난화 지속된다면 말라리아 감염률 상승될 것이라고 경고
시놉시스	WHO를 비롯한 유엔기관들이 온난화로 인해 모기가 왕성히 번식함으로써 말라리아가 증가될 것이라고 경고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와 지구온난화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해외 전염병 유입 우려 높다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오룡 기자
시 기	1996년 07월 28일
주 제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전염병 유입에 대한 우려 증가됨
시놉시스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여행자를 통해 '말라리아, 콜레라'가 유입, 전파될 우려가 높아짐.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의약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와 지구온난화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테레사 수녀 퇴원/“구부리고 한 봉사활동이 폐질환 불러”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이기우 기자
시 기	1996년 09월 07일
주 제	테레사수녀가 말라리아로 입원치료 후 퇴원함.
시놉시스	테레사수녀가 봉사활동 중 말라리아와 폐렴증세로 입원치료 후 퇴원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감염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수해지역 말라리아 비상/연천,파주,철원 환자 90여명 발생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최창순 기자
시 기	1996년 09월 07일
주 제	수해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
시놉시스	수해지역이 강원도, 경기북부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여 긴급방역 대책에 나섬.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확대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남북 방역회담 주선 용의”/한상태 WHO 사무처장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세원 기자
시 기	1996년 09월 10일
주 제	전염병예방을 위해 남북회담이 필요함.
시놉시스	전염병(말라리아, 콜레라) 예방을 위한 남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상태 WHO사무처장이 남북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남한과 북한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백신 4년후 시판/광동제약, 미측과 임상실험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6년 10월 22일
주 제	한미양국 공동으로 말라리아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 돌입함
시놉시스	세계최초로 개발된 말라리아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이 미측과 광동제약이 공동으로 시행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백신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군장병 헌혈 혈액일부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환자45명 헌혈 확인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세원 기자
시 기	1997년 01월 29일
주 제	말라리아 환자로 확인된 군장병들이 헌혈한 것으로 밝혀짐
시놉시스	95,96년 말라리아환자로 확인된 전방지역 군장병 일부가 헌혈을 한 것으로 밝혀져 보건복지부가 추적조사에 나섬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수혈에 의한 전염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20년간 전염병 30종 발견/WHO 보고서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홍은택 기자
시 기	1997년 04월 08일
주 제	새로운 전염병과 사라졌던 전염병들의 발생에 대한 WHO 보고서
시놉시스	WHO는 전염성이 강한 30여종의 새로운 질병과 '의학적으로 제압'된 것으로 간주되어온 전염병(말라리아 포함)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인 용	제네바AP연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가난의 병’ 말라리아 다시 오나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김희승 기자
시 기	1997년 04월 09일
주 제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 정착가능성이 제기됨.
시놉시스	WHO에서 지구상에 사라진 전염병의 재등장을 경고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가 다시 정착할 가능성이 제기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사라진 전염병의 재등장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전군 말라리아 예방을:/국방부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김도형 기자
시 기	1997년 05월 12일
주 제	전방 부대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으로 추가 발생예방에 주력함
시놉시스	전방 군부대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방부는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군에 지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의 증가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군 말라리아 기승/사병 등 53명 발병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선종구 기자
시 기	1997년 07월 01일
주 제	전방지역 군부대에 말라리아 예방약 투여함.
시놉시스	말라리아 환자증가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전방지역 근무장병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약 투약 실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군대내 발병증가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모기/“수태못하게 해 박멸”/영 과학자 등 ‘불임수컷’ 연구계획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획,연재
저 자	전향수 기자
시 기	1997년 10월 11일
주 제	불임수컷모기를 이용하여 모기박멸하려는 프로젝트 연구가 영국에서 진행됨
시놉시스	영국 등에서 불임모기 프로젝트를 통해 모기를 박멸하여 말라리아 등을 통제하려는 연구가 진행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연구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환자 울들어 급증/복지부, 원인파악 주역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환기 기자
시 기	1997년 11월 05일
주 제	경기북부 등지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여 원인파악 중임
시놉시스	경기 파주연천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매년 증가추세임. 복지부는 발병우려지역 군인에게 예방약을 제공하고 원인파악중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확산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모기박멸”전쟁 선언한 서울시/4단계 작전 천여명 참가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남웅 기자
시 기	1998년 07월 20일
주 제	이상고온현상으로 모기 발생이 증가하여 서울시에서 조치를 취함
시놉시스	이상고온현상으로 모기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서 서울시에서는 모기 박멸을 위한 특별 방역을 실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모기 박멸 조치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이질에 말라리아,장티푸스,일본뇌염까지 창궐/때아닌 '전염병대란'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박구재 기자
시 기	1998년 10월 19일
주 제	이상고온현상 및 집중호우로 전염병이 창궐함
시놉시스	엘니뇨, 집중호우, 이상고온현상 등으로 전염병(말라리아 포함)이 창궐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측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기후변화와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환자 매년 급증 “비상”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주태형 기자
시 기	1998년 12월 05일
주 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말라리아 환자
시놉시스	연세대의대 연구논문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특히 70%가 전방지역에서 발행하며 매년 증가추세하고 나타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환자의 증가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봄날씨 달려 앞서간다- 3월 이상고온현상 계속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홍성철 기자
시 기	1999년 03월 06일
주 제	고온현상이 나타남으로 말라리아발생 등 보건당국이 긴장중.
시놉시스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생태계혼란과 생체리듬에 영향(이질 및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끼쳐 환경 및 보건당국이 긴장중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의 계절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컬럼, 논단
저 자	지형은 기자
시 기	1999년 07월 08일
주 제	퇴치되었던 말라리아가 다시 증가됨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시놉시스	말라리아가 증가추세임으로 방역을 비롯한 여러 대처방법에 슬기롭게 대비해야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획기적 말라리아 백신 개발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9년 07월 27일
주 제	콜롬비아에서 말라리아 백신이 개발됨
시놉시스	콜롬비아 과학자에 의해 획기적인 말라리아 백신이 개발됨
인 용	런던dpa=연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백신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수해지역 설상가상 '말라리아' 비상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철호 기자
시 기	1999년 08월 04일
주 제	경기북부와 인천 등 수해지역에 전염병발생 우려
시놉시스	수해지역인 경기북부와 인천 등지에 말라리아 의증환자가 발생함. 말라리아 외에도 수인성전염병이 우려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급증-방역대책소홀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박병진 기자
시 기	1999년 08월 18일
주 제	말라리아가 급속히 번지고 있으나 방역대책 소홀 지적.
시놉시스	북한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말라리아가 급속히 증가추세이나 뚜렷한 예방법이 없는 실정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환자의 증가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모기 DNA 캔다, 유엔산하 '특별프로그램' 연구시작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이은정 기자
시 기	1999년 08월 19일
주 제	유엔산하 연구팀에서 말라리아 모기의 DNA를 밝히는 연구 진행
시놉시스	유엔산하 연구팀에서 말라리아 전염방지 및 백신개발을 위해 말라리아 모기의 DNA를 밝히는 연구 진행.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모기에 대한 연구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지금 북한에선]설사병-말라리아 환자 급증 외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 불가
시 기	1999년 09월 27일
주 제	북한에서 설사병과 말라리아 환자 급증
시놉시스	북한에서 설사병과 말라리아 환자 급증하여 북한 보건성과 WHO는 말라리아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중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북한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조심” 일산,김포,의정부 등 13곳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정성희 기자
시 기	2000년 05월 01일
주 제	경기도 일부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됨
시놉시스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경기도 일부지역을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여름철 말라리아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경기북부 11개 보건소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차한필 기자
시 기	2000년 05월 03일
주 제	경기북부 보건소에 열병신고센터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시놉시스	경기도 보건소에 말라리아 신고센터 운영하고 취약지역 소독 실시 및 주민대상으로 수시로 항체검사 실시하여 조기발견 체제 구축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의 예방을 위한 조치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비상 - 예방 어떻게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획, 연재
저 자	권오문기자
시 기	2000년 05월 08일
주 제	말라리아의 예방법
시놉시스	말라리아 환자 증가 추세임. 말라리아는 조기 발견 및 감염원(모기)제거에 하는 것이 중요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의 예방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퇴치-남북한 공동방역 제의 검토
매 체	매일경제
분 류	기사
저 자	이유 기자
시 기	2000년 05월 27일
주 제	말라리아 남북한 공동방역 작업을 북에 제의 검토중임.
시놉시스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이 심각하며 접경지역에 말라리아 환자 증가로 효과적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남북공동방역 제의할 계획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남한과 북한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6.15공동선언 후 대북사업 뭐가 있나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박래용 기자
시 기	2000년 06월 17일
주 제	6.15남북공동선언 후 휴전선 지역에 대한 공동방역작업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시놉시스	북한으로 말라리아 약품 지원 및 휴전선 인근 지역에 대한 공동방역작업 적극 추진중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남한과 북한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유전자조작 모기 첫선 병원균 전달기능 제거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성지영 기자
시 기	2000년 06월 19일
주 제	영국 연구팀에서 유전자 조작모기를 만들어 냄
시놉시스	영국 연구팀에서 병원균을 옮기지 못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모기가 만들어짐. 이 후 유전자를 대체하여 말라리아를 퍼뜨리지 못하는 모기를 만들어낼 계획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연구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모기 발생 전년대비 58.7% 감소
매 체	매일경제
분 류	기사
저 자	김영섭 기자
시 기	2000년 08월 03일
주 제	서울시의 모기발생이 급감소함
시놉시스	서울시는 지난해에 비해 모기 발생이 58.7% 감소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남한과 북한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경기북부 말라리아 환자, 작년보다 14%줄어들어
매 체	문화일보
분 류	기자
저 자	오명근 기자
시 기	2000년 08월 19일
주 제	경기북부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함
시놉시스	경기북부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함. 말라리아 매개체인 '중국얼룩날개모기' 역시 감소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의 감소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이번엔 말라리아. B형간염 혈액 수혈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자
저 자	안영진 기자
시 기	2000년 09월 13일
주 제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을 수혈하는 수혈사고가 발생
시놉시스	말라리아 유행지역의 군인의 혈액을 수혈받은 1살짜리 남아가 말라리아 환자로 진단받는 사고가 발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전염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경기북부지역 말라리아 발생 감소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철호 기자
시 기	2000년 12월 29일
주 제	경기북부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함
시놉시스	말라리아 방역활동의 결과 처음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의 감소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정부, 말라리아 방역약품 등 북한 지원
매 체	매일경제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2001년 05월 02일
주 제	북한에 말라리아방역 및 치료약품 등을 지원함.
시놉시스	국립보건원은 WHO를 거쳐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및 치료약품 등을 지원하기로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남한과 북한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지역서 헌혈받아,작년 6만여명..적십자서 혈액관리 허점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조운찬 기자
시 기	2001년 08월 20일
주 제	말라리아 빈발지역에서 헌혈이 이뤄지는 등 혈액관리가 부실함
시놉시스	말라리아 빈발지역에서 다량의 헌혈이 이뤄지고 그 혈액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혈액관리가 부실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의약정보/인제의대, 말라리아 진단법 개발 등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이준규 기자
시 기	2001년 09월 19일
주 제	인제의대 말라리아 연구소에서 말라리아 진단법 개발함
시놉시스	인제대 의대 말라리아 연구소에서 새로운 말라리아 진단법을 개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연구, 진단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남북, 접경지역 동시방역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특별기획취재팀
시 기	2002년 03월 28일
주 제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동시방역을 실시할 예정
시놉시스	월드컵을 앞두고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남북한이 5월초에 말라리아 동시방역을 실시할 예정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남북의 말라리아 예방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신풍제약 새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WHO와---143억 지원받아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김정섭 기자
시 기	2002년 07월 10일
주 제	신풍제약이 WHO와 함께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사업 맡게 됨
시놉시스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의 내성으로 신풍제약이 WHO와 함께 새 약품을 개발하기로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북, 말라리아약 지원 요청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영석 유영대 기자
시 기	2002년 09월 03일
주 제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말라리아와 결핵약품을 지원요청함
시놉시스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1000만명분의 말라리아 치료약 지원 요청을 한 것이 밝혀짐.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북한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급성 전염병 크게 줄었다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장덕수 기자
시 기	2003년 01월 18일
주 제	급성전염병(말라리아 포함) 발생률이 크게 감소함
시놉시스	최근 5년간 급성 전염병(말라리아 포함) 발생률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국내 말라리아의 감소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모기 조심하세요/경기북부 서식밀도 증가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홍용덕 기자
시 기	2004년 07월 27일
주 제	경기북부에 말라리아 모기의 밀도 증가함
시놉시스	경기북부지역에 말라리아 모기의 밀도가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지난달보다는 증가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현장에서/ 말라리아약? 없는데요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컬럼, 논단
저 자	장재선 기자
시 기	2005년 07월 29일
주 제	해외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시놉시스	보건당국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치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전염병(말라리아)예방을 위한 관리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이번엔 '말라리아 혈액' 수혈-2003년이후 전염병 피 1206명에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배병우 기자
시 기	2005년 09월 10일
주 제	말라리아 환자가 헌혈한 피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됨
시놉시스	정부가 혈액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말라리아 환자가 헌혈한 피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되는 등 계속적으로 혈액사고가 일어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급증 '초비상'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배병우 기자
시 기	2005년 11월 01일
주 제	2001년 급감했던 말라리아가 다시 증가 추세임
시놉시스	감소하던 말라리아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환자의 급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비영리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국경없는 의사회.다국적 제약사 공동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김정선 기자
시 기	2007년 03월 03일
주 제	국경없는의사회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함
시놉시스	비영리 의료단체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공동연구를 통해 값싼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지하 정화조 겨울모기 득실.. 서울'말라리아'비상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황일송 모규엽 기자
시 기	2007년 03월 06일
주 제	서울 지하 정화조 1곳당 모기 평균 90마리씩 서식
시놉시스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해 지하 정화조에 모기 성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방역사업 준비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남북한 휴전선 접경 '말라리아 공동방역'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홍용덕 기자
시 기	2008년 01월 05일
주 제	남북한 휴전선접경지역의 말라리아 공동방역이 추진될 예정임.
시놉시스	경기도의 대북 교류협력사업 중 하나로 휴전선접경지역의 말라리아 공동방역이 추진될 예정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기후변화 조용한 세상]말라리아 처방 4년새 3배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우성규 기자
시 기	2008년 04월 07일
주 제	말라리아 확산됨에 따라 약 처방도 급증함
시놉시스	지구 온난화로 국내에서도 말라리아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치료약 처방도 급증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경기 서북부 말라리아 주의보.. 10개 시,군 27명 발병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철호 기자
시 기	2008년 06월 20일
주 제	경기 서북부지역에 말라리아 환자 발생함
시놉시스	경기 서북부,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말라리아 환자 발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발생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과주, 연천 등 접경지역 '말라리아비상'-천안함 사태로 남북공동방역사업 중단
매 체	문화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오명근 기자
시 기	2010년 06월 11일
주 제	천안함사태로 남북공동방역이 중단되면서 말라리아 방역에 어려움
시놉시스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남북 공동방역사업이 천안함 사태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한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에 비상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남북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눈에 띄게 줄어든 모기 왜?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유태영 기자
시 기	2010년 08월 02일
주 제	이상 저온현상으로 모기 밀도가 감소함
시놉시스	이상 저온 및 자치단체의 모기대책 등에 의해 모기 발생이 급감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서울시내 방역 제대로 도파 있다.. 시 '모기관리지도' 첫 공개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박진우, 김지현 기자
시 기	2010년 08월 26일
주 제	서울시는 '모기관리지도'를 통해 방역대책을 마련중임
시놉시스	지구온난화에 따른 말라리아 환자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울시는 '모기관리지도'를 만들어 방역대책을 마련중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치료 신약 개발 이끈 신풍제약 신창식 고문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이진한 기자,의사
시 기	2011년 08월 22일
주 제	신풍제약이 WHO와 함께 신약개발에 성공함
시놉시스	신풍제약이 WHO와 함께 신약개발(피라맥스)에 성공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말라리아 치료약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말라리아 주의... 매개모기 72% 급증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 불가
시 기	2012년 08월 09일
주 제	말라리아 매개 모기 급증
시놉시스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모기 수가 급증하여 말라리아 주의를 요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통일 땀 북인구 8% 남한행..결핵-말라리아 확산 위험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신광영, 박훈상 기자
시 기	2012년 10월 17일
주 제	통일이 되었을 때 결핵과 말라리아의 확산위험성이 큼
시놉시스	통일 후에 북한에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확산위험이 큼으로 그에 대한 대책과 관리가 시급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북한의 말라리아
키워드	말라리아

제 목	땡기열 옮기는 아열대 모기, 제주에도 있다. 첫확인.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 불가
시 기	2013년 07월 28일
주 제	땡기열 매개 모기가 제주도에서 발견됨
시놉시스	땡기열모기가 제주도에서 발견됨. 제주도의 기후가 아열대로 점차 변하면서 공항, 항구를 통해 들어온 땡기열 모기가 살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으로 분석. 말라리아 모기 역시 제주공항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기후변화와 모기서식
키워드	말라리아

<독감>

제 목	目下流行하는 毒感은 조심하여야 한다.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8년 10월 17일
주 제	유행성 독감에 주의
시놉시스	가을철 급격한 날씨변화로 인한 독감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춥다고 하여 너무 방을 덥게 유지하는 것은 도리어 환자에게 해가 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감기 예방과 치료
키워드	감기

제 목	毒感各學校를 侵襲, 각 학교에 결석자가 다수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8년 10월 19일
주 제	독감유행으로 인한 학교의 결석자 발생
시놉시스	독감으로 인하여 경성부 내의 학교에 많은 결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마포공립보통학교의 경우 이백사십명 정도의 결석자가 발생하였음
인 용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발병으로 인한 전염성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全朝鮮을 席捲한 毒感은 世界的 大流行인가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8년 10월 22일
주 제	독감의 전국적인 대유행
시놉시스	30여 년전 발생한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가족 간에 감염이 매우 심한 양상을 보임. 위생상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인 용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유행과 전염경로
키워드	독감

제 목	朝鮮人에 死亡者가 많은 이유는 치료를 잘 못하는 까닭이다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8년 11월 03일
주 제	치료소홀로 인한 독감 사망자 증가
시놉시스	독감의 유행이 지나감에 따라 학교에서 점차 출석하는 학생 수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간해서는 죽지 않는 독감에 조선인의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치료를 적시에 하기 못하기 때문임
인 용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유행과 치료시기 및 방법
키워드	독감

제 목	金泉에도 독감, 우편국원은 전멸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8년 11월 06일
주 제	금천 우체국에도 감기가 유행하여 우체국업무 마비
시놉시스	금천에 독감유행으로 우체국 직원9명 중 8명이 앓아 누워 1명만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대구 우체국 직원이 지원나옴.
인 용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의 病原菌, 북리연구소에서 발견, 인플루엔자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8년 11월 09일
주 제	유행감기 연구 중 원인으로 '인플루엔자'가 발견됨
시놉시스	북리연구소에서 '인플루엔자'라는 균이 독감의 근원으로 발견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治療新法, 사람의 피를 주사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19년 02월 13일
주 제	독감치료방법을 소개
시놉시스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독감에 대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한 결과 일부 환자가 호전된 결과를 보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치료방법
키워드	독감

제 목	최씨의 篤志, 독감환자를 거저 고쳐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0년 01월 03일
주 제	돈이 없어 독감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줌
시놉시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독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최봉진)이 의사(김호연)와 함께 논의 후 무료로 약과 치료를 받게 해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치료
키워드	독감

제 목	聞慶郡에 毒感, 학교까지 휴업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2년 02월 28일
주 제	감기유행에 따른 학교 휴교사태
시놉시스	경상북도 문경군에서는 독감유행에 따라 학교가 휴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발병
키워드	독감

제 목	접종속출의 악역, 대경성 중중포위
매 체	중외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8년 03월 12일
주 제	스페인 독감이 다시 출현하는 것에 대한 예방관리
시놉시스	10년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이 다시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함
인 용	정석태(지성내과 원장)
Commentary	
관련 의학 문제	학질 발생
키워드	장티푸스, 감기독감, 방역

제 목	하동에 독감, 80명 사망, 아직도 더욱 창궐하여, 총환자 7백여명
매 체	중외일보
종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9년 02월 24일
참조 판본	중외일보
주 제	경남 하동지역에 독감 유행
시놉시스	하동에 독감이 유행하여 700여명의 환자 중에 80명이 사망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仙臺제이고교 기숙사에 독감
매 체	중외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29년 07월 05일
주 제	선대제이고등학교 기숙사에 독감 유행
시놉시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180명이 독감에 걸렸고 중태에 빠진 학생이 70여명임.
인 용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고창에 독감 유행, 기후관계로
매 체	중외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0년 03월 27일
주 제	감기 발병
시놉시스	전라북도 고창에 봄비가 많이 내려 기온이 내려간 관계로 독감 환자가 속출하고 있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사회, 보건, 의료, 질병, 기타질병, 감기

제 목	말 못할 世道人心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1년 01월 18일
주 제	독감에 걸린 사람을 쫓아내어 죽음
시놉시스	가난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난 아버지와 독감에 걸린 어린아이가 추위에 사망하였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홍성에도 독감
매 체	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2년 03월 10일
주 제	홍성지방에 독감이 유행
시놉시스	홍성지방에 홍역 뿐 아니라 독감도 유행하여 사망률이 높고 학교에도 결석자가 많음.
인 용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무주에 마진과 염병, 독감도 유행
매 체	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2년 03월 12일
주 제	독감유행
시놉시스	전라북도에 장티푸스와 독감이 유행에 있어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위생에 신경써야 함
인 용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발병으로 인한 전염성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이 철의 위생, 독감이 유행 주의할 일입니다.
매 체	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3년 03월 01일
주 제	유행성 독감에 주의
시놉시스	유럽과 북미에서 유행성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독감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크며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감기 예방과 치료
키워드	감기

제 목	전북도내 독감유행, 환자 물경 일만명, 도 위생과에서 낭패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4년 02월 10일
주 제	전북도내 독감 유행
시놉시스	전북도 내에 독감이 유행하여 도 위생과에서 발생상황과 그 수를 확인해보니 환자가 총 1만명에 달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天候의 불순으로, 각지에 독감 창궐, 원산시내에 환자 속출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5년 12월 12일
주 제	동절기 기온으로 인해 독감이 유행
시놉시스	추운 겨울날씨로 인해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年來 稀有 酷한으로, 독감 의연 창궐!, 따뜻한 끝에 갑자기 추워져서, 각지에 다수환자 신음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5년 12월 24일
주 제	기후의 극격한 변화으로 독감 유행
시놉시스	전남 영양지방에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며 추워지면서 유행성 감기가 유행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전라남도 일원의 독감환자 백만명, 全道人口의 약5할이 臥病, 위생당국도 방역에 腐心
매 체	조선중앙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6년 01월 11일
주 제	전남에 독감환자 속출하여 위생당국은 방역에 고심중임.
시놉시스	금년 기후가 예민하여 전남지역에 독감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음. 위생당국은 방역에 고심중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유행 및 위생당국의 대처
키워드	독감

제 목	홍한식목사 독감
매 체	국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7년 03월 10일
주 제	홍한식 목사 독감
시놉시스	홍한식 목사가 6,7일동안 독감으로 고생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水原에 毒感盛行 病者업는 집이업서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8년 03월 16일
주 제	독감 유행으로 공황에 빠진 수원군
시놉시스	수원군의 각 집마다 1-2명씩은 감기에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5세 이하와 어린이들이 많이 독감에 걸려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全南에 毒感猖獗 어린이에게 患者多數
매 체	매일신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39년 03월 07일
주 제	전남지역 특히 어린이에게 독감유행
시놉시스	전남도 위생과 발표에 의하면 광주를 중심으로 특히 아이들에게는 폐렴을 일으키기 쉬운 독감 유행중이므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고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이범녕 씨 독감으로 정양
매 체	북미시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45년 12월 15일
주 제	독감으로 치료중인 이범녕씨
시놉시스	나성(로스앤젤레스)에 거류하는 동지 이범녕 씨는 유행 독감으로 여러 날 동안 자택에서 치료 중이라더라.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필리핀(플루) 서반아(스페인) 감기의 三十一 명 피살
매 체	국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57년 05월 29일
참조 판본	국민보
주 제	필리핀에 스페인감기 유행
시놉시스	필리핀에 독감(플루)가 유행하여 사망자가 속출함. 독감유행으로 약국에서 약을 비싼 값에 팔아 마닐라 시장이 정가로 약을 팔도록 함.
인 용	마닐라 五月 二十一日 에이피(AP)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감기

제 목	아시아 감기 샌디에고에 횡행
매 체	국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57년 08월 07일
주 제	샌디에고에 아시아독감 유행
시놉시스	샌디에고에 아시아 독감이 유행하여 감기로 죽은 사람이 4명임.
인 용	미주 남가주(남부캘리포니아) 샌디에고 七月 九日 유포(UP)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감기

제 목	미국에 (플루)독감 성행
매 체	국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57년 10월 02일
주 제	미국 독감 유행에 따른 동향
시놉시스	오늘 미국 보건부 발표의 미국 각처에 독감에 걸린 수효가 십이만이천육백오십 명이라는데 보건부에서 삼백칠십일만여 명 주사를 예비하고 있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발병 통계
키워드	감기

제 목	감기약 소형광고 2편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4년 01월 10일
주 제	감기약 광고 (2편)
시놉시스	-코데솔 -몸살! 감기! 독감! 노발긴 - 키니네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1100020920802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01-10&officeId=00020&pageNo=8&printNo=1298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감기약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ワクチン 15萬(만)CC 韓美財團(한미재단)서寄贈(기증)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4년 03월 20일
주 제	한미재단에서 독감 백신(백신)을 기증함
시놉시스	한미재단에서 독감백신을 보사부장관에게 기증함. 보사부는 각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할 예정임
인 용	확인불가
링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32000329203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03-20&officeId=00032&pageNo=3&printNo=566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백신
키워드	독감

제 목	감기,몸살,독감 열이나고 머리가 아플때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광고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4년 09월 09일
주 제	전단광고
시놉시스	한일약품 '바이엘'(아스피린 정)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9090020920703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09-09&officeId=00020&pageNo=7&printNo=13193&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감기약
키워드	독감

제 목	換節期(환절기)와 어린이毒感(독감)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컬럼/논단)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4년 11월 19일
주 제	환절기에 소아 독감의 증상 및 대처법
시놉시스	독감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여 어린이들에게 유행하기 쉬우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111900209206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11-19&officeId=00020&pageNo=6&printNo=1325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소아에서의 독감
키워드	독감

제 목	10萬國民校兒童(만국민교아동)에 毒感豫防無料接種(독감예방무료접종)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5년 01월 11일
주 제	10만명의 국민교 아동에서 서울시는 무료로 독감예방접종 실시함
시놉시스	서울시는 적십자로부터 받은 독감예방백신 10만명분을 각 보건소를 통해 국민학교아이들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11100329208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1-11&officeId=00032&pageNo=8&printNo=591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예방접종
키워드	독감

제 목	독감조심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5년 03월 13일
주 제	서울에 독감이 유행함
시놉시스	국립보건원에서 이번 독감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냄. 서울에 독감이 유행함으로 주의요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31300209206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3-13&officeId=00020&pageNo=6&printNo=13350&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缺席者(독감결석자)격증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5년 03월 15일
주 제	국민학생들 사이에 인플루엔자 전염 확산됨
시놉시스	환절기를 맞아 국민학교에서 독감환자가 늘어나 결석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31500209204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3-15&officeId=00020&pageNo=4&printNo=1335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病原体(병원체) 못밝혀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5년 03월 16일
주 제	유행하는 독감바이러스를 밝혀내지 못해 예방약마련도 못하고 있음
시놉시스	최근 크게 유행하는 독감은 아직 병원체가 밝혀지지 않아 방역 및 예방사업을 못하고 있음. 결석률 30%면 학교는 휴교하기로 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31600329204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3-16&officeId=00032&pageNo=4&printNo=597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바이러스
키워드	독감

제 목	蔓延一路(만연일로)의毒感(독감) 못따르는豫防藥(예방약)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5년 03월 16일
주 제	독감유행으로 어린이대상 예방접종 실시중이나 약이 부족함
시놉시스	독감이 유행하여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하고 있으나 시내 전 국민학생이 접종하기엔 부족한 실정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3160020920701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3-16&officeId=00020&pageNo=7&printNo=13352&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예방접종약의 부족
키워드	독감

제 목	爆發的發生(폭발적발생)아니다 保社部側(보사부측)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65년 03월 16일
주 제	독감 유행으로 병원균확인을 위해 국립보건원에서 작업중임
시놉시스	보건당국은 독감이 산발적 발생이라 밝히며 병원균확인 작업중 이라고 함. 폐렴 합병증 예방을 위해 설과제약을 쓰도록 당부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31600209207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3-16&officeId=00020&pageNo=7&printNo=13352&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값싼『아스피린』 鑑定指示(감정지시)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5년 03월 18일
주 제	약정당국은 독감약 ‘아스피린’ 에 대해 수거, 검정하도록 지시
시놉시스	독감이 유행하면서 아스피린이 싼 값에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약정당국은 제품을 수거, 검정하도록 지시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31800209207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3-18&officeId=00020&pageNo=7&printNo=1335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하루 氣溫差(기온차) 10餘度(여도) 毒感(독감)만연,호흡기질환도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5년 03월 19일
주 제	기온차가 심해 독감이 더 유행중임
시놉시스	기온차가 10여도씩 나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만연하고 있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31900329204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3-19&officeId=00032&pageNo=4&printNo=597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과 기후변화
키워드	독감

제 목	長興(장흥)에 怪疾(괴질)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6년 04월 28일
주 제	장흥에 10세미만 아동에게 독감으로 보이는 괴질 유행함
시놉시스	환절기인 요즘 장흥의 1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괴질이 유행인데 보건당국은 독감인것같다고 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04280032920301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6-04-28&officeId=00032&pageNo=3&printNo=6317&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바이엘 藥品(약품)이 사랑하는!독감,코감기 전문치료제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67년 01월 11일
주 제	독감 코감기 약 광고
시놉시스	한일 藥品(약품) / 리파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11100329203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1-11&officeId=00032&pageNo=3&printNo=653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에 1갓셀! 또한발 앞선 노바킹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67년 11월 08일
주 제	독감약 광고
시놉시스	東光藥品(동광약품) / 노바킹®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110800329203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11-08&officeId=00032&pageNo=3&printNo=6793&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인플루엔자 A2型(형) 10年(연)만에번져 全國(전국)에毒感警報(독감경보)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뉴스
시 기	1967년 12월 08일
주 제	제주도에 유행하는 독감이 인플루엔자A2형으로 판명됨.
시놉시스	제주도에 호흡기질환이 번져 검사한 결과 인플루엔자A2형으로 밝혀져 WHO에 통보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12080032920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12-08&officeId=00032&pageNo=3&printNo=6819&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인플루엔자警報令(경보령)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7년 12월 08일
주 제	악성독감이 10년만에 한국에 유행 중임
시놉시스	전염력이 강한 진성인플루엔자A2형인 악성독감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10년만에 한국에 유행중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120800209203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12-08&officeId=00020&pageNo=3&printNo=14200&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惡性毒感(악성독감)침입우려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뉴스
시 기	1968년 08월 21일
주 제	홍콩에서 대유행하는 독감이 한국에도 올 것으로 예상됨
시놉시스	A형계신형인플루엔자가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한국에도 빨리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82100329207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08-21&officeId=00032&pageNo=7&printNo=7037&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홍콩毒感(독감) 조심합시다 9月(월)경에 侵犯(침범)우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8년 08월 21일
주 제	홍콩에서 유행하는 악성독감이 9월에도 유행 가능성있음
시놉시스	전염성이 강한 홍콩독감이 9월에 한국에서도 유행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8210020920301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08-21&officeId=00020&pageNo=3&printNo=1441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잇따른"VIP毒感(독감)"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뉴스
시 기	1968년 12월 14일
주 제	고관들 사이에 독감이 유행하여 VIP독감이라는 별명이 생김
시놉시스	독감이 중앙청에서 대유행하여 VIP독감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121400329202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12-14&officeId=00032&pageNo=2&printNo=713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몯쓸毒感(독감)이 돌고있읍니다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69년 01월 04일
주 제	독감 약 광고
시놉시스	三省製藥工業株式會社(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 D판도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040032920703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04&officeId=00032&pageNo=7&printNo=715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한달間(간) 3千(천)여명 死亡(사망) 美國(미국)에 홍콩毒感(독감) 만연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9년 01월 07일
주 제	홍콩독감으로 미국에서 3천여명이 사망함
시놉시스	미국에서 홍콩독감이 대유행하여 3천여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함
인 용	애틀란타AP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0700209208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07&officeId=00020&pageNo=8&printNo=1453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홍콩毒感豫防(독감예방)할수있다 豪州(호주)서 วัคซีน개발성공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9년 01월 08일
주 제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홍콩독감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됨
시놉시스	호주에서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악성독감인 홍콩독감을 예방하는 วัคซีน(백신)을 개발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080020920301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08&officeId=00020&pageNo=3&printNo=1453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예방주사의 개발
키워드	독감

제 목	홍콩毒感(독감) 퇴치된다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9년 01월 08일
주 제	영연방혈청연구소에서 홍콩독감예방วัคซีน(백신)이 개발됨
시놉시스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홍콩독감 예방 백신이 영연방혈청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임.
인 용	멜버른=로이터,동화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0800329207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08&officeId=00032&pageNo=7&printNo=715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백신의 개발
키워드	독감

제 목	감기약먹고 絶命(절명)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9년 01월 11일
주 제	감기약먹고 잠든 2시간 후 변사체로 발견됨
시놉시스	독감에 걸려 집앞 약국에서 조제한 감기약을 먹고 잠든 사람이 2시간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1100209207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11&officeId=00020&pageNo=7&printNo=1453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예방에 버섯을바이러스 強力(강력) 억제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69년 08월 29일
주 제	버섯이 독감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함
시놉시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와 뉴욕의과대학 공동연구 끝에 버섯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리보뉴클레익산을 개발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8290032920202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8-29&officeId=00032&pageNo=2&printNo=7353&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인푸렌자(毒感(독감))化學療法劑(화학요법제)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69년 12월 20일
주 제	독감약 광고
시놉시스	독감약 광고 “인푸렌자. 노바킹칼셀 화학요법제”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122000209208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12-20&officeId=00020&pageNo=8&printNo=1483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注意報(독감주의보)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0년 01월 09일
주 제	유럽에서 대유행한 A2홍콩형 독감이 한국에 들어올 우려가 있음
시놉시스	유럽에서 대유행한 A2홍콩형 독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한국에 들어올 우려가 있어 주의보가 내려짐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10900209203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1-09&officeId=00020&pageNo=3&printNo=1484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인플루엔자의 전파
키워드	독감

제 목	세계인구 반이 患者(환자) 亞洲(아주)독감 猛威(맹위) 떨쳐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0년 01월 12일
주 제	WHO에서 전세계인구의 반이 아시아독감에 걸렸다고 발표함
시놉시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시아독감에 걸려있다고 WHO에서 보고하였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11200329208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1-12&officeId=00032&pageNo=8&printNo=746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홍콩 毒感(독감) 上陸(상륙)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0년 01월 31일
참조 판본	
주 제	'A2홍콩68'독감이 한국에서 발병함
시놉시스	작년에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낸 'A2홍콩68'독감이 한국에 상륙되어 주의를 요함. 예방접종약이 있으나 고비용과 시기 부적절성으로 우리나라는 제조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131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1-31&officeId=00020&pageNo=7&printNo=1486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인플루엔자의 전파
키워드	독감

제 목	藥局(약국)서 주사맞고 毒感(독감)환자 숨져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0년 02월 06일
주 제	약국에서 독감걸린 어린이 약명미상의 주사를 맞고 숨짐
시놉시스	독감걸린 4살 아이에게 한 약국에서 약명미상의 주사를 놓아 3시간 뒤 환아가 숨진 혐의로 국민월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2060032920302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2-06&officeId=00032&pageNo=3&printNo=748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나체죽千名(천명) 떤죽음 「홍콩」 毒感(독감) 휩쓸어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0년 03월 02일
주 제	홍콩독감으로 '이리안'지방의 나체 종족 1천여명이 사망함
시놉시스	나체로 살고있는 종족 1천여명이 홍콩독감으로 사망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3020032920801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3-02&officeId=00032&pageNo=8&printNo=750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氣勢(기세)높은 홍콩毒感(독감)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칼럼/논단)
시 기	1970년 03월 02일
주 제	지난 겨울부터 유행한 홍콩감기가 계속 남아있어 주의를 요함
시놉시스	지난 겨울부터 유행한 홍콩감기가 아직 남아서 환절기에 다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항생제 남용을 금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당부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30200209206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3-02&officeId=00020&pageNo=6&printNo=14889&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감기엔 노바킹」의 노바킹은 여러가지 감기증상에 대응-종류도 풍부 毒感化學療法劑(독감화학요법제) 노바킹깁셀을 비롯하여 5종이나 갖추고 있습니다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70년 10월 22일
주 제	독감 약 광고
시놉시스	동광약품 / 감기엔! 노바킹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10220032920602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10-22&officeId=00032&pageNo=6&printNo=770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百名(백명)의 死亡者(사망자)년毒感(독감) 때아닌暴雪(폭설)로주춤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1년 03월 25일
주 제	독감으로 1백명이 사망한 인도에 폭설이 내리면서 독감 약해짐
시놉시스	인도 히말라야 마을주민이 독감으로 1백명가량 사망함. 폭설이 내리면서 독감세력 다소 약해짐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03250032920301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3-25&officeId=00032&pageNo=3&printNo=783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美(미)서 感氣治療(감기치료) 특효藥(약)개발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1년 04월 15일
주 제	미국에서 감기치료약 개발
시놉시스	미국에서 항바이러스 약을 개발하여 24시간이내에 보통 감기를 치료할수 있게 됨. 아직 일반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041500209204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4-15&officeId=00020&pageNo=4&printNo=1523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항바이러스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에는 집에서쉬는 安定療法(안정요법)이제일 좋아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2년 03월 16일
주 제	독감에는 휴식이 제일 좋음
시놉시스	독감에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31600329205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3-16&officeId=00032&pageNo=5&printNo=8141&publishType=00020 시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全國(전국) 휩쓴 流行毒感(유행독감) 「홍콩A型(형)」으로 判明(판명)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2년 03월 21일
주 제	전국에 유행하는 독감원인이 홍콩A형 바이러스로 판명됨
시놉시스	국립보건연구원 내의 'WHO인플루엔자 센터'는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독감의 병원체를 지난 68년도에 유행한 홍콩A형 바이러스로 밝힘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32100209207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3-21&officeId=00020&pageNo=7&printNo=1552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규명
키워드	독감

제 목	異常氣溫(이상기온)과 健康管理(건강관리)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사설)
시 기	1972년 04월 01일
주 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더 독감이 만연함. 더 전염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함
시놉시스	감작스러운 호우와 한파로 수해와 함께 홍콩독감이 대유행을 하고 있음.당국에서는 적절한 대비와 예방책이 필요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40100209203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4-01&officeId=00020&pageNo=3&printNo=1553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기후와 독감과의 관계
키워드	독감

제 목	서울大病院(대병원)서 毒感(독감)앓던 세어린이 숨져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2년 04월 06일
주 제	독감으로 앓던 아이 3명 합병증으로 사망
시놉시스	서울대병원에서 독감으로 치료받던 아이 3명이 합병증으로 사망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40600209207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4-06&officeId=00020&pageNo=7&printNo=15540&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합병증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血清疫學(혈청역학) 조사 韓國(한국)인플루엔자센터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2년 04월 18일
주 제	한국인플루엔자 센터에서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 혈청역학조사 실시
시놉시스	한국인플루엔자 센터에서 매해 유행하는 독감의 실태파악을 위해 혈청역학조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41800209207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4-18&officeId=00020&pageNo=7&printNo=15549&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실태조사
키워드	독감

제 목	東南亞(동남아)에新種毒感(신종독감) 새로운 바이러스 찾아내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2년 10월 12일
주 제	강력해진 신종독감바이러스가 동남아에서 발견됨
시놉시스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해진 신종바이러스가 최근 동남아에 유행하는 독감의 원인이라고 WHO가 발표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01200209204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0-12&officeId=00020&pageNo=4&printNo=1570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日(일)에 割腹毒感(할복독감)유행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2년 12월 18일
주 제	일본에는 증세가 맹장염과 비슷한 독감이 유행함
시놉시스	일본에는 증세가 맹장염과 비슷한 독감이 유행하여 의사가 오진하여 맹장을 제거하는 개복수술을 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21800329202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2-18&officeId=00032&pageNo=2&printNo=8377&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증상
키워드	독감

제 목	인푸르엔자(毒感(독감))에는 종합감기약은 어린이 감기에는 몸살감기,기침에는 감기기침에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73년 01월 09일
주 제	독감약 광고
시놉시스	東光藥品(동광약품) / 노바킹®샬셀;노바킹®당의정;노바킹®시럽;노바킹®코프;노바킹®지액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1090020920702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1-09&officeId=00020&pageNo=7&printNo=1577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예방 백신접종을 받고있는 미국시민들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3년 01월 19일
주 제	독감예방접종하는 미국시민들
시놉시스	독감예방접종하는 미국시민들 (사진)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11900329206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1-19&officeId=00032&pageNo=6&printNo=8402&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번져三日休業令(삼일휴업령) 비봉中高校(중고교)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3년 06월 14일
주 제	수원 화성지역에 독감이 유행하여 학교 휴교령내림
시놉시스	수원 화성 비봉중고교에 독감이 크게 번져 3일간 휴교령이 내려짐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6140020920702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6-14&officeId=00020&pageNo=7&printNo=15907&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장마때는 키스 삼가토록"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3년 07월 21일
주 제	마닐라에서 독감예방위해 장마기간에 키스를 삼갈것을 권고
시놉시스	마닐라에서 장마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키스를 삼갈 것을 권고함
인 용	마닐라AP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72100209204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7-21&officeId=00020&pageNo=4&printNo=15939&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전파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유행 氣勢(기세) 병발증 없게 곧치료를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칼럼/논단)
시 기	1973년 10월 04일
주 제	일본에서 유행하는 독감이 한국에 전파가능성 있어 긴장중임
시놉시스	일본 규수지방에 'B73' 독감이 유행중으로 한국으로 유입가능성 있으나 아직 원인만 밝혀졌을 뿐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긴장중임. 예방과 적극적인 초기치료가 중요함
인 용	도움말 : 서울대의대 소아과 홍창의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100400209205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10-04&officeId=00020&pageNo=5&printNo=16003&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新型(신형) B73 日(일)에 毒感(독감)만연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3년 12월 12일
주 제	신형 독감바이러스'B73'이 일본에서 대유행중임
시놉시스	일본에서 신형독감바이러스 'B73'이 유행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치사율이 높은 A형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측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121200209207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12-12&officeId=00020&pageNo=7&printNo=16062&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형 및 예측
키워드	독감

제 목	無影塔(무영탑)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가십
시 기	1974년 02월 28일
주 제	독감이 온다는 예측. 매년 반복됨.
시놉시스	毒感이 만연하리라는 경보. 작년에 왔던 손님이 잊지도 않고...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02280020920102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4-02-28&officeId=00020&pageNo=1&printNo=1612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20日(일)결린 菌(균)채취確認(확인) 번지자發表(발표)한 「毒感注意報(독감주의보)」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4년 03월 18일
주 제	독감유행 이후 보사부에서의 대처가 늦어져 방역대책에 영향끼침
시놉시스	보사부가 유행하고 있는 영국형A2독감에 대해 뒤늦게 가검물을 채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예방접종약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031800209207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4-03-18&officeId=00020&pageNo=7&printNo=1614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봄시샘 번덕날씨 毒感(독감) 크게 번지고 農作物(농작물) 냉해심각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4년 03월 22일
주 제	급격한 기후변화로 독감 유행
시놉시스	급격한 봄날의 기후변화로 독감이 유행하여 각 학교에서는 결석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0322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4-03-22&officeId=00020&pageNo=7&printNo=1614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6百(백)여명集團毒感(집단독감) 부안삼남中學校(중학교) 休校(휴교)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5년 05월 01일
주 제	부안 한 중학교에 600여명이 집단 독감감염으로 학교 휴교함
시놉시스	한 중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극장에서 영화관람을 한 후 독감이 번지기 시작하여 약 6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휴교조치를 취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50100209207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5-01&officeId=00020&pageNo=7&printNo=1648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馬山(마산)·安東(안동) 毒感患者(독감환자)3名絶命(명절명)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6년 01월 30일
주 제	독감에 걸린 환자 2명이 숨짐
시놉시스	홍콩A2변형 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 2명이 합병증인 급성폐렴으로 마산의료원에서 숨짐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6013000209207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6-01-30&officeId=00020&pageNo=7&printNo=1671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選手村毒感流行(선수촌독감유행)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6년 02월 12일
주 제	선수촌에 독감 유행
시놉시스	올림픽 촌의 독감 유행이 다소 주춤하는 상태임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6021200209208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6-02-12&officeId=00020&pageNo=8&printNo=1672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警告(독감경고) WHO會議(회의)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6년 04월 10일
주 제	새로운 독감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WHO에서 회의가 열림
시놉시스	WHO에서는 새로운 독감유행의 위험을 경고하고 대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6041000209207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6-04-10&officeId=00020&pageNo=7&printNo=1677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범세계적인 독감에 대한 조치

제 목	이번 독감에도 잘 듣는 생약성분의 기침약!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76년 04월 21일
주 제	생약성분의 기침약 광고
시놉시스	대한비타민 / 지미신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604210020920302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6-04-21&officeId=00020&pageNo=3&printNo=1678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인플루엔자 非常警報(비상경보)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7년 03월 21일
주 제	봄들어 지난 72년에 유행한 독감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중임
시놉시스	72년에 크게 유행했던 홍콩B형 인플루엔자변형형이 우리나라 전역에 대유행중임.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7032100209207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7-03-21&officeId=00020&pageNo=7&printNo=1706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選手團(선수단)에 毒感(독감)번저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7년 03월 30일
주 제	월드컵 축구예선 한일2차전에 대비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에 독감유행
시놉시스	월드컵 축구예선 한일2차전에 대비하는 축구대표팀에서 대표선수 몇 명이 독감이 걸림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703300020920601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7-03-30&officeId=00020&pageNo=6&printNo=17073&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새 毒感(독감) 「빅토리아A75型(형)」 流行(유행)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7년 05월 21일
주 제	신형 독감이 급격히 국내에 유행하여 독감겨오령을 내림
시놉시스	신형독감인 '인플루엔자 빅토리아A75형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보사부는 독감경보령을 내림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7052100209207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7-05-21&officeId=00020&pageNo=7&printNo=1711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抗(항)바이러스 리보核酸(핵산)발견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7년 10월 22일
주 제	소련에서 항바이러스 리보핵산을 발견함
시놉시스	소련 모스크바 바이러스연구소에서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하는 리보핵산을 발견하여 바이러스성 질병(독감포함)치료에 도움이 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7102200209203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7-10-22&officeId=00020&pageNo=3&printNo=17247&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경보 텍사스A型(형) 上陸(상륙)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8년 01월 06일
주 제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독감바이러스가 발견됨
시놉시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텍사스A형'인플루엔자가 발견되어 방역과 환자관리를 긴급지시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106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1-06&officeId=00020&pageNo=7&printNo=17310&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인플루엔자(독감)는 치료 될 수 있습니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78년 02월 07일
주 제	독감 약 광고
시놉시스	종근당 / 푸리노신 정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2070020920802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2-07&officeId=00020&pageNo=8&printNo=17337&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釜山國民校(부산국민교) 하루 萬(만)여명 缺席(결석)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8년 02월 21일
주 제	텍사스A형독감으로 부산국민교에서 학생 1만명 이상 결석함
시놉시스	계속된 강추위로 인해 텍사스A형 독감이 만연하면서 부산 국민학교에서 독감으로 1만명 이상의 학생이 결석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22100209207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2-21&officeId=00020&pageNo=7&printNo=17349&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調劑(조제)감기약」 먹고 20代(대)청년 絶命(절명)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78년 03월 09일
주 제	독감환자가 감기약먹은 후 신음하다 숨져 경찰수사가 시작됨
시놉시스	한강성심병원에서 독감약처방받은 후 먹은 청년이 약을 먹고 신음하다가 숨져 경찰조사가 시작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30900209207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3-09&officeId=00020&pageNo=7&printNo=17362&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백신開發進展(개발진전) 80年代(연대)중반계市販(시판) 英製藥(영제약)회사發表(발표)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0 01월 12일
주 제	서방과학자들이 유행성독감을 예방할 백신을 개발함
시놉시스	서방에서 모든 독감을 퇴치할 수 있는 만능백신을 개발하였고 미국의 저명한 제약회사에서 80년대 중반에 백신이 시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11200209207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1-12&officeId=00020&pageNo=7&printNo=1792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백신
키워드	독감

제 목	날씨起伏(기복)심해 感氣患者(감기환자)부쩍늘어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0 12월 20일
주 제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독감이 유행함
시놉시스	기후의 변화가 잦으면서 독감 환자가 증가추세임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12200020920702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12-20&officeId=00020&pageNo=7&printNo=18220&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후유...幼兒(유아)에 「라이症候群(증후군)」 5명 죽고 한명重態(중태)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1년 02월 21일
주 제	독감을 앓고 난 후 발병하는 '라이증후군'으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태임
시놉시스	독감을 앓고 난 후 발병하는 라이증후군으로 어린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임. 한편 라이증후군이 반드시 독감의 후유증이 아니라는 학계의 의견도 있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1022100209207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1-02-21&officeId=00020&pageNo=7&printNo=1827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후유증
키워드	독감

제 목	正體(정체) 작년 번졌던것...았았던사람 免疫(면역)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1년 02월 23일
주 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수백종으로 다양하지만 한번 았았던 사람에게 면역력이 생김
시놉시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여 수백종의 종류가 있음. 한번 았은 사람은 그 항원에 대한 면역력이 생김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1022300209209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1-02-23&officeId=00020&pageNo=9&printNo=18272&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면역력
키워드	독감

제 목	保社部(보사부) 發生情報(발생정보) 어두워 毒感警報(독감경보) 늦었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1년 02월 24일
주 제	전염병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함
시놉시스	지금까지 전염병발생대책(독감 포함)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음을 생각하며 보사부에서 전염병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1022400209207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1-02-24&officeId=00020&pageNo=7&printNo=18273&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예방 및 대처
키워드	독감

제 목	(독감)걸린妊婦(임부)副作用(부작용)이 많다—專門醫(전문의)경고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1년 03월 09일
참조 판본	
주 제	독감걸린 임신부의 경우 사산 또는 기형아를 낳을수 있음
시놉시스	방콕A형인플루엔자에 걸린 임신부는 태아를 사산하거나 기형아를 낳을 수 있으므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1030900209206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1-03-09&officeId=00020&pageNo=6&printNo=18284&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이 임신부 및 태아에게 끼치는 영향
키워드	독감

제 목	독감극성 투벤이 지금 많이 애용되고 있는 이유는 요즘 감기에 잘 듣기 때문입니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81년 03월 10일
주 제	독감 약 광고
시놉시스	한일藥品(약품) / 우리집 감기약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103100020920202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1-03-10&officeId=00020&pageNo=2&printNo=1828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유행성 독감(毒感(독감)) 예방약이 나왔습니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82년 10월 29일
주 제	독감 약 광고
시놉시스	주식회사 녹십자 / 플루박스 유행성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다 단2회의 주사로 독감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2102900209209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10-29&officeId=00020&pageNo=9&printNo=1879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예방백신 國內(국내)생산 판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2년 11월 08일
주 제	국내 최초로 독감예방백신 판매 시작함
시놉시스	보사부에서 녹십자의 '플로박스'의 제조를 허가함으로써 독감백신을 생산시판할 계획에 있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2110800209211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11-08&officeId=00020&pageNo=11&printNo=18799&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백신의 국내 최초 생산 및 판매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肝炎(간염)·헤르페스예방 새약전 美(미)과학자가 개발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3년 10월 20일
주 제	헤르페스,간염,독감을 한번에 예방해주는 새 약전이 개발됨
시놉시스	미국에서 헤르페스, 간염, 독감을 단한번의 접종으로 동시에 예방하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어 발표함
인 용	뉴욕AP연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3102000209211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3-10-20&officeId=00020&pageNo=11&printNo=1909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백신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合併症(합병증)이 무섭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고려대의대 교수, 내과, 박승철
분 류	기사(칼럼/논단)
시 기	1983년 11월 19일
주 제	독감은 예방이 중요하며 합병증을 주의해야함
시놉시스	독감 바이러스는 수많은 종이 있고 계속 변형 되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에도 주의해야 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3111900209211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3-11-19&officeId=00020&pageNo=11&printNo=19117&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예방접종과 합병증
키워드	독감

제 목	"싱가폴독감,필리핀독감,브라질독감"-올겨울과 내년에 유행될 독감 이름입니다. 유행성 독감(毒感(독감))을 예방합시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83년 12월 24일
주 제	독감 예방백신에 대한 광고
시놉시스	녹십자주식회사 / 플루박스 (주)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312240020920202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3-12-24&officeId=00020&pageNo=2&printNo=19147&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백신
키워드	독감

제 목	美國(미국)에 毒感(독감)만연 千(천)4百(백)여명 사망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5년 01월 26일
주 제	미국에 독감으로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음
시놉시스	미국에 몇주간 유행성 독감과 폐렴이 번져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의 5% 수준을 넘어섰다고 미국보건당국자들이 발표함
인 용	애틀랜타UPI연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012600209207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01-26&officeId=00020&pageNo=7&printNo=19482&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학교마다 독감환자가 늘고있으나 양호실 시설이제...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5년 03월 20일
주 제	학교 양호실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환자들이 불편을 겪음
시놉시스	학교마다 독감환자들이 늘고 있으나 양호실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032000209210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03-20&officeId=00020&pageNo=10&printNo=1952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학교에서의 독감환자 대처
키워드	독감

제 목	지금 - 고열·두통·근육통...독감비상!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85년 04월 19일
주 제	어린이용 독감약 광고
시놉시스	한국바이엘약품 / 바아엘아스피린;바이엘아스피린 어린이용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041900209205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04-19&officeId=00020&pageNo=5&printNo=1955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어린이용
키워드	독감

제 목	세어린이 잇단死亡(사망) 保社部(보사부) "뇌신경마비·폐염증세"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5년 06월 07일
주 제	감기치료가 늦어져 세 어린이 잇달아 사망함
시놉시스	세 아이가 잇달아 사망하면서 괴질이 번진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늦어진 감기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짐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060700209211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06-07&officeId=00020&pageNo=11&printNo=19593&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아테네몰락 毒感(독감)때문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5년 10월 19일
주 제	그리스 아테네의 몰락이 독감때문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됨
시놉시스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몰락의 이유는 악성독감과 그 후유증인 유독성쇼크증후군이었다는 학설이 미국 의학지에서 발표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101900209203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0-19&officeId=00020&pageNo=3&printNo=1970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患者(환자) 첫 확인 蘇聯(소련)B型(형)독감 非常(비상)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5년 12월 30일
주 제	소련B형독감 환자가 첫 확인되어 주의하고 있음
시놉시스	소련B형바이러스가 올해 국내 처음 발견되었으나 추가로 더 발견될 경우 독감주의보를 내릴 예정임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12300020921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2-30&officeId=00020&pageNo=11&printNo=19769&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 알보면관절염,심장병으로...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86년 01월 06일
주 제	독감약 광고
시놉시스	대웅제약 / 지미콜;지미신;지미코;사브론;페노프론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6010600209205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01-06&officeId=00020&pageNo=5&printNo=19772&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아스피린제품에 경고문 의무화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6년 10월 02일
주 제	어린이가 아스피린(감기약)복용할 경우 레이증후군 위험성있음
시놉시스	15세 이하 어린이가 아스피린제를 복용할 경우 레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그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6100200209211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10-02&officeId=00020&pageNo=11&printNo=20001&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감기약 아스피린
키워드	독감

제 목	感氣(감기)치료 쉬워진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7년 10월 27일
주 제	미국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치료약을 개발함
시놉시스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화학물질(키닌스)을 발견하여 이를 이용한 치료약을 만들어내 관심을 모으고 있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102700209207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7-10-27&officeId=00020&pageNo=7&printNo=20328&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감기약의 개발
키워드	독감

제 목	인플루엔자A대만형 독감한국상륙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광고
시 기	1988년 04월 05일
주 제	독감약 광고
시놉시스	한일약품 / 화이투벤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4050020920802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4-05&officeId=00020&pageNo=8&printNo=20463&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약
키워드	독감

제 목	환절기 감기조심
매 체	한겨레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8년 09월 02일
주 제	환절기에 감기를 조심해야하고 합병증을 주의해야 함
시놉시스	가을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하여 신체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질환을 주의해야 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90200289108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9-02&officeId=00028&pageNo=8&printNo=95&publishType=0001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주의보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9년 01월 14일
주 제	신종 사천A형 독감이 유행하여 인플루엔자주의보를 발표함
시놉시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사천A형인플루엔자가 유행하여 보사부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표함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11400209214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01-14&officeId=00020&pageNo=14&printNo=20705&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어린이 감기와 약
매 체	한겨레
저 자	홍창의 서울의대 명예교수
분 류	기사(칼럼/논단)
시 기	1989년 05월 05일
주 제	아이에게 감기약을 함부로 먹이면 위험함
시놉시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말것. 특히 아스피린은 라이증후군이라는 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50500289108008&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89-05-05&officeId=00028&pageNo=8&printNo=302&publishType=0001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毒感(독감)으로 X마스休校(휴교) 蘇(소),국교생 결석많아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89년 12월 26일
주 제	소련에서 독감이 유행하여 크리스마스날 휴교함
시놉시스	독감이 만연하는 소련에는 독감으로 결석이 심해 학교별로 휴교하거나 방학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122600209204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12-26&officeId=00020&pageNo=4&printNo=20996&publishType=00020
관련 의학 문제	소련의 독감
키워드	독감

제 목	「겨울속 봄」 3주일 생활리듬 깨졌다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김용태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1990년 01월 08일
주 제	이상 기온 및 심한 일교차로 춘곤증, 독감 등의 문제 발생
시놉시스	겨울임에도 심한 일교차와 함께 영상의 봄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용품 판매량 감소 및 춘곤증을 비롯한 독감 등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짐. 그 원인으로 온실효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고양군 수재민 3천명/올겨울 천막신세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권순억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1990년 09월 19일
주 제	감기 몸살을 앓는 수재민 급증
시놉시스	집단 수용시설 및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최근 밤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감기, 몸살환자들이 급증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전국에 독감주의보/상하이A형/오한·고열... 폐렴등 합병증도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91년 01월 09일
주 제	전국에 상하이A형 독감 주의보
시놉시스	감기 환자들에게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상하이A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전국에 독감주의보를 내리고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을 권고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인플루엔자 주의보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91년 11월 26일
주 제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표함
시놉시스	전국에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표하고 질병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시도와 대한의학협회에 당부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Commentary	매년 10~11월경부터 대부분의 언론사(동아,국민,경향,세계,한겨레 등)에서 이와 같은 인플루엔자 주의보에 관한 기사가 남.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황설수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컬럼, 논단
시 기	1991년 12월 14일
주 제	독감의 증상, 역사, 전과경로, 예방법
시놉시스	감기환자에서 북경A형 및 파나마B형과 유사한 바이러스가 분리되면서 독감경보 내려짐. 호흡기를 통해 전파됨으로 사람많은 곳을 피하고 위생에 철저히 하여 독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예방, 치료
키워드	독감

제 목	맑은 하늘 없는 겨울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사설
시 기	1991년 12월 15일
주 제	대기오염의 심각성
시놉시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에게 각종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고 악화시킴. 오염예방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가난탓에 감기로 잃은 첫아이(동네방네)
매 체	한겨레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컬럼, 논단
시 기	1991년 12월 29일
주 제	가난 때문에 감기몸살을 앓던 4개월된 아들 사망
시놉시스	병원치료비가 없어 가정요법으로 감기몸살에 걸린 아이를 돌봐오던 부부의 아들이 끝내 사망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부시 일 만찬중 졸도/어젯밤/오늘일정 일부 취소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92년 01월 09일
주 제	방일 중이던 부시 미국대통령이 독감으로 만찬도중 졸도
시놉시스	일본을 방문중인 조지부시대통령이 만찬도중 졸도함. 백악관 주치의의 검진결과 유행성감기와 위장염 진단이 내려짐.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독감

제 목	'공해추방 앞장' 은행원 박종권씨(인터뷰)
매 체	한겨레
저 자	신동호 기자
분 류	인터뷰 기사
시 기	1992년 10월 15일
주 제	공해가 심한 곳에 살면서 감기 등의 건강문제 발생
시놉시스	공해가 심한 곳에 살면서 아내가 기침과 감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한 후 아내의 증상이 호전됨. 이 후 '공해추방운동연합'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중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철새가 유행성독감 전파/세계보건기구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매 체	한겨레
저 자	김효순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1993년 05월 13일
주 제	유행성 독감바이러스가 철새에 의해 전파됨이 밝혀짐
시놉시스	WHO 연구결과, 철새에 의해 세계 각지로 유행성독감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것이 밝혀짐.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이상한 여름/물놀이 가전품업자 울상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93년 07월 23일
주 제	이상저온현상 지속 및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환자 급증
시놉시스	예년기온을 밑도는 이상저온현상이 지속되면서 10도를 넘는 일교차 때문에 감기환자가 급증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손 자주 씻어야 감기 예방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홍명호 기자
분 류	기획,연재
시 기	1994년 11월 12일
주 제	감기는 손으로 전파되므로 손을 씻어 감기를 예방하자
시놉시스	감기바이러스는 손으로 통해 전파되므로 환절기에는 집에 오면 반드시 양치질과 손을 씻어야만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감기,특효약이없다/박용우 고려병원평생건강관리클리닉(굿모닝365일)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박용우 기자
분 류	기획연재 기사
시 기	1995년 03월 02일
주 제	감기 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가 중요
시놉시스	감기에는 특효약이 없으므로 주사를 맞기보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로 스스로의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치료
키워드	독감

제 목	집집마다 여름감기 비상
매 체	한겨레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95년 06월 15일
주 제	예년에 없던 증상이 심한 여름감기 유행
시놉시스	고열과 기침, 무기력함,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 여름감기가 유행함. 유행성 독감이 아닌 보통감기 증상이 매년 더 심해지는 것은 환경오염때문으로 추정하지만 명확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고층아파트 어린이 약하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95년 06월 28일
주 제	고층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감기천식에 잘 걸림
시놉시스	저층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보다 밖에서 뛰어 노는 시간이 적어 운동량이 부족함에 따른 심폐 기능 약화와 온도변화 적응력 저하로 인해 감기에 잘 걸림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원인
키워드	독감

제 목	감기 인플루엔자 뇌증 일으킨다/일본서 확인...고열·경련 높은사망률
매 체	한겨레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95년 10월 25일
주 제	감기바이러스가 뇌와 척수에 침입하여 급성뇌증을 일으킴
시놉시스	일본 연구팀에 의해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뇌와 척수로 침입하여 치사율이 높은 급성뇌증을 일으킴을 세계 최초로 밝힘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의 증상 및 영향
키워드	독감

제 목	전교생 75% 독감 이틀간 휴교조치/전북 익산 남산국교
매 체	세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1995년 11월 18일
주 제	유행성독감으로 남산국민학교 이틀간 휴교조치
시놉시스	전교생의 75%가 독감을 앓고 있어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남산국민학교에서 이틀간 휴교조치를 취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LG그룹,전임직원 무료 독감백신 주사/희망자 3만여명 접종
매 체	한국경제
저 자	정종호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1995년 11월 19일
주 제	LG그룹에서 무료로 전임직원에게 독감백신 주사제공
시놉시스	LG그룹에서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전 임직원에게 독감백신주사를 무료접종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예방백신
키워드	독감

제 목	전국에 독감주의보 발령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윤홍식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0년 01월 01일
주 제	국립보건원, 전국에 독감 주의보 발령
시놉시스	지난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가동한 결과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증가되어 전국에 독감 주의보 발령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美·英 '살인독감' 기승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이병모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0년 01월 11일
주 제	미국과 영국에 최악의 독감으로 사망자 속출함
시놉시스	미국과 영국에 독감이 확산되어 노약자의 사망소식이 들려오고 있음. 의료진의 손이 부족하여 독감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유행
키워드	독감

제 목	[건강]독감 예방주사 지금 맞으면 효과 볼까?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이성주 기자
분 류	기사(해설)
시 기	2000년 01월 14일
주 제	독감 예방주사 접종 시기
시놉시스	독감백신은 접종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므로 당장 효과를 볼수는 없으나 이후에 유행할 독감을 대비하여 지금 접종하는 것을 권함.
인 용	도움말: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송재훈교수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예방접종
키워드	독감

제 목	지구촌 괴질 비상 - 각국공항 검역 강화...신종 독감바이러스 가능성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문영두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3년 03월 18일
주 제	SARS가 아시아에서 호주, 유럽, 북미대륙으로 급속히 확산됨.
시놉시스	세계적으로 SARS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각 국이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 보건 검역 강화함. 의심할 수 있는 병원균 중 하나는 신종 독감 바이러스라고 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SARS

제 목	사스전쟁보다 더 '충격과 공포' - 세계경제에 직접 타격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홍인표, 이상연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3년 04월 07일
주 제	SARS로 인해 세계 경제에 영향
시놉시스	전세계적인 SARS공포로 인해 국제 회의, 행사등이 취소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SARS

제 목	사스 사망 100명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황유성 특과원
분 류	기사
시 기	2003년 04월 08일
주 제	전세계 20개국에서 사스로 사망환자 100명으로 집계됨
시놉시스	WHO는 사스감염자가 현재 2721명, 사망자가 100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SARS

제 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원인균으로 확인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런던/AP연합
분 류	기사
시 기	2003년 04월 17일
주 제	사스 원인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밝혀짐
시놉시스	WHO에서는 연구를 통해 사스 원인균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SARS

제 목	테러보다 무서운 사스공포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이광형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3년 05월 26일
주 제	사스 영향으로 내국인 출국자 사상최저 기록
시놉시스	사스 감염 위험이 있는 아시아 지역 출국자는 절반이상 감소됨. 사스의 영향으로 내국인 출국자가 사상최저 기록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SARS

제 목	국내 첫 SI '추정환자'발생 / SI? 북미인플루엔자? 멕시코인플루엔자?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조은아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9년 04월 29일
주 제	SI에대한 명칭둘러싸고 국내외 논란
시놉시스	최근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를 두고 돼지 인플루엔자인가, 북미 인플루엔자인가, 멕시코 인플루엔자인가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SI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오바마, 취임 100일 기자회견 / “SI 확산에 비상대책 강구”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김명호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9년 05월 01일
주 제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SI확산에 비상대책 강구중이라고 함
시놉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S 확산문제를 언급하며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세계의 관심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북한도 '신종 플루' 대책 마련 나서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김영석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9년 05월 02일
주 제	북한도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마련중임
시놉시스	WHO의 신종플루 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북한도 국가적인 대책에 나섰다고 보도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신종 플루 비상 / 정부 발표 갈팡질팡... 국민 불안감은 증폭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문수정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9년 05월 02일
주 제	신종플루 비상방역체제가동중이나 국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음
시놉시스	신종 인플루엔자 비상방역체제가 가동되었으나 정부는 부정확한 발표를 거듭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 불안감 확산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신종 플루 감염 의심환자와 가까이 앓은 사람도 '격리'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문수정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9년 05월 14일
주 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 가까이 앓은 사람도 격리
시놉시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비행기 안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 의심환자뿐만 아니라 의심환자와 가까이 앓은 사람들까지 별도 시설에 격리키로 했다고 발표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신종플루 격리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과학칼럼] '대유행 플루'에 맞서는 무기
매 체	한겨레
저 자	저작권 김재홍 기자
분 류	컬럼, 논단
시 기	2009년 05월 16일
주 제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방안
시놉시스	증상발현 48시간 안에 타미플루를 복용하도록 하고 또다른 신종 대유행 인플루엔자가 출현하기 전에 신속한 백신생산을 하도록 한다.
인 용	김재홍 서울대교수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신종플루 대처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신종플루' 첫 휴교 - 호주 단체방문 학생중 1명 확진,전북 초등학교 1곳 7일까지 문닫아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박용근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9년 07월 03일
주 제	전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신종플루로 임시휴교 실시
시놉시스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호주다녀온 한 학생이 신종플루로 확진받아 임시휴교를 결정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신종플루 7월에만 600여명 감염 '급증'
매 체	한겨레
저 자	김양중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9년 07월 20일
주 제	신종플루 환자 급증
시놉시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 환자가 급증됨.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 사례도 자주 생겨 보건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신종플루 대유행 공포 / WHO 총장 "겨울철 북반구서 기승 우려"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장택동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09년 08월 18일
주 제	WHO사무총장이 신종플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함.
시놉시스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 공포로 WHO 사무총장이 이제부터 북반구에서 더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것을 촉구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신종플루

제 목	베일 벗은 '감기', 바이러스 감염 대재난 현실적 공포로 담았다
매 체	세계일보
저 자	윤기백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8월 07일
주 제	영화 '감기' 현실적인 의료재난 공포 다룬 작품
시놉시스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영화인 '감기'는 이제껏 위험성을 의식하지 못한 감기가 인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공포를 다룸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영화 감기

제 목	고용량 플루존, 표준용량보다 독감예방 효과 우수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메디칼트리뷴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8월 27일
주 제	독감백신 '플루존고용량'이 기존 플루존에 비해 효과 우수함
시놉시스	사노피의 계절독감백신 '플루존 고용량'이 기존 플루존보다 65세 이상의 성인 독감예방에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독감 예방백신
키워드	독감

제 목	SK케미칼, 세포 배양 백신 임상 3상 돌입... 2014년 상용화 목표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이영수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8월 27일
주 제	SK케미칼은 인플루엔자 백신 3상임상계획 승인 후 연구돌입
시놉시스	SK케미칼은 식약청으로부터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3상 임상계획을 승인받고 연구에 돌입함.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임
인 용	확인불가
링 크	
관련 의학 문제	플루 백신 개발
키워드	독감

<진드기>

제 목	中, 살인 진드기 병원체 확인.. “신형 부니아 바이러스”
매 체	아시아투데이
저 자	추정남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0년 09월 13일
주 제	중국에 살인 진드기의 병원체가 밝혀짐
시놉시스	중국에서 33명의 사망자를 낸 살인 진드기의 병원체가 신형 부니아 바이러스로 밝혀짐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살인 진드기의 병원체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베이징 또 진드기 공포 올 2월까지 36명 사망
매 체	아시아투데이
저 자	추정남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1년 06월 17일
주 제	살인진드기가 베이징에서 다시 유행함
시놉시스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했던 살인진드기가 베이징에서 다시 유행하면서 36명이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악! 살인 진드기 봤다!...중국,일본 이어 한국도 술렁~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조현우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2월 01일
주 제	한국에도 살인진드기를 목격했다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옴
시놉시스	모 포털사이트에 살인진드기를 한국에서 봤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中 살인진드기 일본에도 서식
매 체	문화일보
저 자	박세영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2월 01일
주 제	중국의 살인진드기가 일본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시놉시스	일본의 한 여성이 중국의 살인진드기와 같이 진드기가 옮긴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려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일본 전염병 유행은 살인진드기로 3명 숨져
매 체	세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2월 13일
주 제	살인진드기로 숨진 일본인이 3명으로 늘어남
시놉시스	일본에서 진드기가 유행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총 3명이 숨짐.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살인 진드기 국내에도 존재... '바이러스 미검출'
매 체	세계일보
저 자	확인불가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2월 14일
주 제	질병관리본부는 'SFTS'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 강화하기로 함
시놉시스	중국과 일본에서 살인진드기로 인한 사망이 잇따르자 우리나라도 감시 강화에 나섬.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일본 살인 진드기 사망자 7명으로 늘어
매 체	세계일보
저 자	김동환 인턴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4월 11일
주 제	일본에서 살인진드기로 인한 'SFTS'에 의해 7명이 사망함
시놉시스	일본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7명이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중국, 일본 살인진드기 국내서도 발견
매 체	문화일보
저 자	유민환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02일
주 제	살인진드기가 국내에서도 서식중인 것으로 나타남
시놉시스	일본과 중국에서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을 전파하는 살인진드기가 국내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국내서도 발견
매 체	경향신문
저 자	송윤경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03일
주 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서식
시놉시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작은소참진드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살인진드기바이러스발견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제주서 살인진드기 의심환자 발생~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주미령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14일
주 제	제주에서 살인진드기 의심환자 발생하여 역학조사중
시놉시스	제주에서 치료중인 환자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심환자로 분류되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긴급] 국내 첫 살인진드기 의심환자 사망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김철오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16일
주 제	국내 첫 살인진드기 의심환자 사망
시놉시스	제주에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살인진드기 의심환자 사망, 치료제 백신없어 공포 확산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주미령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17일
주 제	살인진드기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음.
시놉시스	국내 살인진드기 의심환자 사망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중임. 살인진드기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 없어 불안감 증폭.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제주 살인진드기 의심환자 국내 첫 사망.. 야외활동의 계절 예방대책은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임재영, 유근형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17일
주 제	제주의 살인진드기 의심환자 국내 첫 사망. SFTS에 대한 정보.
시놉시스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발병하는 SFTS 의심환자가 제주도에서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괴바이러스 공습에 속수무책
매 체	문화일보
저 자	유민환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20일
주 제	SFTS바이러스 외에도 세계적으로 신종바이러스에 불안감 증폭됨
시놉시스	동아시아 지역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가, 중동 및 유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살인 진드기 의심환자 10명으로 늘어나
매 체	한겨레
저 자	손준현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20일
주 제	질병관리본부는 SFTS의심환자가 10명으로 늘었다고 밝힘
시놉시스	질병관리본부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벌여 총 10명의 SFTS의심환자를 찾아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사망자 국내 첫 확인
매 체	세계일보
저 자	이은정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21일
주 제	국내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됨
시놉시스	질병관리본부가 역추적조사 결과 한 환자의 검체에서 SFTS 바이러스가 발견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제주서도 살인진드기 사망자 확인
매 체	한겨레
저 자	허호준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5월 24일
주 제	강원도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살인진드기 사망자 확인됨.
시놉시스	살인진드기바이러스 의심환자로 치료중 숨진 환자에게서 SFTS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확진 7건으로 늘어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김현섭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6월 05일
주 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감염확진 환자가 증가함
시놉시스	SFTS의심신고사례 85건 중 확진환자가 7명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4명의 환자가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서울시, 한강공원 등 22개 공원에서 작은소참진드기 실태조사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최정욱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6월 11일
주 제	SFTS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실태조사를 한다고 함
시놉시스	서울시는 한강공원 등 22개 공원에서 작은소참진드기 실태조사를 하여 시민불안을 감소시키겠다고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살인진드기 국내 감염환자 11명으로 증가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김철오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6월 28일
주 제	국내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환자 11명으로 증가됨
시놉시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자가 11명으로 증가됨. 그 중 5명은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제4군 감염병 지정
매 체	국민일보
저 자	조민규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7월 31일
주 제	보건복지부는 SFTS에 대해 제 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함
시놉시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SFTS를 제4군감염병에 지정하기로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살인 진드기

제 목	수도권 첫 진드기 사망자 발생, 감염자 중 50% 사망 “전국적 주의 필요”
매 체	세계일보
저 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분 류	기사
시 기	2013년 08월 11일
주 제	수도권에도 첫 진드기 사망자 발생함
시놉시스	인천지역에서도 진드기 사망자 발생. SFTS 확진 사례는 22건이며 이중 50%인 11명이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쯔쯔가무시>

제 목	人間社會(인간사회)와 微生物社會(미생물사회) (上(상))
매 체	동아일보
저 자	확인불가(서울대의대 교수)
분류	기사(컬럼/논단)
시 기	1960년 03월 16일
주 제	인간은 미생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대항능력이 아직 부족함
시놉시스	인간은 미생물과 공존해야하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역병(쯔쯔가무시 포함)에 대해 아직 대처능력이 부족함
인 용	
링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31600209104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0-03-16&officeId=00020&pageNo=4&printNo=11667&publishType=00010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수입 전염병'방역대책 비상
매 체	한겨레
저 자	확인불가
분류	기사
시 기	1989년 04월 11일
주 제	해외여행 자유화로 수입 전염병(쯔쯔가무시 포함)이 유행하고 있음
시놉시스	국제간 교류와 해외여행 자유화로 수입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 토착화를 방지해야 함
인 용	
링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4110028910800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9-04-11&officeId=00028&pageNo=8&printNo=281&publishType=00010
관련 의학 문제	국경을 넘는 전염병의 확산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쓰쓰가무시 비상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1년 09월 27일
주 제	10-11월에 쓰쓰가무시 유행 예상
시놉시스	보건사회복지부가 10-11월에 쓰쓰가무시의 유행을 예상하며 야외활동에 주의하라고 당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쓰쓰가무시의 가을철 유행
키워드	쓰쓰가무시

제 목	가을들판 ‘쓰쓰가무시병’ 주의보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2년 10월 23일
주 제	가을날 쓰쓰가무시병을 주의해야 함
시놉시스	쓰쓰가무시병은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가을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털진드기

제 목	농촌 쓰쓰가무시병/진단시약 최초 개발/서울대의대 김익상 교수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3년 07월 02일
주 제	쓰쓰가무시병의 진단시약이 세계 최초로 서울대에서 개발됨
시놉시스	쓰쓰가무시병의 진단시약이 세계 처음으로 국내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 개발되어 보고회를 통해 발표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쓰쓰가무시 병의 진단시약
키워드	쓰쓰가무시

제 목	쓰쓰가무시병 환자/호남서 4명 발생/농민들에 주의 당부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3년 10월 23일
주 제	호남지역 농촌에서 쓰쓰가무시병 환자 발생
시놉시스	가을 추수기를 맞아 호남지역 농촌에서 쓰쓰가무시 환자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쓰쓰가무시의 가을철 유행
키워드	쓰쓰가무시

제 목	쓰쓰가무시병 주의보/보사부 논발서 긴옷입기 당부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3년 11월 07일
주 제	보건사회부가 쓰쓰가무시병 주의보를 내림
시놉시스	가을 전염병인 쓰쓰가무시병은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보사부에서 주의보를 발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쓰쓰가무시의 예방
키워드	쓰쓰가무시

제 목	쓰쓰가무시병 주의보/감기증세... 농촌서 많이 발생/환자 천여명 넘어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3년 11월 07일
주 제	보사부가 쓰쓰가무시병 주의보 내림
시놉시스	환자 천여명이 넘는 쓰쓰가무시 병에 대해 보사부는 주의보를 발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쓰쓰가무시병의 증가
키워드	법정2종 전염병

제 목	유행성출혈열·쯔쯔가무시병/가을전염병 주의보
매 체	한국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4년 09월 13일
주 제	추수철을 맞아 보건사회부에서 쯔쯔가무시병 주의보를 내림
시놉시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보사부에서 당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쯔쯔가무시의 가을철 유행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쯔쯔가무시병/“치료 쉬워졌다”/울산대 송재훈 교수팀 새치료법 개발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이기수 기자
시 기	1994년 11월 26일
주 제	울산의대 연구팀에서 쯔쯔가무시병 치료법 개발
시놉시스	울산의대 송재훈 교수팀에서 독시 사이클리 항생제를 이용한 쯔쯔가무시병 치료법을 개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쯔쯔가무시병의 치료
키워드	털진드기

제 목	치명적인 겨울 유행성질환 “조심”유행성출혈열-쯔쯔가무시 등 대표적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주태형기자
시 기	1995년 01월 30일
주 제	쯔쯔가무시에 대한 정보
시놉시스	가을에 감염 후 잠복기를 거쳐 겨울에 발병하는 치명적인 겨울 유행성 질환에 대한 정보(쯔쯔가무시 포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겨울 유행성질환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쯔쯔가무시병 증세 환자 추수철 농민 10여명 발생/담양·광주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5년 10월 26일
주 제	가을에 쯔쯔가무시병 환자 10명 발생
시놉시스	추수철을 맞아 전남에서 쯔쯔가무시(법정 2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쯔쯔가무시의 가을철 유행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가을철 급성전염병 조심/복지부 예방대책 시-도 시달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이돈성기자
시 기	1996년 09월 06일
주 제	보건복지부에서 가을철 전염병 예방대책을 전국시도에 시달함
시놉시스	가을을 맞아 급성전염병(쯔쯔가무시) 유행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예방대책을 전국시도에 시달하였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쯔쯔가무시」 올해 첫 발생/청양서 50대여인 발일한뒤 고열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임정재 기자
시 기	1996년 10월 24일
주 제	충남 청양에서 쯔쯔가무시 환자 발생
시놉시스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는 쯔쯔가무시 환자가 올해 처음 충남 청양에서 발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쓰쓰가무시 환자 숨져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7년 11월 02일
주 제	춘천에서 쓰쓰가무시 환자가 사망함
시놉시스	쓰쓰가무시 환자가 쓰쓰가무시로 진단받은지 하루만에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쓰쓰가무시

제 목	국경 모르는 전염병 '전파'의 힘이 강해졌다
매 체	문화일보
분 류	특집기획,연재
저 자	이기수 기자
시 기	1999년 06월 28일
주 제	생활환경, 기후 등의 변화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 추세임
시놉시스	생활환경이나 기후 등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신종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퇴치된 전염병이 재유행하거나 특정계절 전염병이 연중발생하고 있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1 기사링크2
관련 의학 문제	쓰쓰가무시병의 전파
키워드	털진드기병

제 목	가을철 전염병 확산 우려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1999년 09월 10일
주 제	국립보건원이 각 시도에 가을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시달함
시놉시스	국립보건원은 가을을 맞아 가을철 열성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각 시도에 시달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경기 쯔쯔가무시환자 올해 64명 발생
매 체	한겨레
분 류	기사
저 자	홍용덕 기자
시 기	1999년 12월 11일
주 제	올해 경기도에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64명 발생
시놉시스	경기도에서 올해 64명의 쯔쯔가무시 환자가 발생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경기 熱性전염병 비상
매 체	문화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형운 기자
시 기	2000년 10월 07일
주 제	경기도 지역에 가을철 열성질환이 증가함
시놉시스	경기도에 5년간 발생한 가을열성질환(쯔쯔가무시 포함)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쯔쯔가무시병 발생의 증가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가을철 열성 전염병 쯔쯔가무시 확산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확인불가
시 기	2000년 11월 02일
주 제	가을 쯔쯔가무시병 확산추세임
시놉시스	추수기에 들면서 쯔쯔가무시 환자들이 증가하며 그 중 2명이 숨짐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쯔쯔가무시병 발생의 증가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50대 홍역 의증 환자 '쯔쯔가무시'로 판명
매 체	매일경제
분 류	기사
저 자	이은파 기자
시 기	2000년 11월 24일
주 제	홍역의증 환자가 쯔쯔가무시 환자로 밝혀짐
시놉시스	홍역을 앓던 환자가 홍역이 아니라 쯔쯔가무시로 밝혀짐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영·호남 '쯔쯔가무시病' 확산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이상일, 김재한 기자
시 기	2001년 01월 12일
주 제	영호남지역에 쯔쯔가무시병 증가
시놉시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쯔쯔가무시 확산중임. 부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80%이상 증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쯔쯔가무시병의 증가

제 목	가을 전염병 해마다 급증 - 출혈열.쯔쯔가무시병...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이진구 기자
시 기	2001년 09월 07일
주 제	가을철전염병(쯔쯔가무시 포함)이 해마다 급증함
시놉시스	가을철 전염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추석 전후 및 추수기를 맞아 각별한 주의를 요구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가을철 쯔쯔가무시병의 증가

제 목	쯔쯔가무시 환자 급증 이달에만 517명 발병
매 체	한국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정진황 기자
시 기	2002년 10월 31일
주 제	쯔쯔가무시환자가 급증했다고 국립보건원이 발표함
시놉시스	쯔쯔가무시 환자가 지난달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이 발표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가을철 쯔쯔가무시병의 증가

제 목	쓰쓰가무시 등 발열성 질환 조심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배병우 기자
시 기	2003년 10월 27일
주 제	발열성 질환 환자 급증으로 야외활동시 주의요함
시놉시스	쓰쓰가무시 등 발열성 질환 환자급증하여 야외활동시 주의 요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쓰쓰가무시병의 증가

제 목	경기 급성열병환자 급증 - 쓰쓰가무시·렘토스피라등 작년보다 크게 늘어
매 체	문화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형운 기자
시 기	2004년 10월 22일
주 제	최근 경기지역에 급성열병환자가 급증함
시놉시스	경기도 지역에 가을철 급성열성질환 환자가 급증함 (예외, 쓰쓰가무시 환자는 감소)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쓰쓰가무시

제 목	가을 전염병 '쯔쯔가무시병' 비상-단풍놀이 갔다 온몸 단풍 든다.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이은정 기자
시 기	2004년 11월 02일
주 제	가을 쯔쯔가무시병 환자 증가추세임
시놉시스	가을이 되면서 쯔쯔가무시병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증가추세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가을철 쯔쯔가무시병의 증가

제 목	'가을 열병' 쯔쯔가무시 무공해 방제제 첫 개발 - 서울대 안용준교수 쾌거
매 체	경향신문
분 류	기사
저 자	김동은 기자
시 기	2004년 12월 25일
주 제	서울대에서 쯔쯔가무시 무공해 방제제 첫 개발
시놉시스	쯔쯔가무시병의 원인인 털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는 무공해 천연 방제제가 서울대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쯔쯔가무시의 예방
키워드	쯔쯔가무시

제 목	“별초·성묘때 쓰쓰가무시증 주의”
매 체	한국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권대익 기자
시 기	2005년 09월 08일
주 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석에 쓰쓰가무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함
시놉시스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석기간동안 가을철 전염병(쓰쓰가무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가을철 쓰쓰가무시병의 증가

제 목	[충북]충북지역 쓰쓰가무시病 ‘주의보’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장기우 기자
시 기	2005년 11월 04일
주 제	충북지역에 쓰쓰가무시 환자가 증가함
시놉시스	가을철을 맞아 충북지역에 쓰쓰가무시 환자가 증가함으로 주의를 당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가을철 쓰쓰가무시병의 증가

제 목	가을철 질환 쓰쓰가무시, 지난해 이어 환자급증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문준식 기자
시 기	2005년 11월 09일
주 제	쓰쓰가무시 환자가 증가함
시놉시스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쓰쓰가무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쓰쓰가무시병 발생의 증가
키워드	쓰쓰가무시

제 목	홍역 작년 7명 발병... 사실상 사라져 - 브루셀라·쓰쓰가무시는 급격히 증가
매 체	문화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순환 기자
시 기	2006년 07월 21일
주 제	홍역은 감소, 쓰쓰가무시는 증가 추세임
시놉시스	질병관리본부가 낸 '2005년 전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홍역은 감소하고 브루셀라와 쓰쓰가무시는 증가추세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쓰쓰가무시의 증가
키워드	쓰쓰가무시

제 목	기온 1도 오르면 전염병 4.3% 증가
매 체	동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김현지, 조은아 기자
시 기	2009년 01월 15일
주 제	기온이 오르면 전염병 역시 증가함
시놉시스	우리나라에서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1도 오르면 전염병 (쯔쯔가무시 포함)이 4.27%더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기후 온난화와 전염병

제 목	평균기온 상승의 무서움...1℃ ↑ 전염병 4.27% 늘어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신진호 기자
시 기	2009년 01월 15일
주 제	평균기온이 상승되면 전염병역시 늘어남
시놉시스	지구 온난화로 전염병 발생율이 증가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가운데 쯔쯔가무시 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지구 온난화와 전염병의 관계
키워드	쯔쯔가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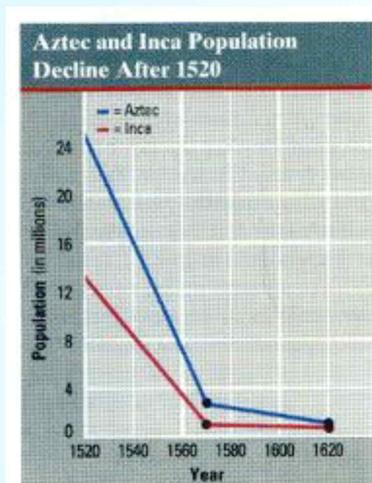
제 목	지난해 전염병 환자 10배 이상 급증
매 체	세계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신진호 기자
시 기	2010년 07월 03일
주 제	지난해 H1N1의 유행으로 전염병환자 급증
시놉시스	지난해 전염병 보고환자수 급증함. 신고건수는 신종플루90.3%, 결핵4.6%, 수두3.2%, 유행성이하선염0.8%, 쯤쯤가무시증0.6% 순임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키워드	쯤쯤가무시

제 목	쯤쯤가무시증 감염 주의보, 전년 대비 89.6% 증가
매 체	국민일보
분 류	기사
저 자	장윤형 기자
시 기	2012년 11월 16일
주 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쯤쯤가무시 환자가 급증함
시놉시스	질병관리본부는 쯤쯤가무시증이 최근 급증하면서 주민들에게 감염주의를 당부함
인 용	
링 크	기사링크
관련 의학 문제	쯤쯤가무시병의 증가
키워드	쯤쯤가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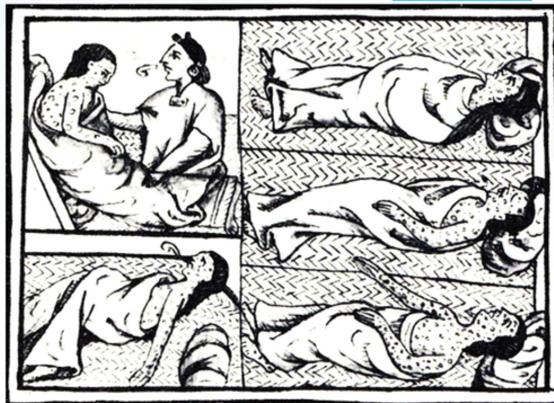
역사 속의 감염병

- + 문명을 증발시킨 감염병
 - + 아테네의 대역병
 - + 잉카와 천연두
- + 문명을 소진시킨 감염병
 - + 중세 유럽과 페스트
 - + 조선과 콜레라
 - + 아프리카와 HIV

천연두와 라틴 아메리카의 멸망



- ‘1520년 스페인이 안데스에 등장한 이후 살아남은 토착민은 12%가 되지 못했다’ (S. Watts)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천연두였습니다. 테페일휘틀의 달에 그것은 시작됐고, 사람들에게 퍼져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 얼굴, 머리, 가슴 등- 온몸에 (농포)가 뒤덮였습니다. 참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걷지 못해 방이나 집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세를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한쪽으로 몸을 누일 수도, 얼굴을 돌리 수도, 똑바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그들은 커다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천연두와 신대륙 개척

하나님의 권능으로

-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난 수의 원주민들을 천연두로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도착을 축복해 주었다”
- “올봄, 무역을 하는 가옥 근처에 살던 인디언 들은 천연두에 걸려 쓰러진 뒤 대부분 비참하게 죽었다. … 영국인들 중에는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고, 조그만 증상도 없었다 (17세기 청교도들의 기록)

• 전쟁 수단으로

- 그들(Fort Pitt를 포위하고 있던 인디언)을 배려해서 우리는 두 개의 모포와 손수건 한장을 주었다. 그것들은 천연두 병원에서 얻어온 것이었다. 나는 이것들이 바라는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한다 (1763. William Trent)
- 저 정나미 떨어지는 인디언 부족에 천연두를 보낼 방법을 찾아낼 수 없을까? 이 참에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 수중에 있는 모든 전략을 써서 그들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1763. Jeffery Amherst 경)
-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 기간에 몬트리올에서 들어온 천연두는 .. 판매되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 박스를 열어 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양철박스가 들어 있었다. 그들이 다시 그 박스를 열자 작은 곰팡이들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곧바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발생했다 (오타와 주 한 인디언 추장)

Harold B Gill Jr. Colonial Germ Warfare (2004)
S. Watts (1997)



감염병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S. Wa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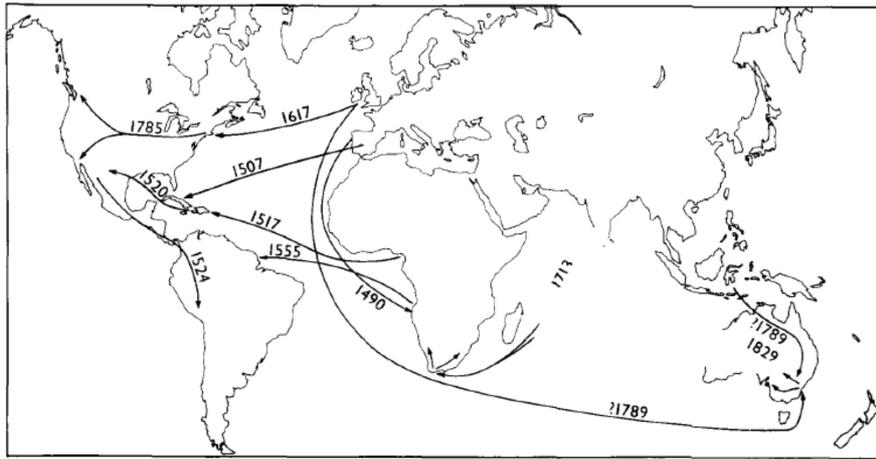


Fig. 5.5. The spread of smallpox to the Americas, South Africa and Australia with European exploration and colonization. It is not known whether the outbreaks among Australian aborigines in 1789 were caused by the transmission of the disease by ship from Great Britain or spread from islands of the East Indies to northern Australia.

감염병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S. Watts)



종말과 감염병

+ 요한계시록

그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 썼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 감염병 - 전쟁 - 기근 - 죽음

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 기도와 희생제물

+ 방역선의 구축

+ 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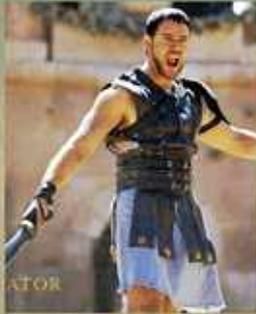


Apollo 11 astronauts go into quarant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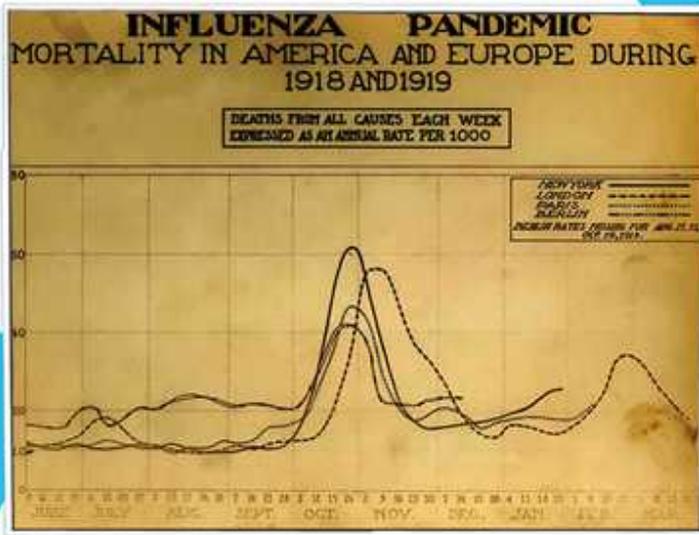


200만명/년	120만명/년	4천만명/2년
에이즈	말라리아	스페인 독감
		

1918년~1919년 스페인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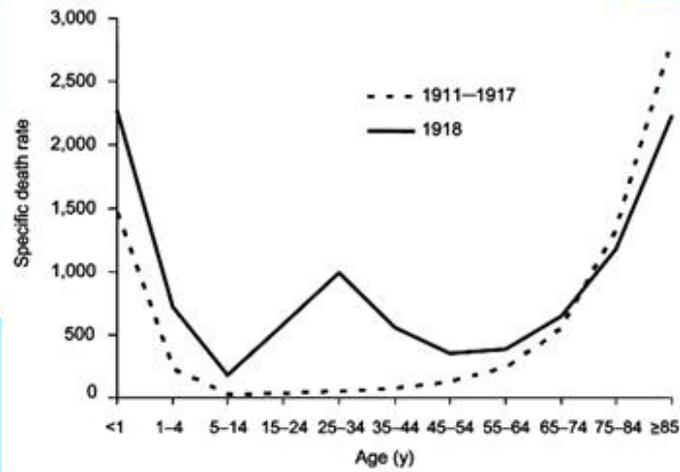


L'ÉPIDÉMIE D'INFLUENZA. - Vue intérieure de la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
10~20% 사망,
추정 사망자 4~6천만명

조선에도 독감이 확산되었던 것 같지만
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음
일제는 독감에 관심이 없었고,
말라리아와 기생충에만 관심이 있었다



<http://www.cdc.gov/hcidod/EID/vol12no01.05-0979.htm>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
10~20% 사망,
추정 사망자 4~6천만명

조선에도 독감이 확산되었던 것 같지만
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음
일제는 독감에 관심이 없었고,
말라리아와 기생충에만 관심이 있었다



매일신보 1918.11.28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
10~20% 사망,
추정 사망자 4~6천만명

조선에도 독감이 확산되었던 것 같지만
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음
일제는 독감에 관심이 없었고,
말라리아와 기생충에만 관심이 있었다

스페인 독감은 잊혀진 병

- + 제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감염병
 - + 수많은 죽음 중에서 발생한 또다른 죽음
- + 재등장하지 않고 1회적인 유행으로 끝남
 - + 면역력을 갖게 된 이후 다시 재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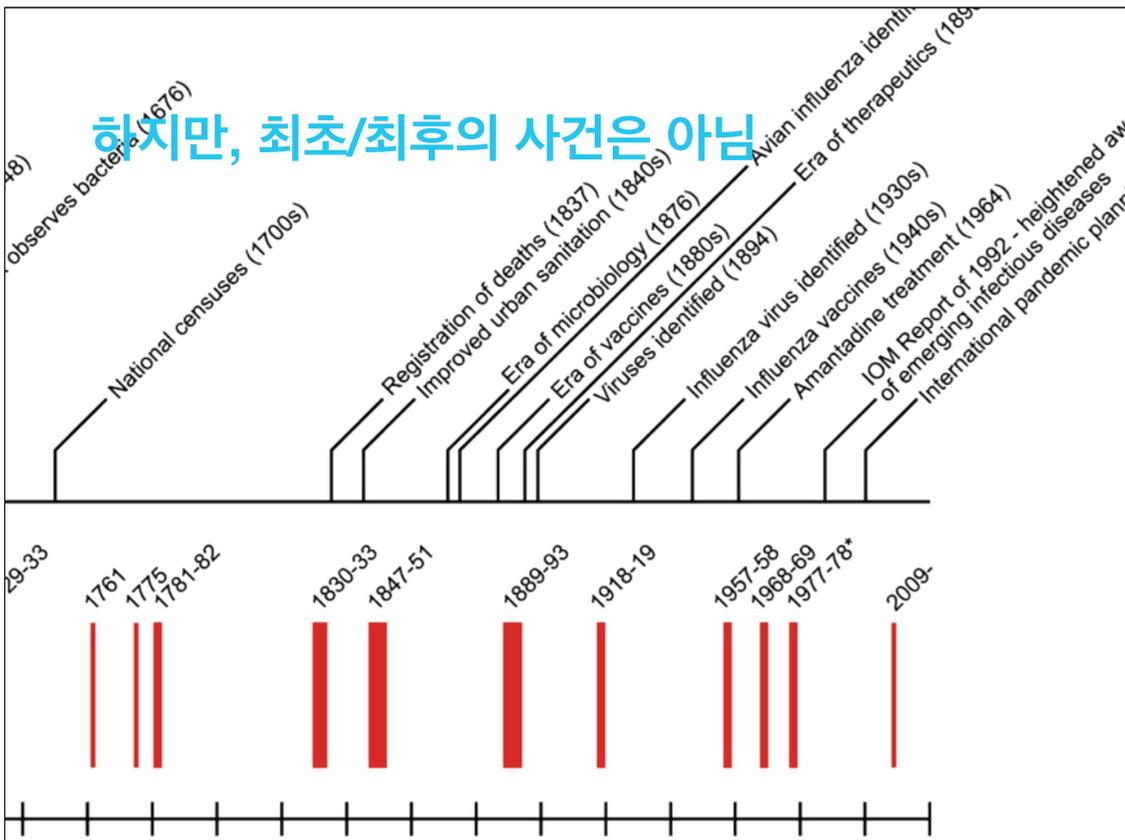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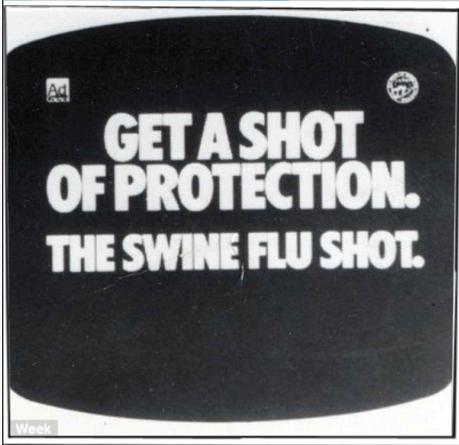
1918년 스페인독감은 왜 심각했을까?

- + 인류가 한동안 노출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였을 것이다.
- + 특히 젊은 세대는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없었던 것
- + 젊은 세대의 강한 체력 +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 = 심각한 결과



Dartmouth Medicine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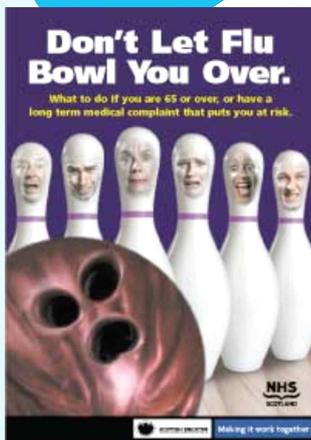




돼지 독감 사건

- 미국질병통제센터(CDC)
 - 돼지인플루엔자(swine flu) 발견
 -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전염
- 1976년 Ford 대통령
 -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접종 권유
 - 134백만달러 비용(의회; 요구된 예산을 승인)
- 1976년 10월 1일 접종 시작
 - 피츠버그; 예방접종 10일만에 노인 3명이 접종 직후 사망
 - 보건기관; 접종과 사망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주장
 - 대중매체; “사망자 수” 추적조사 시작

21



돼지 독감 사건

- 미국질병통제센터(CDC)
 - 돼지인플루엔자(swine flu) 발견
 -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전염
- 1976년 Ford 대통령
 -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접종 권유
 - 134백만달러 비용(의회; 요구된 예산을 승인)
- 1976년 10월 1일 접종 시작
 - 피츠버그; 예방접종 10일만에 노인 3명이 접종 직후 사망
 - 보건기관; 접종과 사망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주장
 - 대중매체; “사망자 수” 추적조사 시작

21

돼지 독감 사건

- 미국질병통제센터(CDC)
 - 돼지인플루엔자(swine flu) 발견
 -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전염
- 1976년 Ford 대통령
 -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접종 권유
 - 134백만달러 비용(의회; 요구된 예산을 승인)
- 1976년 10월 1일 접종 시작
 - 피츠버그; 예방접종 10일만에 노인 3명이 접종 직후 사망
 - 보건기관; 접종과 사망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주장
 - 대중매체; “사망자 수” 추적조사 시작



21

돼지 독감 사건

- 미국질병통제센터(CDC)
 - 돼지인플루엔자(swine flu) 발견
 -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전염
- 1976년 Ford 대통령
 -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접종 권유
 - 134백만달러 비용(의회; 요구된 예산을 승인)
- 1976년 10월 1일 접종 시작
 - 피츠버그; 예방접종 10일만에 노인 3명이 접종 직후 사망
 - 보건기관; 접종과 사망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주장
 - 대중매체; “사망자 수” 추적조사 시작



21

- 1976년 10월 14일

-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접종을 황금시간 대에 방영하여 대중을 안심시키려 함

- 1976년 11월

- 미네소타 의사; 길리안 바레 증후군(Guillian Barre Syndrome) 발생 보고
- 감시활동 결과; GBS의 증가된 발병률은 돼지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됨



- 1976년 12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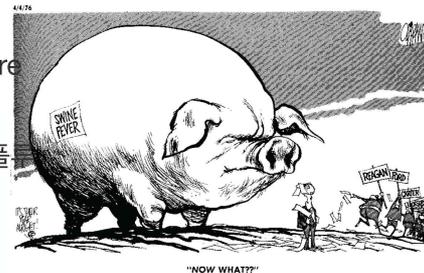
- 강제예방접종 중단
- 45백만명에게 접종이 실시됨.
- 1977년; 연방정부는 입장을 변경함.

- 1976년 10월 14일

-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접종을 황금시간 대에 방영하여 대중을 안심시키려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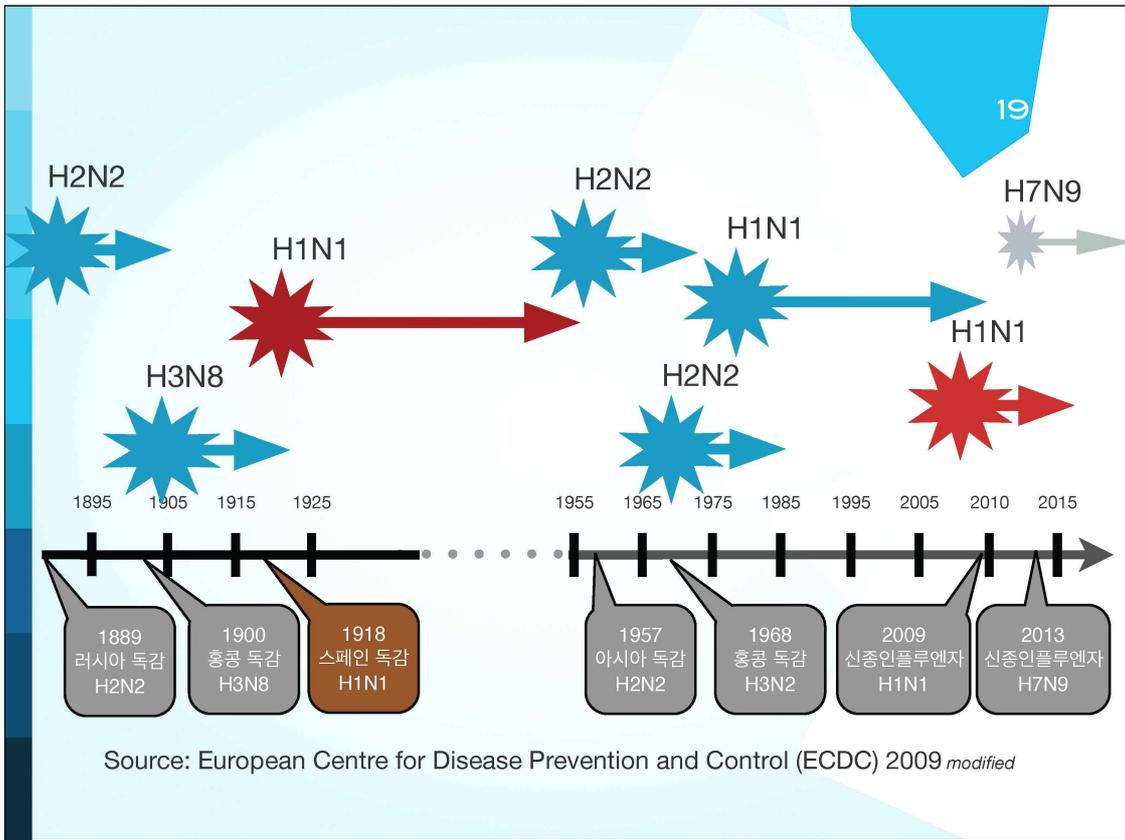
- 1976년 11월

- 미네소타 의사; 길리안 바레 증후군(Guillian Barre Syndrome) 발생 보고
- 감시활동 결과; GBS의 증가된 발병률은 돼지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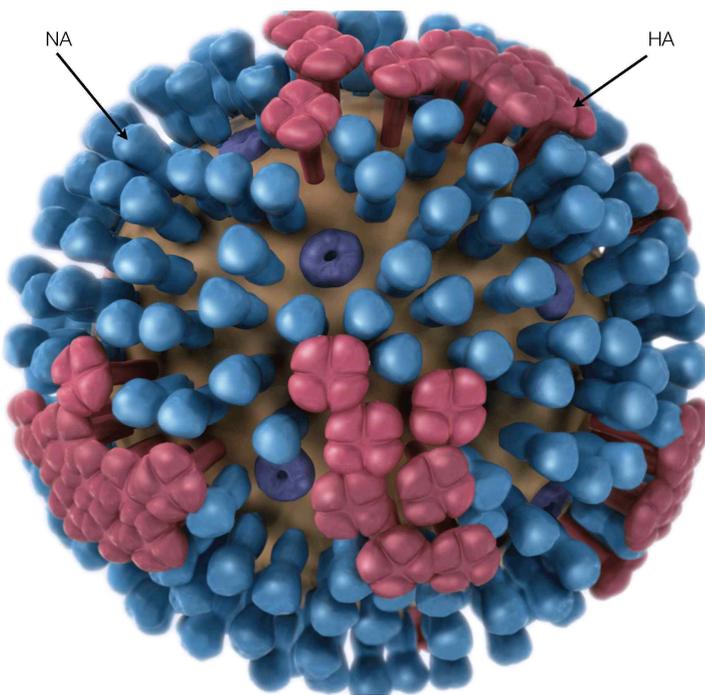
- 1976년 12월 16일

- 강제예방접종 중단
- 45백만명에게 접종이 실시됨.
- 1977년; 연방정부는 입장을 변경함.



‘새로운’ 바이러스

- + 인류가 만나 적응하지 못한 바이러스
 - + 동물과 인간이 접촉하면서 생길 수 있음
- + 인간이 적응한 바이러스에 변화가 생김
 - + 새로운 전염력 + 독성 + 인간 사회의 변화



인플루엔자의 구조와 감염될 수 있는 질병

Bird flu and danger to humans H5N1

Wife
 Infections remain a rare event*

Infection with type A virus H5N1
 1 About 60% of the virus makes copies, altering its genetic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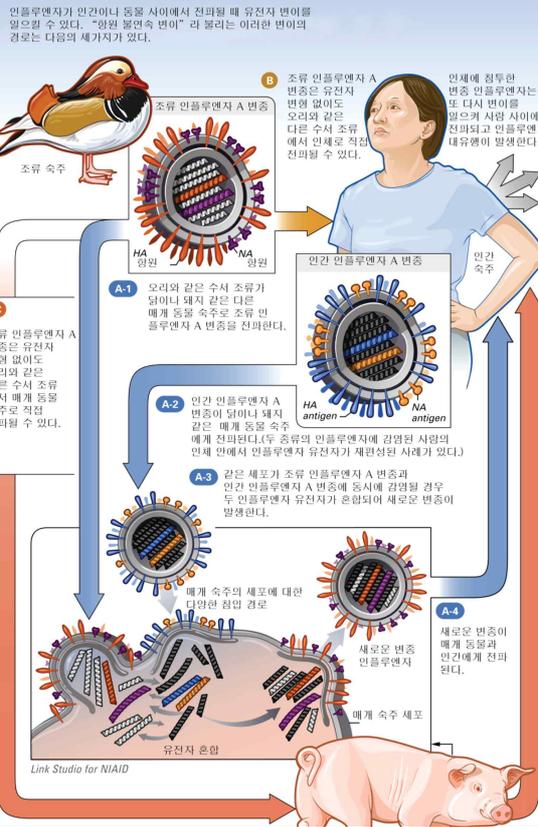
Symptoms
 Fever
 Fatigue
 Conjunctivitis
 Sore throat
 Cough
 Muscle aches

When untreated
 Rapid progression to respiratory distress, kidney failure, multi-organ failure, death.

Reasons for concern
 Humans infected with bird flu could serve as a host for a new genetic code that can be transferred from person to person. May also influence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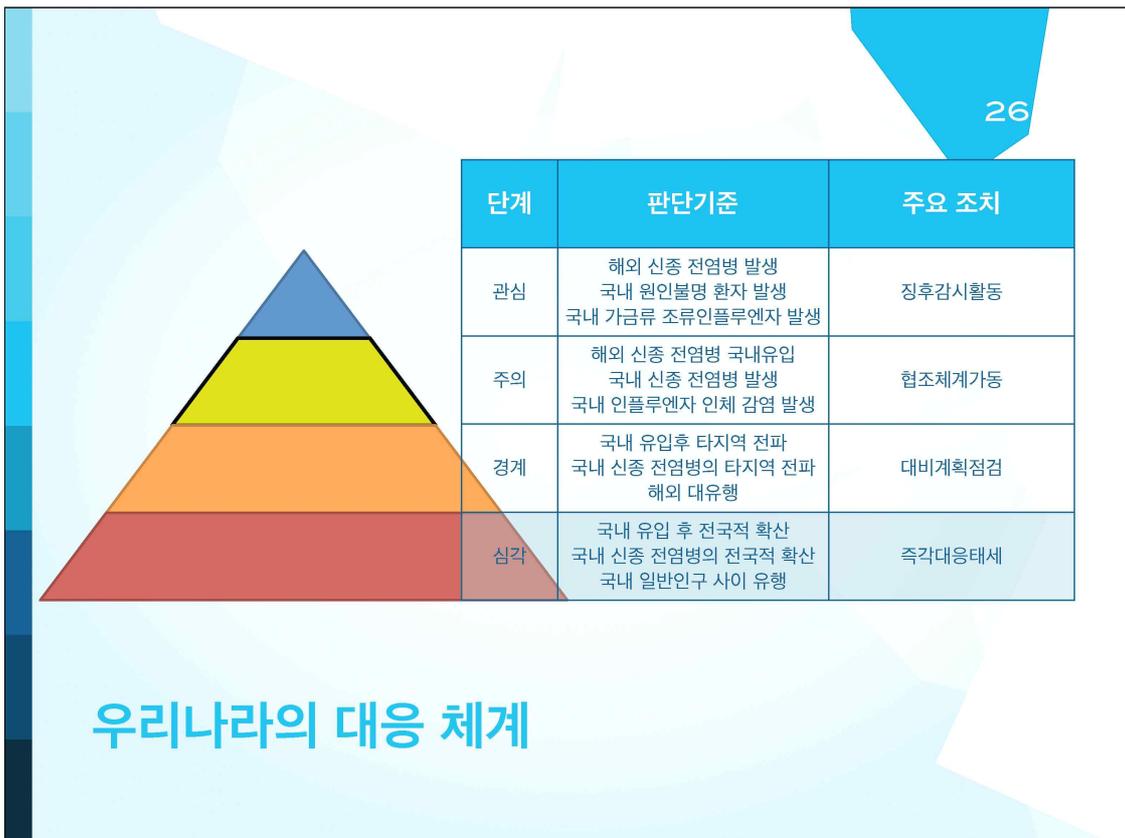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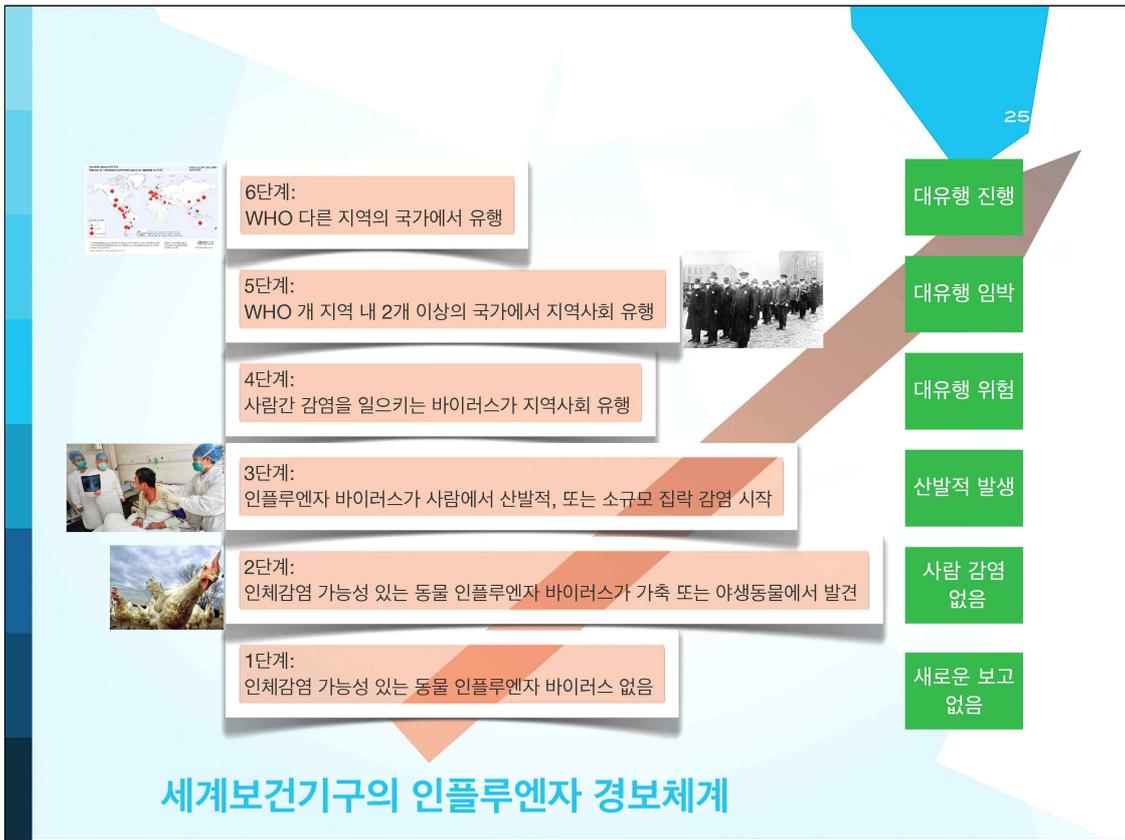
H1N1



신종독감과 그 대처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와 국내 대응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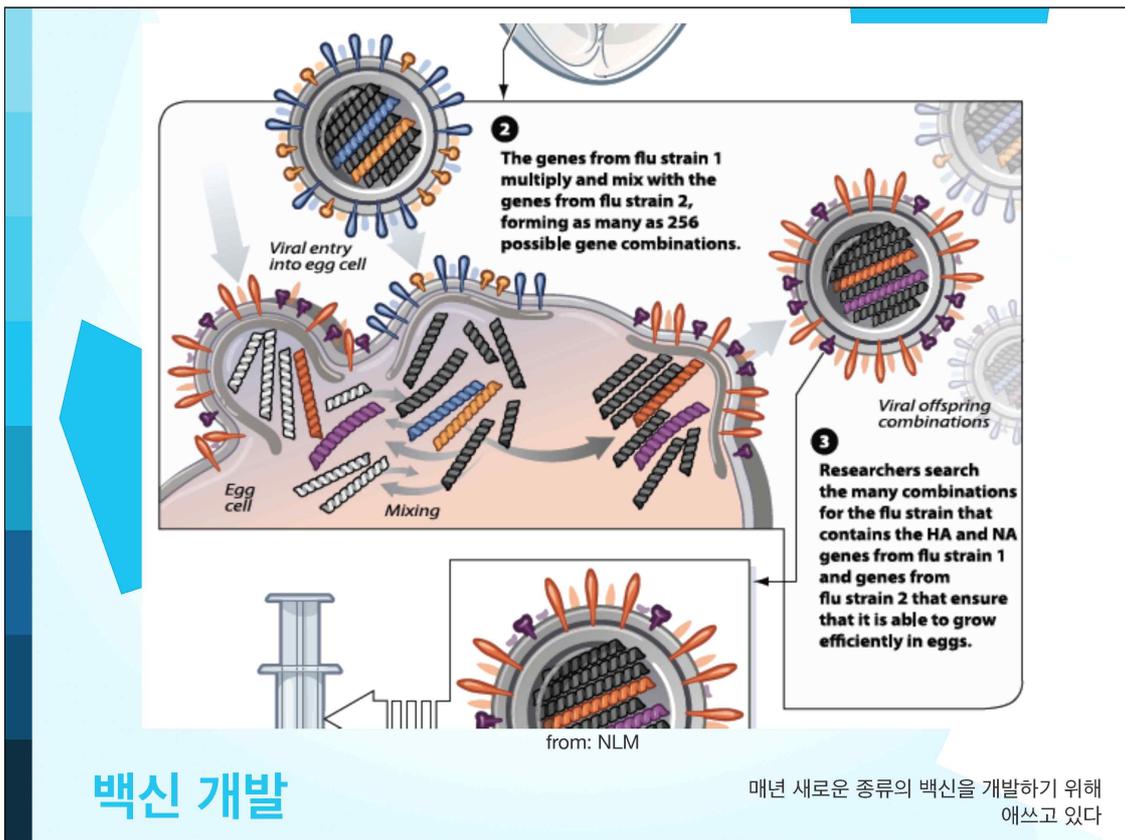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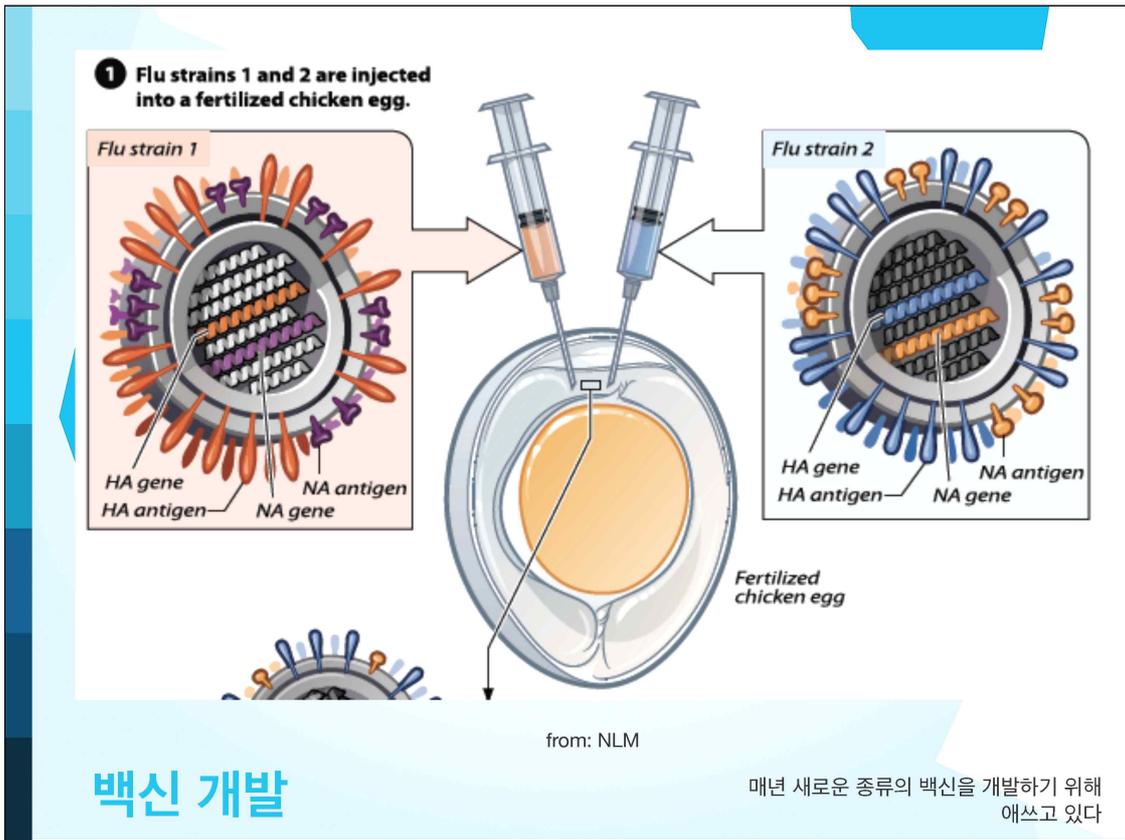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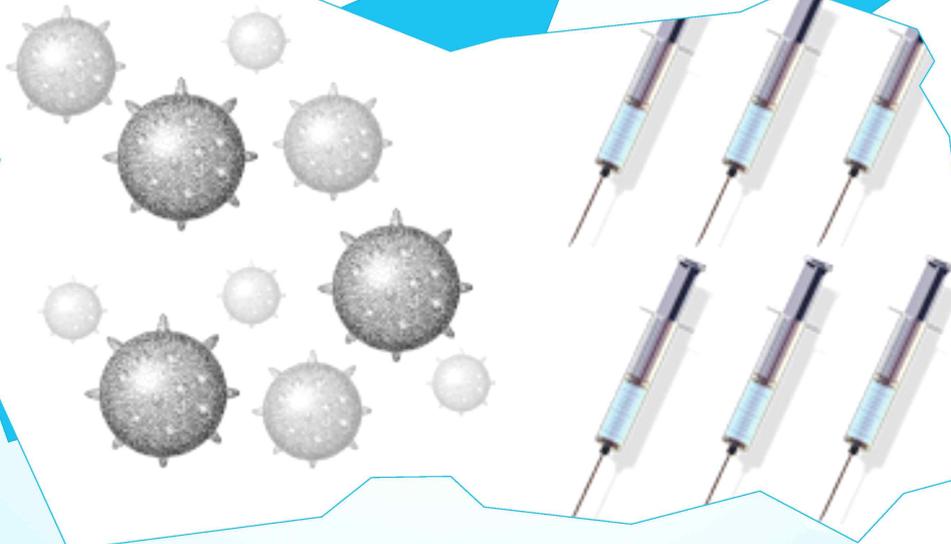
감염병 대책

28

- + 예방
 - + 예방접종, 위생활동, 건강증진
- + 신속한 확인
 - + 감염병 감시, 보고/신고, 정보전달
- + 치료
 - + 치료제의 확보, 치료병상의 확보
- + 제도 확보
 - + 감염병감시체계, 예방체계, 보고체계, 비상대책, 국제협력







from: NLM

백신 개발

매년 새로운 종류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개인위생

손에서 손으로
Hand to Hand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30초의 기적

30초 후 당신은
아이의 얼굴을 만져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줄어듭니다.

당신이 손을 씻는 단, 30초 동안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제거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시민의 협력

- + 치료법이 없거나, 경험한 일 없는 새로운 감염병인 경우
- + 가능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
 - + 가장 오래된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 +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임



격리병동. 중앙일보 2009. 7. 20

독감과 인간의 대응: 결론

독감과 친해지되, 철저히 대비하자

- + 독감- 인플루엔자는 인류와 오랜 동안 함께 지낸 질병
 - + 인간 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지내는 동물과도 친한 질병
- + 독감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하는 생명체
 - + 그 변화를 제한적으로 예측하지만 주도할 수는 없음
 - + 변화를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
- +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
 - + 예방접종, 치료제, 치료수단, 유전자 연구 등

<부 록 4: 1918년의 악몽 : 스페인 독감 >

1918년 3월 8일 미국 캔사스 주 퍼스톤 기지의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다.

3일 뒤 8월 11일에는 미 육군 부대에서 100명이 넘는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다.

심한 열과 고통이 동반되기는 했어도 죽을 병은 아니어서 모두 원대 복귀 된다.

그 군인들의 따라 인류 역사 최고의 전염병이 될 '스페인 독감'이 번져 나가고 있었다.

전염성은 대단했다.

자주는 전염병을 옮긴다!
간혹 차이는 찾아볼 수 있다!

아름다운 농구드

아름다운 여자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

1페이지

그 해 봄 스페인에는 독감이 대유행했다.

국왕 알폰소 13세부터 수백만이 독감에 걸려 관공서까지 마비되고 전차가 설 정도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내에서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무더기씩 나왔다.

스페인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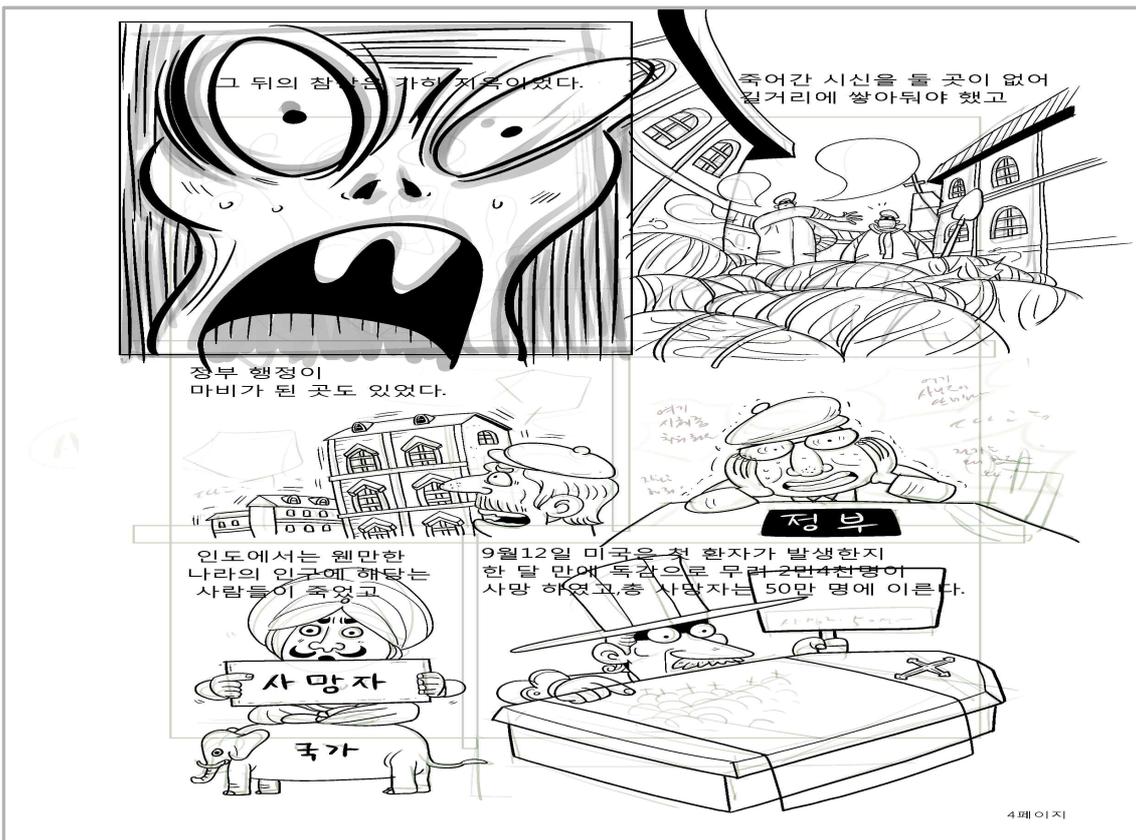
전 유럽에서 유행했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란 말인가.

하지만 스페인이 참전국이 아니었기에 보도관제가 없어 대규모 전염병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희이이이

독감

빙



또한 영국에서는 1919년 봄
15만명이 사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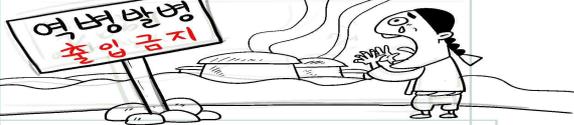
사망자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최소 2천만, 많게는 1억명까지
잡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해서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당시 일제 강점기였던 우리나라는
740만명이 감염 되었으며
14만명이 사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8년 처음 발병 한 후 2년 동안 무려 전 세계인구 중
약 5000만 명을 죽음에 몰아넣은 인류 최대의 재앙 중 하나,
스페인 독감!



5페이지

하지만 인류는 그 당시
이 (살안)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혀



그러다 1951년 캐나다의
한 의사가 동토의 얼음 위에서
죽어간 한 에스키모 여인의
허파에서 바이러스 조직을 데 냈다.



하지만 그는 바이러스
추출에 실패했다.



그로부터 47년 뒤 그는 스페인 독감을
연구하던 미군 병리학 연구소 타우펜버그
박사에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여자의
허파 조직을 구할 수 있다라며 편지를 쓴다.



타우펜버그 박사는
그 조직을 받아 연구를 거듭한
끝에 2005년 10월 마침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발견을
발표한다.



추출 결과 이 바이러스는
2000년대 초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던
조류독감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류 확인 되었다.



6페이지

1. 스페인 독감은 한 번으로 끝났나?

"스페인 독감은 왜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을 순식간에 죽였을까?"
"스페인 독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기서 우리 몇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스페인 독감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모든 신종 독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신종 독감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인류 사회를 찾아 왔다.

[세계 지도] 스페인 (1918-1919)
중국(1957-1958)
홍콩(1968-1969)
러시아 (1977-1978)
전세계 (2009-2010)

역사 기록을 뒤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만 해도 20세기 이후 다섯 차례나 된다.

다행인 것은, 유행한 신종 독감이 모두 스페인 독감 때처럼 무차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9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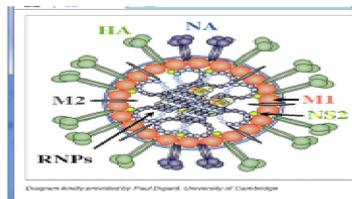
이쯤 되면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다. 왜 이렇게 잊을만하면 독감이 새로 무장하고 나타날까?

2.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며 살아간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옮겨다니는데 꼭 필요한 도구만을 갖춘 생명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포에서 저 세포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를 복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RNA, DNA)과

핵산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단백질,

그리고 바이러스를 다른 동물 속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도구들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독감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 단백질에 H와 N 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분한다.

재미 있는 것은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는 동물들이 - 사람, 말, 돼지, 닭·오리 - 서로 다른 H와 N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H1N1 단백질을 가진 바이러스는 돼지, H5N1은 조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른 동물한테는 옮겨가지 않는다.

10페이지

그런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동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고,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가 온다.

돌연변이! 때문인데, 바이러스가 자주 옮겨 다닐수록 (예를 들면 양계장이나 돼지 사육장처럼 밀집된 환경 속에서 살 때), 바이러스가 변이를 갖게 될 기회가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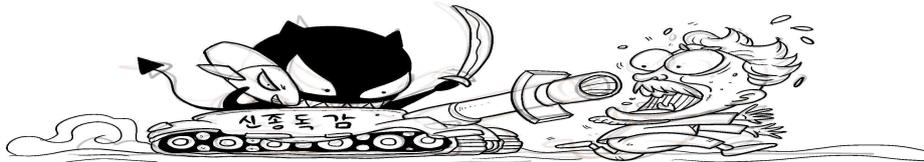


이렇게 변이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에는 대처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없으니 가끔 퍼지는 이 바이러스는 깨끗한 유리잔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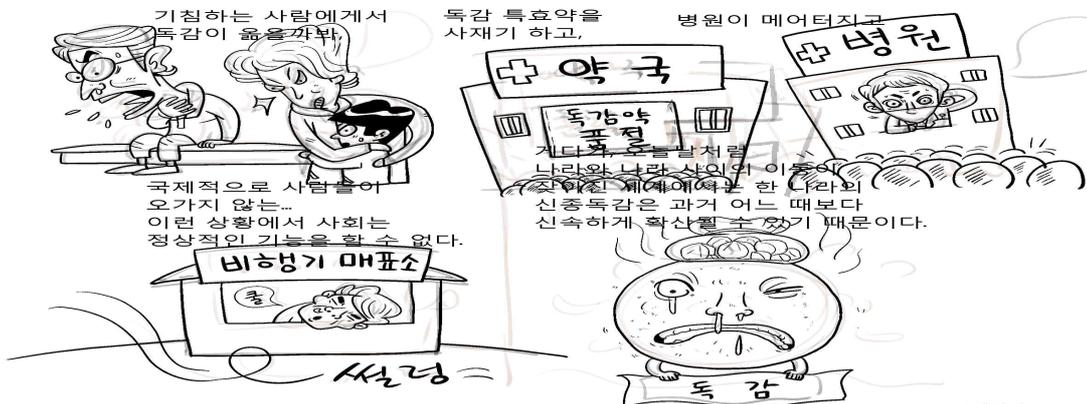
1918년과 2009년에는 H1N1 독감이, 2013년 중국에서는 H7N9 독감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1. 왜 신종 독감은 무서운가?



신종 독감은 확실히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 굳이 스페인 독감처럼 수억명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더라도 신종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한 사회가 정지하게 된다.



기침하는 사람에게서 독감이 옮겨와봐.

독감特效약을 사재기 하고,

병원이 메어터지고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기다려야 할만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동이 잦아진 세계에서는 한 나라의 신종독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어떻게 할 것인가?



독감, 아플로 눈병, 헤르페스 바이러스처럼 원래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괴롭히긴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사람을 죽였다간 바이러스도 같이 없어질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하고 동거해 본 경험이 없는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들은 일단 사람에게 감염되면 신나게 번지고, 결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는 독감 바이러스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독감이 발생했는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고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한다.



13페이지

이렇게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처하는 것 외에도 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다.



바이러스가 자라기 쉬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비록 모든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옮지 않도록 손을 잘 씻는 것도 좋은 예방수단이다.



6. 결론

원래 사람은 사람, 동물을 동물 이렇게 서로 구별해서 살아가는데,

동물과 사람이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가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정부는 독감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공해 왔다.

물론 어떤 위협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잘 대처해 왔듯 앞으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를 전복시키지는 못한다.

14페이지